

제1부

봉생병원 연혁

참인술 펼쳐온 반세기, 세계 속의 봉생으로 도약

모두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 찾아든 환자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느라 조그마한 2층 목조건물에 밤새 밝힌 봉생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다.

척박하던 우리 나라 의료계에, 봉생의 숭고한 뜻을 펼치며 인술을 베풀어온 지 어언 50년.

특히 불모지였던 신경의학의 터에 첫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경외과 선구자로서 외롭고도 혐난한 연구와 치료의 길을 걸어온 그때 그 시절로부터 반세기가 지났다. 강산은 다섯 번이나 모습을 바꾸었고, 의료기술도 그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개인 병원으로서 50년의 역사를 지속해 오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한결같이 생명을 소중히 떠받든다는 숭고한 봉생이념 하나만으로 인술을 펼쳐왔었기에 오늘의 봉생병원이 존재할 것이다.

참된 인술의 길을 걷고자 했던 청년의사 한 명으로 출발했던 조그마한 의원, 그 봉생의 50성상. 이제 봉생은 19개 진료과, 420병상의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과 14개 진료과, 229병상의 동래봉생병원으로 총 700여명의 의료인력이 집약된 탄탄한 종합병원으로 성장해왔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실한 종합 병원으로까지 발전해왔을 뿐 아니라, 한국 의료계에 있어 큰 획을 그은 학문적인 기여와 큰 공헌을 해왔다는 점에서 봉생병원의 50년 역사는 더욱 큰 의미

를 갖는다.

더욱이 참인술의 실천은 단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베푸는 의료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분야에까지 폭넓게 아울러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지닌 봉생이었기에 지역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진정한 지역병원으로 올곧게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은 부의 축적에 미혹되지 않고 진정한 박애의 정신으로 사회환원의 원칙을 직접 실천해왔던 봉생. 바로 그것은 지난 세월동안 한결같았던 사회봉사 및 문화예술진흥작업, 장학사업, 각종 복지활동 등으로 이어진 봉생의 궤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나날들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고난과 질곡의 나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아픔이 결국 봉생의 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봉생인들은 잊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단결의 힘과 진정한 의료봉사의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실천한 것이 발전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 감히 자부해본다.

이처럼 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직, 성실, 박애의 정신으로 거듭 발전하고 노력해온 봉생병원의 50년 역사를 돌이켜봄으로써 보다 나은 봉생의 새로운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제1절 1950년대

1. 봉생의 효시, 봉생의원 개원

봉생의 첫 발자취는 1949년 9월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문을 연 봉생의원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으로 남북이 갈려버린 암울하던 그 시절, 평양의전 졸업 후 평양도립병원에서 근무하던 청년의사 김원묵은 1947년 소련군들의 만행에 항거하다가 단신으로 월남하게 된다. 야심한 틈을 타서 평양의전 병원 간호사 기숙사에 침입한 ‘로스케’ 군인들을 유도 3단의 실력으로 혼내준 후 다음 날 새벽 청진기 하나를 들고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드린 후 단신으로 월남한 일화는 아직까지 전설처럼 남아있다.

김원묵 박사는 이미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남한에서는 북한의 모든 자격증을 인정치 않았던 시대적 상황이었으므로 1948년 남한 보건사회부 주관의 의사자격 국가고시에 응시, 전과목 모두 합격하기에 이르렀다. 그 시절, 어렵기로 소문났던 의사자격 국가고시에 단 한번만에 그것도 전과목을 모두 패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시기에 김박사는 평양의전 출신 동료들과 서울역 광장에서 피난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원묵 박사는 평양의전 후배인 이두봉씨가 소개해준 석순애씨를 만났다.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복지후생정책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민족을 위해 참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김원묵 박사의 포부를 들은 석순애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로구 소격동 소재의 넓은 적산가옥을 끌 히 병원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

1949년 9월 봉생의원의 개업. 바로 이것이 현 봉생병원의 효시가 되는 셈이다.

생명을 소중히 떠받든다는 ‘봉생’의 의미. ‘봉생’이라는 제호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김원묵 박사는 이로써 조부님께서 운영하시던 봉생한의원의 가업을

계승하고, 집안의 가훈을 평생의 생활철학으로서 몸소 실천할 새로운 웅지를 펼치게 되었다. 조부님은 평양에서 백마를 타고 왕진을 다닌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었다.

당시 병원 식구는 단 두 명. 갈수록 병원 일이 바빠지자, 석순애씨의 동생인 석신덕씨가 간호 및 조수 업무를 맡아주게 되었던 것이다. 석신덕씨는 그후 김박사의 아내가 된다.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수많은 환자들은,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진료해주기도 하는 김원묵 박사의 인품과 뛰어난 의술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낮없이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황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봉생의원은 잠시 휴업 아닌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석신덕 여사와 함께 경기도 평택으로 피난 갔다가 9. 28 서울 수복 후 다시 돌아온 김원묵 박사는 그해 12월 육군에 자원 입대를 결심하고 군의관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 1953년 춘천 〈제1야전병원〉 재임 당시 일반인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야간에 〈봉생의원〉 문을 열었다.

이때 나이 스물 일곱. 민족을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던 열혈청년 김원묵.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던 그는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인술을 펼치고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으로 떠난 것이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17년간의 군의관 생활이 계속된다.

김원묵 박사는 1951년 마산 <제2육군병원>, 1953년 춘천 <제1야전병원 신경외과>, 1954년 <수도육군병원 신경외과>, 1956년 부산 <제3육군병원(현 통합병원) 신경외과> 등의 여러 근무지에서 수많은 전상자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부상을 치료하는데 정성을 다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52년 은성 화랑 무공훈장, 53년 금성 화랑 무공훈장, 62년 대통령 근무 공로훈장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언제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환자를 대하는 김원묵 박사였기에, 환자라면 장교나 사병을 가리지 않았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투철한 책임감을 지닌 그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모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 신경외과학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상황이어서 김원묵 박사는 전상자 치료가 끝난 후 밤이

면 항상 병원에 혼자 남아 의학 연구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김원묵 박사의 노력과 역량을 인정한 군 당국에서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욱 투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55년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WALTER RIED 미육군병원>으로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 유학의 길. 김원묵 박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기회였다. 고국에서 자신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릴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연구만을 거듭했다. 항상 하루가 24시간뿐인 것을 아쉬워하던 그는 그 흔한 관광조차도 한번 해보지 않고 항상 병원과 연구실만을 왕래하며 정열을 쏟았다. 식빵 한 조각으로 허기를 메우며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의학서적과 촬영기기를 구입하느라 애쓰던 그 시절, 그는 미국의 높은 의학기술수준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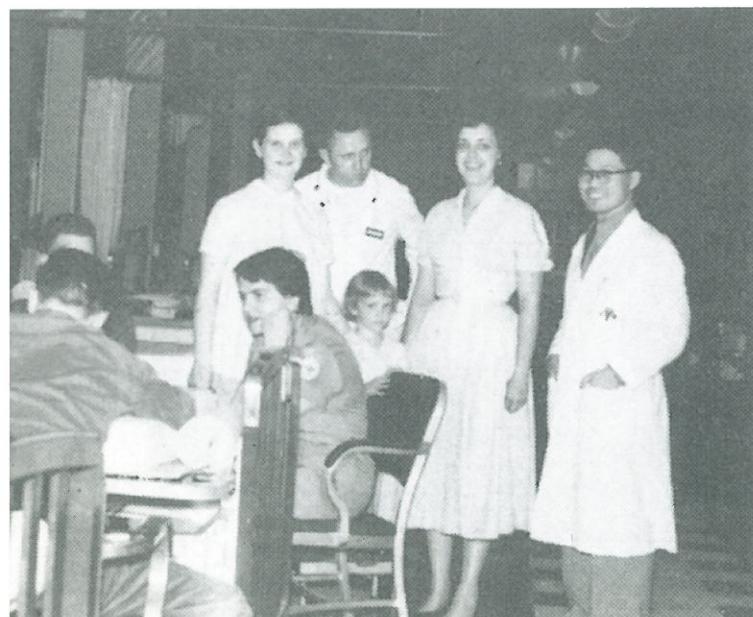
1년간 미국에서 신경외과 첨단의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김원묵 박사는 더욱 향상된 의술과 더 깊어진 환자에 대한 애정으로 이후 부산 <제3육군병원> 신경외과과장, 외과부장, 진료부장, 부원장, 병원장까지 역임하게 된다.

2. 부산 최초의 봉생신경외과의원 개원

당시 사회적 상황은 동족간의 전쟁까지 겪은 터라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특히 전쟁 부상자를 비롯해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질병과 방역대책이 없어 만연되는 전염병 등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나 변변한 병원은 물론 의사, 의료장비, 약품까지도 턱없이 모자랐다. 겨우 육군병원, 시립병원, 몇 안 되는 개인병원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그 환자들은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을 군 병동에서 치료해줄 수도 없었기에 치료기관의 부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들을 위하여 군 병원에



▲ 1955년 <월터리드 미육군병원> 유학시절

근무하는 의사들은 야간병원을 따로 개업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언제나 일반인들의 의료복지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여왔던 김원묵 박사. 1953년 춘천 소재 <제1야전병원 신경외과>시절에 야간에만 잠시 봉생의원을 개업하였던 그는, 1956년 9월 현재 범일동 오버브릿지 부근(종다방 근처)에 다시 야간에만 문을 여는 봉생신경외과의원을 개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군의관 명의로 의원 개설이 되지 않아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후배였던 정광진박사의 명의로 개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시절에는 개인병원이 거의 없던 때였을 뿐 아니라, 신경외과는 더욱 귀했다. 봉생은 한국 최초의 신경외과 의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경외과학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몇 년 안 되는 최신의학인데다가 전국적으로 신경외과는 몇몇 대학병원에만 있었다. 이로써 한국 의료계에 큰 획을 그은 봉생신경외과가 탄생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김원묵 박사가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평생을 신경외과학 발전과 환자들을 위한 인술의장을 펼치게 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보조원 2명과 30병상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의원이었지만, 항상 밀려드는 환자들로 가득 차 봉생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다.

다음해인 1957년 봉생신경외과는 현재 봉생병원 자리인 동구 좌천동 68-11번지로 이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당시 가정집이었던 2층짜리 목조건물을 개조해 만들었던 봉생신경외과. 1층에는 진료실, 치료실, 환자 대기실로 구성하고, 2층에는 15개의 입원실로 구성했다. 이때 직원은 90년 정년퇴임한 노병길 뇌파기사와 월남 후 그를 찾아온 사촌동생 홍화섭씨까지 총 4명이었다. 김박사의 아내였던 석신덕 여사는 당시 간호원, 세탁원 역할 등 병원의 모든 잡무를 손수 하기도 했다.

3. 의학계의 새로운 바람, <뇌동맥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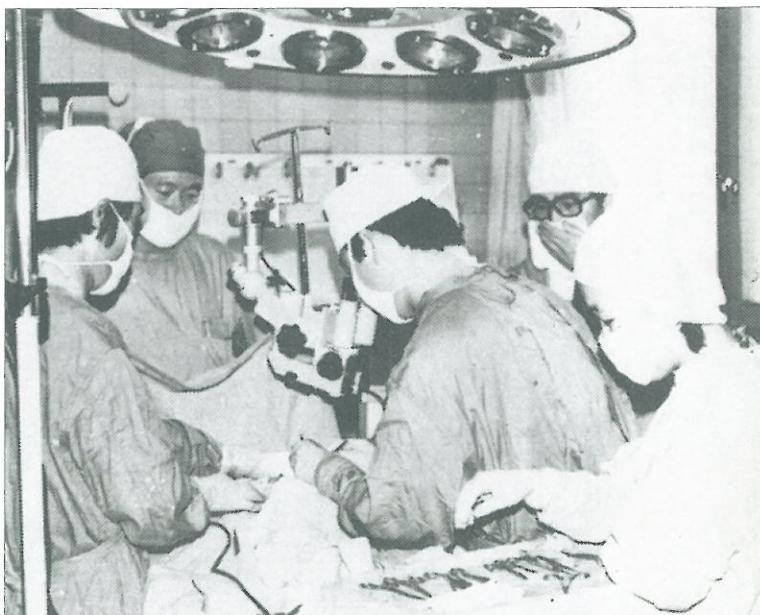
그 시절 사회상황이 어려웠던 터라 제대로 된 의

료기기를 구비하기도 힘들어 약전침대를 수술대로 삼아 사용하기까지 했다. 척추조영수술을 하기 위해 조영제를 넣은 환자를 양 옆에서 직원 2명이 붙잡고 직접 돌려가며 촬영하기도 했고, 조명시설도 부족해 백열전구를 머리에 부착해 수술부위를 비춰가며 수술했던 시절이었다.

조금이라도 환자들에게 나은 진료를 해주고 싶어 하던 김원묵 박사는 의료기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아쉬워했다. <제3육군병원>의 근무가 끝나면 육군 병원의 의료기기들을 빌려와 밤새 환자들을 치료하고 아침 일찍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곤 했다.

그 무거운 기계들을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운반해내었던 그 열정은 바로 김원묵 박사의 ‘최선’이라는 신념의 표현이었다.

이처럼 어떻게든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에 정성을 다하고자 했던 김원묵 박사는 미국 유학시절 처음 접했던 <뇌동맥 촬영>이 꼭 필요한 의술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해 그 당시 얼마 되지도 않았던 유학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당시 국내에는 보급이 되지 않았던 Angio needle 등의 촬영기기를 구입하여 귀국했었다. 부족한 나머지 촬영기기는 미국에서 눈여겨본 그대로 손수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첨단의료



▲ 열악한 시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던 고 김원묵 박사의 모습

기기 확보에 열과 성을 다했다.

특히 김원묵 박사에 의해 우리 나라에 첫 선을 보 이게 된 <뇌동맥 촬영>은 의학계에 최신의료기술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신 의료기기와 뛰어난 의술, 환자를 위한 정성 때문에 봉생신경외과는 언제나 환자로 만원을 이루었다. 봉생신경외과가 환자를 정말 잘 본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부산은 물론이고 저 멀리 서울이며 강원도에서까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여기에는 김원묵 박사의 봉생이념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봉생이념을 실천하던 김원묵 박사는 환자들의 부귀나 편천을 전혀 개의치 않고 누구나 소중한 생명으로서 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병원비를 받지 않기도 하고, 거의 무료로 진료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훗날

감사의 뜻으로 깨 한 되, 닭 한 마리라도 들고서 찾아오곤 했다.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이 봉생병원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돈을 벌기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봉생신경외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김원묵 박사의 고귀하고 높은 이상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따뜻이 밝혀주는 크고 환한 빛이 되었다.

제2절 1960년대

1. 군의관으로서 최초로 의학박사 학위 수여

1960년대는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산업화, 근대화가 추진되어 가시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왔으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정치적인 격변을 겪음으로써 암울한 시대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늘어나자 의료계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때까지는 개인의원이 중심이 되던 구조였지만, 현대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점차 종합진료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의료기관의 대형화가 촉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1959년 설립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1962년 병원설립 기준안을 확정하였다.

한편,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과목 표방 허가기준의 신설로 1956년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여오던 중, 1960년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전문의 시험응시자격 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수련 연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이즈음 김원묵 박사는 낮에는 제3육군병원에서, 밤에는 봉생신경외과에서 밀려드는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인술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김원묵 박사의 실력과 명성이 높아지면서 제3육군병원에서의 역할도 외과부장, 진료부장 등으로 더욱 커져갔다.



▲ 1964년 김원묵 박사는 군의관으로서 최초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학구파였던 그는 신경외과학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할 만큼의 실력이 있었지만 항상 겹혀한 자세를 잊지 않았다. 진료중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선배, 동료, 후배에게까지 서슴없이 물어보고, 연구를 거듭하여 스스로 완벽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던 김원묵 박사. 그럼에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나 새로운 의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에 김원묵 박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높은 향학열을 불태웠다.

이에 그는 다시금 주경야독의 길을 걷게 된다. 열악한 연구환경 속에서 동물실험 등을 직접 하기도 한 김박사의 학구열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군의관 동료들이 아직까지 높이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언제나 새로운 의술의 도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김원묵 박사는 196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1963년 7월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1964년에는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우리나라 군의관으로서는 최초로 의학박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2 <제3육군병원> 병원장 역임

또한 그해 김원묵 박사는 육군 대령으로 진급하면서 제3육군병원의 병원장 대리로 발령 받게 되었다.

김원묵 박사는 병원장 취임사에서 평소 지니고 있던 의료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건강을 잃은 환자다. 가난한 사람은 근검절약하면 잘 살 수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성실히 노력하면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건강은 돈이나 권력, 학식이나 명예도 결코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여 병원의 모든 일을 환자 제일주의로 하고 불행한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불구가 된 환자가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당시 <제3육군병원>에는 1천여 명의 전상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이 두부손상, 척추손상 환

자들이었다. 계급이 가장 우선시 되는 억세기만 한 군인인데다가 더욱이 쟁쟁한 무공을 쌓다가 부상당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병원 분위기는 혐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환자 제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김원묵 박사의 지도력으로 병원 분위기는 나날이 바뀌어갔다. 환자의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고 따뜻한 인간애와 정중한 인품으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그의 인술에 모두들 감화되었기 때문이었다.

3 육군 예편, 봉생신경외과에 전력 쏟아

언제나 그래왔지만 이 시절 김원묵 박사에게는 개인적인 시간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

전상자들을 위한 <제3육군병원> 병원장으로서의 직책과 일반인 환자들을 위해 개업한 봉생신경외과, 또한 1964년도부터 후학양성을 위해 출강 중이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 신경외과 교수직까지 1인 3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초를 쪼개가며 환자들과 함께 지내느라 하루 스물 네시간이 항상 모자랄 정도였다.

물론 여러 곳에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인술을 펼친다는 것은 보람된 일이기는 했지만 더욱 세심하고 지속적인 의사의 손길을 바라는 환자들의 소망을 불



▲ 1964년 제3육군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한 김원묵 박사

때마다 그에게는 안타까움만이 남을 뿐이었다. 이에 김원묵 박사는 다시 결단을 내리게 된다. “어느 한 곳의 환자에게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더 깊은 사랑과 의술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1967년 9월 김원묵 박사는 17년간의 군의관 생활을 접고 대령으로 육군에서 예편하였다.

처음 군의관으로 자원입대했던 동기와 다시 예편하게 된 동기는 똑같았다.

‘언제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실천해 왔던 박애의 정신’

이때 김원묵 박사의 나이는 마흔 넷.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신과 가족의 안위, 명예와 부에 집착할 법도 한 나이인데,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육군 병원장직과 대령 계급을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료 봉사를 위해 다시 험난한 가시밭길로 자진해서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후 김원묵 박사는 지역주민들의 치료를 위해 오직 봉생신경외과에만 전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4. 의원에서 병원으로 도약

봉생신경외과는 김원묵 박사의 명성 때문에 연일 환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불비기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뿐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차도 김원묵 박사에게 환자들을 보내오면서 진료를 부탁했던 실정이었다.

이렇게 밀려드는 환자들로 새벽부터 시작한 진료가 자정까지 끝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제 시간에 맞춰 식사하기가 힘들어 그냥 건너뛰기가 예사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결코 내색하는 일 없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고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하곤 했다.

김원묵 박사는 “병마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온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받는 마음까지 어루만져줘야 한다”며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환자 우선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기를 매일같이 당부하곤 했다.

김원묵 박사의 이런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신경외과이기 때문에 굳이 청진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그는 늘 환자들을 진료할 때면 그 바쁜 와중에 일일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어보고 손목을 잡아 맥도 짚어보면서 환자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환자들은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불안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병세를 설명해주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리고 청진기라도 대고 맥을 짚어보는 것에서 ‘아, 내가 이렇게 진료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병세도 쉽게 호전된다는 것이 그의 진료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뛰어난 의술과 환자 우선의 따뜻한 인품을 가진 그였기에 봉생은 날로 발전을 거듭했다.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확장이 불가피했다.

1967년 10월 수술실을 현 정형외과 자리로 옮기는 등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30병상에서 60병상으로 확대하여 봉생신경외과 병원으로 승격하기에 이르렀다.

다음해 봉생병원 최초의 간호사인 이명자 간호사(현 간호부장)가 입사했으며, 1969년에는 간호사 7명, 간호보조원 33명으로 늘어나 본격적인 병원 규모 확장과 의료인력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 1968년 당시 이명자 간호사(현 간호부장) 등

제3절 1970년대

1. 김원묵 박사, 대한신경외과 학회장 취임

1960년대에 시작했던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자, 1970년대에도 제 3차, 4차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산업발전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을 비교우위 요소로 내세운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은 이를 수 있었으나, 실상은 소득격차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가 촉발되었던 시기였다.

또한 군사정권에 대항한 학내 교련 반대 운동과 국가비상사태선포, 7·4공동성명 발표, 10월 유신 단행 등의 지속된 정치적 소요는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켜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 역시 국가 의료보건 시책에 따라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의료계의 변화는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양적 확산,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인구 억제를 위한 가족사업 진행, 복지사회정책 추진에 따른 무의총 해소 및 지역사회 의료망 확대, 의료보험제도 시행 등으로 사회적인 의료활동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의료 확대를 꾀한 정부의 정책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1969년 266개에서 1971년 326개로, 1만 1900여개였던 병상수도 3만 7800여 개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9개에서 18개로 2배로 늘었을 뿐 아니라 중소병원들도 줄지어 개업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77년 7월 시행된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보험수가 기준을 정하고 전국을 42개의 진료지구로 나누고 1, 2차 진료체계를 구분하는 등 의료계는 전환기적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듯 봉생병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외형과 내실 면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다져나갔다.

병원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반석 위에 올려놓은

김원묵 박사는 새로운 의학분야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불치의 병이라는 암. 암환자들이 급증하게 되자, 김원묵 박사는 암 정복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또한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선구자로서, 그 실력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김원묵 박사는 1970년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 우리나라 신경외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이루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초창기, 그 어려웠던 시절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공적이었다.

1972년에는 날로 발전해 가는 의학의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미국 LOS ANGELES FOUNDATION OF OTOLOGY에서 현미경 수술법 신경외과 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교수로 매주 출강해왔던 그는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 출제위원까지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 3차에 걸친 공사로 현 구관 건물 신축

조부님께서 운영하시던 의원의 이름이자 집안의 가훈인 奉生, 김원묵 박사는 봉생의 의미를 더욱 명



▲ 1970년부터 1972년까지 3차에 걸친 신축공사(1972년 3차공사 광경)

료하게 상징하고자 봉생 로고를 제작하였다.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生이라는 글자를 양손으로 소중히 받들고 있는 봉생 로고. 1970년 최우상 부산일보 광고기획실 차장의 도안으로 만들어진 봉생 로고는 奉生의 뜻 그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받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낡은 목조 건물로는 도저히 밀려드는 환자들을 수용해낼 수 없었기에 병원 규모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1970년부터 3차례 걸친 병원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중앙공급식 산소장치, X-선 촬영투시장치(미국 GE 500MA), 뇌파검사기(EEG, 일본 니혼고덴 8찬넬), 두부용 초음파기, ICU 모니터 장치, 수술용 현미경 등 최첨단 의료기기를 도입, 설치하여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최신의 의료, 양질의 의료’라는 봉생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교환실에는 100회선 공전식 교환기를 도입해 환자들의 편의를 도왔으며, 방사선과에는 방사선사 1명과 보조 2명을 두게 되었다. 1971년에는 80병상으로 확장하면서 직원이 늘어나자 간호과장제도를 도입해 이명자 초대간호원을 제1대 간호과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1972년 8월에는 신경외과와 밀접한 정형외과를 신설, 오정대 초대 과장이 부임했고, 쉼 없이 계속되는 수술로 당시 민간병원으로서는 최초로 마취과 전문 의사를 초빙하기도 하였다.

그해 12월 3차례의 공사 끝에 연건평 1009평, 80병상의 현 구관 건물인 봉생병원 신축 건물이 완공되었다. 힘들게 진행되었던 공사였던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한 보람도 컸다. 당시로서는 부산에서 개인 병원으로서는 가장 큰 건물에 속했다.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환자들의 치료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1970년 처음에는 당시 병원건물은 그대로 두고 옆 건물(현 응급실 자리)을 매입하여 1층은 진료실, 2, 3, 4층은 병실, 5층은 내실로 하는 1차 공사(A동)를 마쳤다.

그러나 병원을 크게 지으면 짓는 대로 환자들이 더 몰려오는 바람에 1971년에는 목조건물(현 신경외과 자리)을 헐어 7층 건물(B동)을 신축하고 X-레이실과 응급실, 약국, 신경외과를 두었다.

그리고 다음해 A동과 B동 사이의 공간활용을 위해 3차 공사를 실시, 그 곳(C동)에 정형외과와 서무과, 제2 X-레이실을 만들었다.

이때 처음으로 중환자실 5병상을 개소하였고, 간호사들의 3교대 근무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73년 3월 현 외과자리에 임상병리검사실을 개설하고 이정익 초대 임상병리사가 검사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첨단 의료체계를 갖춘 셈이었다.

신축한 병원 건물과 최첨단 의료기기 설비는 주위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개업의들이 봉생병원에 견학을 오기까지 하였다. 말 그대로 봉생병원이 부산·경남지역의 핵심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계를 선도해나갔던 것이다.

3. 봉생의 숨은 공로자 석신덕 여사

이러한 봉생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의一面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봉생병원의 개원 이후 성장의 토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은



▲ 개인병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봉생신경외과병원

김원묵 박사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부인 석신덕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 봉생의원 시절부터 김원묵 박사를 도와온 석신덕 여사는 병원의 크고 작은 살림을 모두 담당했다. 병원 내 청소부터 시작해 세탁, 재봉, 음식 준비 까지 모두 그의 손길을 거쳐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병원이란 위생을 중요시해야 하므로 쓴아져 나오는 세탁물들과 수술 후 피범벅이 된 빨래도 직접 세탁하고 소독해 살균처리까지 완벽하게 해내었다. 또한 그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식사도 손수 만들었던 석신덕 여사는 매년 엄청난 양의 장을 담그고, 서너 달에 한번씩 김장을 하곤 했다.

자애롭고 인자한 김원묵 박사와 엄격하고 세심한 석신덕 여사. 누구나 부러워했던 이 잉꼬부부의 조화는 너무도 이상적인 것이었고, 바로 그 장점들이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밖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모든 병원 일들이 물 흐르듯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진두지휘한 석신덕 여사에게 김원묵 박사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러한 내조가 있었기에 김원묵 박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환자에게만 더욱 전념할 수 있었다.

4. 한국 의료계의 큰 별, 김원묵 박사 타계

봉생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은 김원묵 박사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되어주었다. 김원묵 박사는 종합병원으로의 승격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학교의 개설, 암 치료센터 개소, 평생의 숙원이었던 뇌신경 연구소 설립 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지역사회와 복지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펼쳐나갔다. 병원이란 사회를 위한 공익기관이어야 하므로 마땅히 사회봉사의 사명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즉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의료를 해주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 봉생이념의

'박애' 정신이 사회봉사의 차원으로 그 폭을 넓혀간 것이다.

김원묵 박사는 돈 없는 환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시민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역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제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해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해주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곤 했다.

1974년 9월 경희대학교에서 <국제침술학회>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한의사였던 조부님의 영향으로 평소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김원묵 박사는 국제침술연수회에 참가했다. 연수는 6주 과정이었으므로 김원묵 박사는 주말마다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수회에 참가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다시 상경하곤 했다.

전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1974년 11월 2일 토요일, 평양 광성중학교 동기인 죽마고우 친구가 찾아왔다.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해 비자 신청을 해놓았던 그 친구는 외무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인맥이 많은 김원묵 박사가 월요일에 함께 찾아가 줄 것을 부탁하며 주말을 서울에서 함께 보내자고 요청했다. 부산의 병원 일이 걱정되었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김원묵 박사는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다. 침술연수 시 줄곧 이용해 왔던 청량리 소재 대왕빌딩 내 브라운 호텔에서 친구인 이선생과 함께 이틀을 더 숙박하게 되었다.



▲ 1973년 김원묵 박사가 직원들과 함께 소화훈련에 임하고 있다

그날 밤 대왕코너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88명, 화상을 입거나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람만 해도 30여명이 넘는 등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

브라운호텔에 묵고 있었던 김원묵 박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11월 3일 아침 현장에서 발견된 김박사의 유품 중에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 좋게 깨알같은 글씨로 영어 단어와 숙어를 써놓은 쪽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화마에 할킨 고인은 6층 비상계단에서 발견되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화재가 나자 불이 아래로 번지지 못하게 비상 샷터를 내린 바람에 탈출하지 못한 것 이었다.

함께 발견된 봉생신경외과 서류봉투 속에는 여권과 중요 서류들이 들어있었고, 이것이 바닥과 몸체 사이에 끼여 있어 타지 않아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4년 11월 3일 한국 의료계를 이끌어가던 큰 별, 김원묵 박사는 이 같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51세. 평생을 의학발전

과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몸바쳐 일해왔던 김원묵 박사의 타계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석신덕 여사와 단둘이서 시작했던 봉생의원을 80여명이 넘는 대가족을 거느린 봉생병원으로 성장시키고, 심도 깊은 의학 연구, 더 높은 양질의 의료혜택,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노력으로 경주했던 김원묵 박사.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떠받들어야 한다는 봉생 이념을 생활철학으로 삼아 몸소 실천하고, 박애주의를 생활화했던 김원묵 박사.

그의 비보를 전해들은 이들은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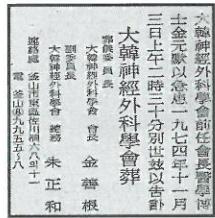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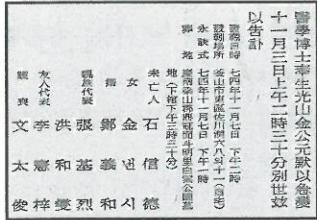
5. 봉생, 개원 이래 최초의 위기를 맞다

병원을 이끌어나가던 베팀목이 갑자기 쓰러져버리자, 봉생병원은 개원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에 접어들게 된다.

제9132호

1974년 11월 5일 (화요일)

제 81 보



▲ 당시 부산·경남지역 최대 부수를 발간한 국제신 보의 김원묵 박사 타계 기사 및 부음 기사

이른바 주인 없는 병원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 사실 봉생병원은 지금까지 김원묵 박사의 명성으로 이룩되어온 것인데 그가 없는 병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봉생병원은 바로 김원묵 박사의 분신이었다. 그의 부재는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의사들도 하나 둘 병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석신덕 여사는 부군을 잃은 슬픔에 계속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룩한 봉생, 부군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석신덕 여사는 병원 운영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김원묵 박사는 작고하시기 한달여 전에 미국 로스엔젤리스 남가주대학교 상대에 유학간 고명딸 김낸시를 2년여간 교제해오던 청년과 혼인을 맺어주었다.

청년의사 정의화.

훗날 그는 김원묵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 봉생병원을 더욱 훌륭하게 키워, 두 개의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키는 등 봉생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청년의사 정의화는 김원묵 박사와 10년간 친분을 맺어오던 정윤호 선생의 차남으로 당시 부산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1년차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었다. 약관 26세. 봉생병원을 전적으로 맡기엔 더 많은 수련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여장부로 소문났던 석신덕 여사는 김원묵 박사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위가 전문의가 되어 봉생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봉생병원 회장으로 취임, 침식도 잊은 채 불철주야로 병원 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김박사가 타계한 후 상속을 받을 때까지 3, 4개 월간 봉생에 휘몰아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정의화편에 소개키로 한다.

그해 11월 전춘서 박사(신경외과 전문의, 현재 천안에서 개업중)가 봉생병원 2대 병원장으로, 76년에는 심재홍 박사(신경외과 전문의, 전 백병원 원장)가 3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와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서 봉생의 명성을

지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갔다.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때까지 쌓아왔던 봉생의 저력, 그리고 석신덕 여사와 사위인 정의화 원장을 중심점으로 한 봉생인들의 단결로 병원은 다시 정상궤도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1977년 5월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고춘자 초대 약사의 뒤를 이어 박정희 2대 약사가 부임하여 본격적인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1978년 마침내 세브란스병원과 전주예수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정의화 원장이 그해 2월 15일 제 4대 봉생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병원장으로 취임한 정의화원장은 최규제씨를 경리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병원경영의 조직화에 힘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원묵 박사의 높은 뜻을 받들고 봉생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실력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의화 원장은 그해 8월 26일 첨단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미국유학을 떠나기 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의화 원장은 심혈을 기울여 경영체제와 행정전반의 모든 것들을 정비함으로서 과도기의 봉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한 구조를 이룩한 후, 석신덕 회장에게 다시 병원을 맡기기에 이른다.

그와 함께 지금은 작고했지만 당시 부산대학 신경



▲ 1980년 완공하여 부산시에 기증한 병원앞 육교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석신덕 여사

외과 조교수였던 김수휴 박사가 5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봉생병원을 성실히 이끌어 나갔다. 김수휴원장은 정의화 의료원장의 대학 7년 선배이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의국 2년 선배이다. 소탈하고 털털한 서민적 성격이면서도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자상함도 가진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였다. 정의화원장이 미국에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수휴교수가 봉생병원장을 맡아준 덕분이다.

제4절 1980년대

1. 지역사랑 실천으로 봉사의 장 넓혀

1949년 개원 이후 30여 년 봉생병원이 걸어 온 길은 우리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비슷한 궤적을 그려왔다고 할 수 있다. 개원 초기부터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봉생병원은 ‘정직, 성실, 박애’의 봉생이념 실천과 꾀준 노력으로 그 힘들었던 고비 고비들을 넘어왔다.

단순한 환자 치료의 개념을 넘어선 생명 존중의 참사랑 실천을 위하여 환자 제일주의의 고귀한 인술을 펼쳐나갔을 뿐 아니라, 나아가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회봉사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 꾀준히 실천해온 봉생이념이 있었기에, 이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



▲ 석신덕 회장이 1981년부터 해마다 개최한 경로위안잔치

주었다.

봉생의 설립자인 김원묵 박사의 타계 이후, 봉생을 지켜나간 정의화 원장과 석신덕 회장의 노력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병원의 발전은 물론이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더욱 주력했던 정의화 원장과 석신덕 회장은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정성어린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던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봉생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갔던 것이다.

여러 사회봉사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원 앞 육교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앞 8차선 도로는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 중심지여서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점이었다.

‘마의 길목’이라고까지 지적되어온 병원 앞 도로에는 건널목도 없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밤낮으로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들어오는 환자들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아픔을 지켜보던 석신덕 회장은 어느 날 부산시로부터 육교를 건립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는다. 지금으로 보면 5억원이 넘는 공사였다.

석신덕 회장은 당시 미국 뉴욕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학을 연수 중이던 정의화원장과 이 일을 의논했다. 정의화원장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무었보다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봉생이념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육교 건립을 적극 추진하자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4천 3백 89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준공된 병원 앞 육교는 1980년 12월 5일 제1회 부산시민의 날을 맞아 개통과 함께 부산시에 기증되었으며,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오랜 숙원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 육교의 건립으로 교통사고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졌으며, 현재까지도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부터 수시로 찾아 봉사의 손길을 펼치던 〈신망애〉 양로원을 비롯한 여러 양로원 방문에

이어, 1981년에는 경로의 달 5월을 맞아 외로운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자 지역거주노인 300여명을 병원으로 초대해 제1회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후 매년 5월이면 병원 옥상의 넓은 공간에 넉넉한 음식과 흥겨운 여흥을 준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있다.

요즘은 많은 단체에서 노인잔치를 하고 있으나, 부산지역에서는 봉생병원이 주최한 노인잔치가 가히 효시라 할 수 있다.

MBC 방송 ‘자갈치아지매’라는 프로그램에도 부산 지역에서 최초라며 소개된 적이 있는데, 부산 전역에서 너무 많은 노인들이 모여 음식과 선물이 모자라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

또한 그해부터 도서벽지에 있는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남 진양군 소재 동지초등학교 학생 16명을 초청하여 2박 3일간 제1차 벽지아동 초청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이 초청 수학여행은 도시 어린이들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문화혜택이 부족한 섬이나, 산간에 있는 작은 분교들을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수학여행의 모든 경비를 봉생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해마다 수학여행을 온 어린이들은 봉생병원에서 마련한 운동복을 기념선물로 받고 종합건강진단을 받은 후 용두산 공원, 어린이 대공원,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일보사와 KBS 방송국, 지하철 등 부산의 주요 명소들과 기관들을 견학하고, 양산 해운 자연농원 캠프장에서 다채로운 놀이를 통해 티없이 맑은 동심의 세계를 마음껏 펼쳤다.

수학여행에 초청되었던 어린이들은 잊지 않고 “견문을 넓힐 기회를 준 봉생에 감사하며 앞으로 커서 꼭 착한 일을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와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료로 진료해주고, 눈이 나쁘신 노인분들께는 무료로 안경을 선물해 드리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봉생은 지역민들의 한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면서 결코 없어

서는 안될 소중한 지역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정의화 병원장 취임, 봉생이념 이어가

1981년 5월 4일 미국에서 2년 10개월의 공부를 끝내고 귀국한 정의화 원장이 김수휴 원장의 뒤를 이어, 제 6대 병원장의 재취임하게 됨으로써 봉생병원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바야흐로 설립자 김원묵 박사의 봉생이념을 이어받은, 실력있는 청년의사 정의화 병원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때부터 봉생은 종합병원으로의 승격 및 동래봉생병원 개원, 봉생문화회 설립, 봉생 사회복지회 설립 등 인술과 봉사의 실천이념 아래 체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참인술과 사회봉사의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쉼없는 여정을 걸어온 정의화 원장.

1948년 경남 창원시 웅동면 소사리 12번지(현재 진해시 편입)에서 정윤호선생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정의화 원장은 김해 대동에서 서당 훈장으로 후학을 가르치며 의술을 펼쳤던 조부 고 정순용님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웅동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웅동중학교와 건국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셨던 부친 정윤호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교육가 집안의 엄격한 가풍과 항상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난 정의화 원장은 언제나 인정이 흘러 넘치는 따뜻한 소년



▲ 1982년 일반외과 개설을 기념하며 봉생의료진과 함께

으로 주위의 칭찬을 듣곤 했다. 영리하고 예의바르기로 소문났던 그의 어린 시절 꿈은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부 출신으로 1944년 고시 전형에 합격, 1945년 해방 전까지 법관을 지낸 부친의 뒤를 이어 법관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시 전공선택의 길에서 의가(醫家)를 이루고자 하는 부친의 뜻에 따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 힘든 의사의 길을 밟게 된다.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라 어느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공부했던 정의화 원장은 1972년 7월 본과 4학년 때 미국의사자격시험(ECFMG)에 응시, 동기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의사였다.

수련의 과정을 마친 1978년, 약관 26세의 젊은 나아로 봉생병원을 책임지게 된 정의화 원장은 밤잠을 잊은 채 병원 발전과 환자 치료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젊은 폐기와 정열이 넘쳐 흐르던 정원장의 부임으로 봉생병원은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병원 분위기가 조성되어졌다.

그러나 정원장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날로 발전하는 첨단의학과 선진의술을 연구하여 누구보다도 높은

실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병원을 다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수많은 날들을 고민한 끝에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더 넓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의화 원장은 과감히 미국 유학을 단행키로 했다.

쉽게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한 정의화 원장의 유학 결정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활철칙에서 비롯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진의학에 대한 뜨거운 학구열은 결국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의화 원장은 봉생가족들에게 “힘들겠지만 봉생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그해 7월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 뉴욕 대학병원,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임상 및 미세혈관연구 펠로우쉽을 획득하는 등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심도 깊은 연구와 풍부한 임상경험을 축적한 정의화 원장은 3년 후인 1981년 다시 봉생으로 돌아와 제 6대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봉생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청년의사 정의화 원장의 취임으로 봉생은 다시 재도약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봉생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정의화 원장이 봉생을 책임지게 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봉생이념과 원훈의 정립이었다. 무릇 한집안의 가훈이란 그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뚜렷하다면 그리고 그 방향이 옳고 바르다면,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헤쳐 나갈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생활해왔던 정의화 원장.

생명을 소중히 떠받들어야 한다는 봉생의 참뜻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철학을 근간으로 그는 정직·성실·박애의 원훈과 함께, 다음과 같은 봉생의 4대 이념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나. 봉생병원은 의학발전의 선봉이 된다

하나. 봉생병원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 1984년부터 시작된 신관건물 신축공사

다한다

하나. 봉생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하나. 봉생병원은 최신의 의료, 양질의 의료를 베풀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후, 정의화 원장은 병원 재정비에 큰 중점을 두고 각 진료과에 관련된 여러 부서들을 새로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규모 확장을 시작하였다. 그해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이승희 초대 실장의 책임 아래 전기치료실과 수치료실을 운영함으로서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심혈을 기울였고, 임상병리 검사실에서는 혈액은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원무과에 김석철 초대 과장을 임명하는 동시에 입·퇴원계, 수납, 접수 계로 전문화하는 등 본격적인 병원 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3.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으로 명칭 변경

고 김원묵 박사님은 온화함과 세심한 배려, 깊고 따뜻한 인품으로서 직원들을 포용했다면, 정의화 원장은 젊은 패기와 자신감, 강한 추진력과 특유의 카리스마로서 직원들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판이하게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두분 모두 기본적인 근간은 똑같았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환자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었다.

특히 고 김원묵 박사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정의화 원장은 무엇보다도 봉생이념을 소중히 여기고 생활 철칙으로 삼아 실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1983년 11월 1일 봉생병원은 또 하나의 역사의 장을 넘기게 된다. 봉생병원에서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으로 병원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 명칭은 봉생의 설립자이신 고 김원묵 박사님을 영원히 기념하고 그 분의 뜻을 이어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자는 깊은 의미를 담는다.

이와 함께 정의화 원장은 다음해인 1984년 11월 12일 고 김원묵 박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제1회 봉생추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신경외과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고 김원묵 박사를 추모하

고 그 유업을 기리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는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개최되어왔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대만 등 세계 각국 신경외과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저명 석학들이 연사로 참가하는 등 신경외과학의 발전에 세계적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는 송두호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이영우 부산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이화동 대한신경외과 부산지회장, 김신우 대한신경외과 부산지회 전회장 등 행사 준비위원들의 수고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날 학술대회의 국내연사로는 이주걸 대한신경외과학회 명예회장의 좌장 하에 한양의대 신경외과 정환영 교수, 중앙의대 신경외과 임광세 교수, 부산인제대학 신경외과 심재홍 교수가 참가하였으며, 외국연사로는 미국 UCSF대학 신경외과 D. Henry Bartkowski 교수, 일본 CHIBA대학 신경외과 D. Akira Yamaura 교수가 참가함으로써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봉생 추모 국제학술대회는 지방 개인병원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학술대회에 전혀 손색없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국내외 의학계의 감탄어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 고 김원묵 박사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봉생추모 국제학술대회

이와 함께 봉생의 탄생과 성장과정, 10개년 장기계 발 계획 등을 수록한 고 김원묵 박사의 10주기 추모집 <봉생 35년사>를 발간했다. 정의화 원장은 발간사에서 “고 김원묵 박사의 10주기에 즈음하여 고인의 평소 생활철학이었던 봉생이념을 되새기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책을 엮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봉생인들은 고인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축지를 밝혔다.

또한 정의화 원장은 그해에 한국의사로서는 드물게 미국 신경외과학회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는 등 그간의 연구와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었다. 당시로서는 난이도가 높아 시술을 기피했던, 안면경련증 삼차 신경통 등 뇌질환 관련수술을 성공으로 이끈 소문을 들은 환자들은 멀리 서울에서까지 정의화 원장의 진료실을 찾기도 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 발표대회에 연구 논문과 수술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세계적인 의사로서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다. 까

다로운 뇌수술을 16시간 동안 선 채로 현미경을 보며 집도하기도 하던 정의화 원장은 뇌졸중(중풍) 수술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공인받게 되었고, 특히 미세혈관 감압술을 이용한 안면 질환 수술에 있어서는 국내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초일류 봉생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정의화 원장은 1984년 2월 1,340평의 혁신관병동 신축 기공에 착공하고, 5월에는 치과 개설 등 진료과목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와 함께 12월에는 우수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의 제1차 공채시험을 실시하는 등 규모와 내용 면에서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갔다.

4. 한 걸음 또 한 걸음, 종합병원으로 승격

봉생병원은 이제 개인병원이라고 보기에도 믿기지



▲ 1985년 종합병원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않을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다.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였을 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들의 훌륭한 진료성적, 그리고 꾸준한 대민 사회봉사활동으로 봉생병원은 ‘진정한 인술을 펼치는 병원’이라는 주위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보다 높은 이상을 꿈꾸며, 초일류 봉생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심혈을 기울여왔던 정의화 원장은 그 정도의 성취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었다. 처음 봉생병원장을 맡을 때에도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던 그였기에, 이러한 성과는 목표달성이 아니라 그의 꿈을 펼치기 위한 한 단계였고, 다음 단계를 향한 새로운 추진력의 의미였던 것이다.

정의화 원장은 병원을 한낮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뜻, 지역주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모름지기 병원이란 사회를 위한 공익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 건립이 우선이었다.

이에 따라 정의화 원장은 1985년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새로운 진료과를 개설하고, 각 시설 확충 및 병상 증가 등 병원 규모 확장 작업에 들어갔다.

1984년부터 시작한 신관건물(1,340평) 신축공사와 구관건물(지상 5층)의 증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구관 3-4층은 40병상의 정형외과 병동으로, 신관 3층은 31병상의 소아과, 산부인과, 신생아 병동으로, 그리고 내과, 외과는 각 40병상으로, 신관 1층에는 치과를 재배치하여 봉생병원은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로서 300병상, 12개 진료과(간호사 53명, 간호보조사 45명)를 갖춘 봉생병원은 1985년 3월 16일 드디어 종합병원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때가 개원 36주년. 봉생병원은 지역사회의 핵심적 의료기관으로서 재부상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그해 봉생병원은 종합병원 승격과 함께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아 매년 수명의 인턴을 배출시켜왔으며, 이후 계속되는 병원 발전에 따라 1996년 보건

사회복지부로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음으로서 지역사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본격적인 교육기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종합병원 승격 이후, 병원 규모의 확장과 진료범위 및 행정 관리 업무의 세분화에 따라 조직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졌다.

이에 부산지역에서는 최초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처장 제도를 도입하여 박경흠 현 행정원장을 영입, 체계적으로 행정조직을 이끌게 했다.

입·퇴원계, 수납, 접수계로 구성되었던 원무과는 이한수 과장의 부임과 함께 치료비 계산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진료비 지불 방법 및 청구 업무, 의료보험 전반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부터 원무과에서는 본격적인 의무기록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는 계속 늘어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더욱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실을 독립부서로 개편하고 이미화 의무기록사를 초대 의무기록실장으로 발령하였다.

행정부서 역시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모든 행정업무들을 총괄해 오던 서무과를 관리과, 서무과로 분할하여 각각 독립부서로 편성하였다. 관리과에서는 구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서무과에서는 인사, 노무, 병원내외 행사주관 등 병원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하였다. 1986년부터는 교환, 운전, 안내 등의 전문 기능별 업무부서가 서무과 소속으로 이전되었다.



▲ 1987년에 현 구관 2층에 인공신장실을 개설했다

그와 함께 병원 내의 각 시설물들의 보수 및 제작,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온 기관실은 신관 건물 완공 직후 영선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기계실, 전기실, 환경관리실을 두었으며, 다음해에는 목공실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연구와 교육을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학도서실을 개설하였으며, 신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영양과에서는 박상해 초대 영양과장이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급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또한 그해 홍환호, 김종철 과장의 부임으로 신경정신과가 개설되었으며, 현 구관 5층의 위치에 32병상의 폐쇄병동을 운영하면서 신경정신과는 부산 최고의 실력과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6월 병원 옆 부지에 연면적 400.6m²,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별관이 완공되자, 현 방사선과 위치에 있던 임상병리과를 별관으로 이전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1987년 3월 신장내과를 신설, 현 동래봉생병원 부원장인 구대영 초대 과장이 부임하였고, 현 구관 2층 위치에 인공신장실을 개설하였다.

인공신장실의 혈액투석은 김혜정 초대 책임간호사, 박봉희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와 Doray 기계 35대 설치로 첫 출발, 다음해 기계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의료기기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와 함께 신

경외과, 정형외과의 진료 및 수술시 필요한 「C-arm」 X-ray기와 「Arthroscope」관절경을 도입하는 등 최신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최선의 진료를 베풀기 위해 노력하였다.

3월 5일에는 뇌암, 동맥류, 안면 경련 등 미세현미경 수술을 요하는 난해한 질환들에 대한 수술팀들의 통계를 담은 신경외과 연보가 발간되었고, 3월 31일에는 병원 내 소식과 환자들을 위한 의학상식 등을 담은 봉생원보의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석신덕 회장은 봉생원보 창간사에서 직원들에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신경이 날카로운 환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담과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기보다도, 언제나 환자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왔기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이루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이 오듯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다 함께 굳게 뭉쳐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나가자”

정의화 원장은 신경외과의 더욱 전문화된 진료를 위하여 1988년 5월 뇌질환의 집중 연구와 치료를 위한 뇌졸중 연구센터(Stroke Center)를 설립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3대 사인 중 하나인 뇌졸중의 체계적인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설립된 이 센터는 신경외과 정의화 원장, 양재영 과장, 정신과 김종철 과장, 물리치료실 윤철환 실장으로 팀을 구성, 전문적인 진단과 평가에 의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편 매월 2회씩 뇌졸중 교실을 열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강연과 토론을 실시하였다.

전문 진료에 따른 환자의 증가로 12월에는 신관 3층에 제3뇌졸중 중환자실을 개설하여 11병상을 증설하고, 최신 의료장비인 인공자동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자동체온조절장치, 수액자동주입조절기, Carl Zeiss 수술현미경, 초음파 뇌종양 수술기 및 전신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첨단 의료기기 설치, 신경외과 전문간호사팀을 도입하는 등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봉생병원은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봉생병원이 짧은 시간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정의화



▲ 1988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원장의 미래를 내다본 체계적인 안목과 한번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리더쉽에 있었다.

5.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

봉생이념의 실천과 환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기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의화 원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원 연수 및 직원 복지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우선 정의화 원장은 고 김원묵 박사의 유지를 기리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1986년 7월 봉생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직원 자녀의 진학과 학업 매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상, 하반기마다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1987년 4월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산 다람쥐 캠프에서 야간 산악 등반 극기훈련, 친절 교육 등을 내용으로 1박 2일간의 직원 연수를, 그해 7월 중견간부 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매년 전체 직원 연수와 간부직원 연수를 통하여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향상, 직원간 단결심과 애원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그해 7, 8월에는 봉생 직원들의 여가 활용과 자기 발전을 위하여 축구부, 산악회, 사진동호회, 봉생꽃꽃 이회 등 병원 내 각종 동아리들을 구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에서 1988년도부터 해마다 장기근속자 동남아 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90년도부터는 모범직원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도 보내고 있다.

1988년 6월 봉생병원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방사선과 김성우 방사선사를 초대 위원장으로 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일시 해산했다가 1994년 재결성된 노동조합은 병원과 직원들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공존공영의 협력 정신을 근간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정의화 원장은 이밖에도 직원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하기 휴가를 위하여 1989년 8월 양산군 임랑해수욕장에 봉생병원 하기 휴양소를 설치하여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처럼 봉생인들을 모두 한가족처럼 여기는 화합된 병원 분위기로 인하여 직원들은 물론, 봉생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내 집 같은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한편, 혼란스러웠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대학가 주변이 항상 매캐한 최루탄 연기로 가득 차 있었던 1989년 4월 12일, 부산교대생 이경현양이 시위도중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상태로 봉생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20여 일의 입원기간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과 기자들이 병원 입구와 원내를 가득 채워 병원 업무 진행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정의화 원장은 사회적 혼란기에 희생당한 이경현양을 위로, 격려하는 뜻에서 입원 치료비 9백 75만원을 전액 감면해주기도 하였다.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오던 정의화 원장은 그해 6월 불우근로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진여상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들 가운데 44명의 근로학생들에게 무료 진료를 베푸는 등 사회봉사의 폭을 더 넓혀나갔다.



▲ 1989년 5월 봉생의 주춧돌을 놓은 영원한 봉생인 석신덕 회장이 타계했다

의료계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남다른 정열을 쏟아왔던 정의화 원장은 삶의 철학인 ‘봉생’의 참뜻을 더욱 적극적인 사회봉사로서 널리 펼치고자, 1989년 5월 인간성 회복과 불우한 소외계층을 돋고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생문화회를 창립하였다. 봉생문화회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문학, 전시·공연, 언론·출판 등 3개 부문에 각 600만원의 상금과 봉생문화상을 시상하고, 월간 〈현장〉 잡지 재발행, 각종 학술·공연 단체 지원 및 초청공연, 시민무료교양강좌,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등 의 다양한 문화, 복지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6. 석신덕 회장 태계

부산교대 이경현양의 사태로 병원이 온통 대자보

와 드높은 구호소리 속에서 학생들의 농성장으로 변하여 환자들의 감소는 물론, 직원들 모두 심신이 잔뜩 지쳐있었던 89년 5월 2일, 평소 오랜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석신덕 회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타계하였다.

봉생의 설립자인 부군 고 김원묵 박사의 불의의 타계 이후 휘청거리던 병원을 근검절약과 굳은 의지로 회생시킴으로서 오늘의 봉생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되었던 석신덕 여사.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비를 들여 육교를 건립하고, 해마다 지역노인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며, 장학사업, 벽지아동초청 수학여행 등 사회복지사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는 또한 팔각회, 구정자문위원, 적십자봉사단, 올림픽 추진위원, 평통자문위원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평생을 동분서주하며



▲ 1990년 6월 2일 동래지역의 중심적인 의료센터로 동래봉생병원이 우뚝섰다

사회봉사에 헌신했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때로는 호랑이 같고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 봉생병원을 다시 일으켰던 그의 영결식에는 전 직원들의 한결같은 애도 속에 연일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으며 모두가 그의 고귀한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았다.

제5절 1990년대

1. 동래봉생병원 개원

1980년대가 봉생이라는 꽃봉오리가 활짝 만개한 시대라고 한다면 1990년대는 봉생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가는 결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어려웠던 시절 힘겹게 짜을 티워 정직, 성실, 박애의 ‘봉생이념’ 실천으로 올곧게 뿌리내리며 성장해 왔던 지난 40여년의 역사는 드디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래봉생병원 개원, 뇌척추연구소 개소, 정의화 원장의 국회의원 당선, 봉생사회복지회 설립, 신장 이식수술 200례 달성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게 된다.

봉생병원은 개원 41주년을 맞던 1990년 6월 2일 동래 안락동에 또 하나의 ‘봉생’ 인 동래봉생병원을 개원함으로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따듯하고 성실한 인술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정의화 원장의 원대한 포부를 담은 청사진이 하나씩 둘씩 현실화되어 가는 순간이었다.

대지 800평, 지하 3층, 지상 7층, 연건평 2,200평으로 250병상에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수술실, 전신컴퓨터촬영실, 초음파실, 위내시경실, 신생아실, 분만실, 전자재활치료실, 임상병리검사실, 뇌파실, 심전도실 등의 주요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인 동래봉생병원은 89년 2월에 착공, 1년 4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주요 개설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이었다. 특히 33병상의 중환자

실은 중소규모의 병원으로서는 최대 병상수일 뿐 아니라 시설 및 인력 면에서 전인가료가 가능한 전문시스템으로 갖추어졌다.

봉생병원과 함께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 동래봉생병원의 개원식에서 정의화 의료원장은 다음과 같이 개원 취지를 밝혔다.

“봉생은 찾아오는 환자만을 돌보며 병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차원적인 곳이 아니다. 봉생의 존재 이유는 개개인의 질병치유에만 있지 않으며, 보다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위함에 있다. 봉생은 이 나라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을 개선하고 옳어가는 인성을 바로 잡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진정한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남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남들이 금전만능주의에 젖어들 때 우리는 봉생을 키워준 부산, 경남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오늘 우리 봉생은 동래 안락동 이곳에 제 2의 봉생병원을 세웠다. 동래봉생병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봉생이 있게 해준 지역주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될 것이다. 오늘 동래봉생병원의 개원을 맞아 봉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친절, 성실,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항상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

이날 개원식에서 정의화 원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성금 1



▲ 동래봉생병원 개원에 앞서 열린 직원단합대회

천만원을 김상훈 시각장애인복지협의회 후원회장에게 전달함으로서 박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또한 봉생병원의 40년 발전사를 요약, 기록한 〈봉생 40년〉 소책자 1만부를 발간하여 개원식에 참가한 축하객들과 전국 병원에 배포하였다.

개원식이 끝난 후 동래봉생병원에서는 인근 지역 노인분들 500여명을 모시고 개원기념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부산대 원율악회와 동아대 '짓' 동아리의 사물놀이, 판소리, 밀양북춤, 살풀이 등 다채로운 공연과 봉생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연극과 크로마하프 연주, 가요 폐들리 등의 흥겨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경로위안잔치에 참석한 노인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흥겨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1990년도에는 봉생 개원 41주년 기념행사가 무척 풍성하게 개최되어 봉생인들의 단결과 화합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9월 8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기념식에는 봉생병원과 동래봉생병원 양 병원의 전 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기념식을 마친 후 열린 창립기념 탁구대회에서는 응원단의 열띤 환호와 격려 속에서

단식, 남녀복식, 혼합복식의 양 병원 선수 팀들의 멋진 경기가 이어졌다. 9월 9일에는 봉생병원 및 동래봉생병원 합동으로 130여명의 봉생가족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금정산성에서 창립기념 등반대회를 개최했으며, 10월 9일에는 수영여자 중학교 운동장에서 봉생인 및 가족들 300여명이 참석해 체육대회를 열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그해 4월에는 동래봉생의 개원을 앞두고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재삼 가다듬고, 봉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직원연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동래봉생병원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봉생가족화 교육훈련에서는 2차례 걸쳐 양산 다람쥐 캠프장에서 △주인정신과 자기계발, △Team Work 훈련, △봉생이념과 원훈 분임토의 등의 내용으로 13일부터 2박 3일간 봉생가족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어 23일부터 4일간 부산일보사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봉생인 한마음 정신교육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언론인이 보는 의료인의 자세, △삶의 가치, 사람의 가치 등을 주제로 강연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21일 한국콘도 회의실에서 열린 봉생재도약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정의화 원장을 비롯, 간부급 직원 80여명은 〈봉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봉생인들의 각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봉생이념에 입각해 더욱 성심 성의껏 의료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였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을 인식하여 환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항상 봉생이념을 유념한다.
3. 우리는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더욱더 힘쓴다.
4.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5. 우리는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하여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해 6월 봉생병원은 간호과를 간호부로 승격하는 등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다음해 2월 레이저 물리치료기 등 첨단 재활장비와 전자치료실, 운동치료



▲ 미세현미경 뇌혈관 감압술의 안면경련증 수술

실, 수치료실, 작업치료실으로 전문 구성된 재활의학과를 신설했다. 그와 함께 1990년 10월 동래봉생병원 별관 신축, 정인영 과장의 부임으로 동래봉생병원 치주과 신설, 6월 동래봉생병원의 응급의료병원 지정 등 지속적인 규모 확대로 봉생은 성장의 가지를 뻗어나갔다.

2. 세계적인 수준의 의술로 봉생의 이름 드높여

봉생의 기본 토대가 신경외과였기에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후에도 ‘봉생’ 하면 모든 이들이 신경외과를 떠올리곤 했다. 그만큼 타 병원의 추종을 불허하는 높은 수준을 자랑했던 봉생병원, 이에 화답하듯 봉생의 신경외과팀은 1992년 3월 국내 최초로 안면경련증 수술 120회 돌파라는 봉생 의술의 금자탑을 쌓았다.

정의화 원장을 팀장으로 한 신경외과 수술팀은 뇌혈관 기형 및 경화 등으로 인한 3차 신경통, 안면편마비, 편측 안면경련증 등의 난치 질환을 미세혈관감압술을 이용해 이 같은 의료계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수술현미경을 이용한 미세 뇌혈관 감압술의 안면경련증 수술기법은 당시만 해도 난이도와 위험부담이 높아 수술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정의화 원장은 “의료계의 누군가는 이 환자들을 위해 인술을 펼쳐야 한다”며, 어렵지만 봉생만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혼신을 다해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 일본 등의 75-85%보다 훨씬 높은 90% 완치, 5% 증세 호전율 등 96%라는 세계 최고의 성공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정의화 원장은 1992년말 신경외과 영역에서 난치술로 알려져 있는 뇌동맥류 수술 300례 돌파의 큰 획을 그음으로서, 봉생의료진의 수준이 구미 선진국에 손색이 없는 높은 수준임을 증명하였다.

같은 뇌혈관계 질환이지만 뇌졸중과는 병태생리학적 측면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는 뇌동맥류 질환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으로서 고도의 수술기법이 요구되어지는 질환이어서 인력과 의료시설이 뛰어난 일부 병원에서

조차 시술을 꺼려할 정도로 어려운 난치병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원장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봉생으로 돌아와 첫 수술을 시작했던 1982년도부터 1992년까지의 뇌동맥류 수술현황은 모두 3백 16례로써 부산·경남 지역은 물론 서울, 제주도에서까지 환자가 쇄도하였다. 수술부위별로 살펴보면 내경동맥부위 79건, 전교통동맥과 전대뇌동맥부위 109건, 중대뇌동맥류 97건, 후뇌혈관부위 16건, 다발성동맥류 15건으로 집계되어진다. 이중 학계에서 희귀한 사례로 알려진 후뇌에 발생한 동맥류 수술은 16건 모두 100% 성공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뇌수술 분야에서는 의료계의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던 봉생병원 신경외과팀은 다음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인 거대 동맥류에 의한 안면경련증 수술 2례를 모두 완전 성공함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후두부 위치의 거대동맥류 결찰수술의 성공은 학계에 보고된 사례조차 없을 정도로 어렵고 위험한 대수술이어서, 피땀어린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세계적 수준의 봉생 의술을 증명한 것이다.

정의화 원장은 이처럼 나날이 발전해 가는 봉생병원의 의료수준과 실력, 그리고 커져 가는 규모에 걸



▲ 신장학의 최고권위자 이시래 명예원장 취임 축하연

맞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봉생의 명성은 계속 높아만 갔다.

1992년 4월 의료계에서 신장질환과 고혈압 부문의 최고 권위자인 이시래 박사(전 고신의료원 부속 복음병원장)를 봉생병원 명예원장으로 초빙하였으며,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기 8대로 증설하여 신장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1973년 뉴욕 브롱스 베테란스 병원에서 2년간 신장학을, 1979년 뉴욕 코넬의대에서 신장이식학 연구를 하고 돌아온 이시래 박사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90년 세계복막투석학회에서 <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장이식이 혈압 및 신장기능과 재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제로 의학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여러 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심도 깊은 연구와 실적의 발표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시래 박사는 봉생병원 명예원장 취임사를 통해 “이처럼 훌륭하게 일구어놓은 봉생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자를 통해서 배우고, 환자를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고 참인술의 의지를 밝혔다.

같은 해 6월 동래봉생병원에도 산부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정재훈 박사(전 고신의료원 부속 복음병원장)가 의무원장으로 취임함으로서 동

래봉생병원의 실력을 한층 더 드높였다. <산과학>과 <부인과학>의 저서 편찬, 50여편의 주요 논문 발표 등 왕성한 연구활동으로 산부인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정재훈 박사는 의료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후학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왔다. 동래봉생병원 의무원장 취임식에서 “봉생병원이 이토록 알차고 내실있는 병원이라는 사실에 감탄했으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을 꿈꾸고 있는 이 시기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힌 정재훈 박사는 “자궁암 클리닉을 신설하여 더욱 전문적인 산부인과로 성장시키고,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하는 사랑 받고 신뢰받는 동래봉생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동래봉생병원에서는 11월 제 2별관 완공과 동시에 2층에 인공신장실을 개설, 본격 가동에 들어감으로서 봉생병원에 이어 신장환자들의 치료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최신 인공신장기(일본 Toray) 10대를 갖춘 인공신장실은 급만성 신장염으로 인한 신부전증 환자, 급성 약물중독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요독성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받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스템과 첨단 시설장비를 갖추었다.

1992년 10월 14일 봉생은 국내 최초로 뇌척추질환의 연구 및 전문인 양성, 일반인에 대한 홍보 및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봉생 뇌척추연구소(소장 정의화)를 창립함으로서 봉생이 국내 의학발전의 선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이러한 연구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에 못 미침을 안타까워하던 정의화 원장은 국가의 지원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봉생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는 선천적 질환자와 뇌척추 손상환자들의 재활을 돋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밝히며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뇌척추연구소를 마침내 창립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송정제 부산일보 사장, 이창희 부산은행장 등 각계 인사 14명의 고문과 이영우 명예 소장(부산의대 교



▲ 뇌척추질환의 홍보 및 예방사업을 위해 설립된 봉생뇌척추연구소

수), 이영구 백병원 정형외과 부장 등 30여명의 전문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봉생 뇌척추연구소는 소화 영아재활원 아동 무료 시술, 요통, 뇌졸중 등을 주제로 한 시민무료강연회 개최, 뇌질환 관련 국제 규모 학술회 개최, 질병별 예방과 치료에 관한 소책자 발행·무료 배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봉생 뇌척추연구소를 창립하자마자 추진한 소화 영아재활원 아동 무료 시술은 봉생이 꽃피운 참인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선천성 심장질환, 간질, 수두증 등의 질환으로 부모들조차 외면해버린 소화 영아 재활원의 불구아동 11명을 봉생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하고 지속적인 치료로서 새 삶을 찾게 해준 이 사업에 대해 정의화 원장은 “국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이 아동들을 돌보게 될 시점까지 힘닿는 한 무료시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봉생이념의 실천으로 복지국가 건립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봉생 뇌척추연구소는 1993년 3월 이시형 박사(고려병원장)의 ‘청소년의 정신건강’, 6월 김영수 연세의대 교수(영동세브란스병원 척추센터 소장)의 ‘요통과 척추디스크’, 8월 문재호 연세의대 교수의 ‘요통과 경통, 척추디스크의 가정요법’ 등의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봉생병원은 급변하는 의료정책의 다변화에 맞추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과 전문화된 조직관리를 위해 1992년 11월 기획실을 개설하기에 이른다. 최형욱 초대 과장의 관리하에 직무분석, 노무관리, 예결산 분석, 병원内外 각 행사 개최, 대외 홍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동래봉생병원은 1992년 3월 신경과, 재활의학과, 4월 해부병리과 등의 진료과를 각각 개설하여 대형 종합병원에 걸맞는 전문진료를 활성화하였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제 업무를 위하여 약국에 자동정제포장기를 도입했다.

한편, 1986년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봉생병원에 이어, 1992년부터 인턴 수련을 시작해온 동래봉

생병원은 1993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 우선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3개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차세대 봉생을 짊어지고 나갈 봉생이념에 투철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명문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큰 의의를 지닌다.

3. 부산 문화 토양을 기름지게 일군 봉생문화회

진정한 의술은 육체적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복지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력까지 아우러야 한다는 정의화 원장의 기본 신념은 봉생병원과 동래봉생의 발전과 더불어 봉생문화회의 활발한 문화, 복지 활동으로 펼쳐졌다.

1989년 창립된 봉생문화회는 제1회 문학부문, 제2회 공연·전시부문, 제3회 언론·출판부문에 시상해 왔던 문화상을 92년 4회부터 3개 부문을 동시에 시상하기로 확대하여 권위있는 유수 문화상으로 부상하였으며, 부산 경남지역의 문화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와 함께 1991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앞



▲ 민간이 주는 부산 최고의 문화상인 봉생문화상 시상식 축하공연

당기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예술인 자녀 8명에게 장학금을 각 30만원씩 전달했다. 그해 6월에는 월간 현장 창간 3주년 기념 애독자 교양강좌로 시인 신달자씨의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회’, 11월에는 소설가 박완서씨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를 개최하였다. 또, 1993년 5월에는 소설가 정동주씨의 ‘나의 시베리아 소설기행’, 9월에는 영화 서편제의 주연인 국악인 김명곤씨의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11월에는 제갈삼 부산대 음악과 교수의 ‘명곡의 뒤안길’ 등의 저명 문화예술인 초청 시민교양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부산의 어느 문화계 인사보다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척박한 부산문화의 토양을 기름지게 일구어나간 정의화 봉생문화회 회장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풍성한 문화사업의 추진으로 나아갔다.

제2회 봉생문화상을 수상한 하야로비무용단은 이 같은 정의화 원장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1991년 4월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개최하여 이날 수익금 모두를 어린이가장 돋기 자선 기금으로 기부하였다.

또한 부산 문화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도 함께 개최한 제 3회 문화상 시상식에서는 축하공연으로 길이 보전해야 할 ‘동래학춤’의 전수자들을 초청하여 문화진흥의 뜻을 널리 펼친 정의화 원장은 12월 신진 문화예술인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발레리노 이원국 후원의 밤’을 개최하여 모금한 1천 8백 6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 1993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진료과장 연수

다음해 5월에는 ‘한국남성합창단’ 부산공연초청, 10월 영호남 화합을 위한 ‘조삼진, 김명진 피아노 듀오’의 부산·광주 연주회, 광주 금호재단과 함께 마련한 ‘남도국악’ 부산초청공연, 1993년 11월 광주 한국춤 부산초청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1988년 창간하여 통권 53호를 발간한 봉생문화회의 월간 <현장>을 93년 1월호부터 <현장저널>로 재창간 하여 기존 4·6판을 4·6배판으로 판형을 키우고 내용도 시사, 여성면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부산지역의 명실상부한 월간 종합 잡지로 발돋움시켰다.

정의화 원장은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성숙한 시민社会의 정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93년에는 영호남 민간인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영호남 민간인 협의회는 1992년 부산·광주의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부각된 지역갈등을 해소코자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 정의화 원장의 회장 취임 이후 △영호남 학술 교류대회, △청소년 교환방문 및 역사기행, △문화공연 교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양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4.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으로 새출발

“봉생가족 여러분, 봉생은 역사적 사명을 떤 일터라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진취적인 봉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봉생은 의료봉사는 물론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일터로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생의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만개하고 봉생이 추진하는 사회복지 문화사업의 결실들이 영글어져 우리사회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봉생이념의 완성 단계라고 한다면, 현재 봉생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봉생 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봉생의 미래 청사진 역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봉생이념 실천으로 역사적

사명의 실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리라 믿습니다”

1993년 신년사에서 봉생이념의 실천을 다시금 강조한 정의화 원장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봉생가족들과 함께 봉생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친절’의 생활화를 중요시 여긴 정의화 원장은 동래봉생병원의 레지던트 수련 시작을 기념하고 진료과장들의 인화단결과 새출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3월 해운대 하이앳트 호텔에서 제1차 진료과장 연수를 실시하고, 9월에는 93년도 봉생가족화 연수를 열어 ‘환자만족도’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친절봉사의 실천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환자 응대의 올바른 방법, 의료인의 에티켓, 사례별 친절응대법, 직장예절 등을 수록한 <친절한 병원 신뢰받는 병원> 친절책자를 발간하여 전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친절배가 운동의 일환으로 11월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봉생 부서별 친절경연대회에서는 친절사례 단막극, 친절 아이디어 등을 내용으로 진행해 친절한 병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봉생은 질병에 의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운 환자가 있다면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더욱 전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8월 신설된 사회사업과에서는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 및 환자, 가족 상담, 봉생장애인 후원회 모금 사업 등을 펼침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다운 박애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월 윤철수 과장의 부임으로 비뇨기과를, 9월 박철호 과장의 부임과 함께 흉부외과를, 신장내과 김중경 과장의 책임아래 복막투석실을 개설한 봉생병원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해왔던 경리과 급여관리 시스템을 전면 전산화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동래봉생병원 또한 그해 5월 별관 건물을 지상 6층으로 증축하여 276병상으로 규모를 더욱 확장하여 환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다음해 3월 신경정신과를 개설하기에 이른다.

의료시설을 더욱 현대화하고 교육병원으로 발전시

키며, 의료공익사업을 확대하여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키고자하는 정의화 원장의 포부는 창립 44주년을 맞던 그해 9월 1일 개인병원이었던 봉생병원을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으로 전환하는 결단과 함께 그 끝을 발한다.

만약 정의화 원장이 봉생병원을 일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회를 위한 공익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병원의 존재이유를 역설해온 정의화 원장은 봉생병원 역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봉생을 찾는 환자와 지역주민들의 것이라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로서 봉생병원은 한결같이 봉사의 철학을 실천하는 정의화 이사장을 필두로 새로운 체계를 설립하고, 또다시 멀고도 험한 인술의 항해를 계속하게 된다.

의료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뿌듯한 자부심도 잠시, 그해 7월 동래봉생병원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병원의 발전된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를 되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두 달에 걸친 파업사태를 가져오기도 했다. 파업이 마무리된 11월 정의화 원장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 1994년 신관증축과 함께 42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봉생병원

“이제 투쟁과 분열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500여 봉생가족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봉생을 지키며 발전시켜 나가야할 시기입니다. 봉생이 봉생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우뚝 서는 그 순간까지 힘겹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일수록 봉생이념을 실천 의지의 거울로 삼아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봉생인이 됩시다”

파업으로 인한 징계문제 등의 제재는 전혀 없었다. 한번 봉생인은 영원한 봉생인이라는 정의화 원장의 기본 신념은 어떠한 고난과 좌절, 실망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5. 20병상 증축 개원으로 제 3의 도약기 펼쳐

1990년대 의료계는 이른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의료개방을 목전에 두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가로 중소병원들은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 재벌들의 의료계 진출로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되어지면서 경쟁력 없는 중소병원들의 붕괴로 이어지는 양상이었다.

봉생은 이러한 도전의 격랑에 끗끗이 맞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센터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정체되고 말 것인가의 기로에서 있었다. 물론 반 백년 가까이 이어온 탄탄한 토대와 정의화 원장이라는 튼튼하고 믿음직한 베풀목으로 인하여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그다지 힘겹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의료계의 상황은 너무도 열악하였다.

멀리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발전의 계단을 밟아오던 정의화 원장은 인본주의와 봉생이념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 이 나라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성실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봉생의 이념을 전하고 인본주의를 실천하며 그토록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노력해왔는데, 자칫하면 모두 헛된 노력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병원이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일종의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충체적인 위기의식이 정의화 원장을 괴롭혔던 것이다. 마침내 정의화 원장은 또 한번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

‘경쟁력을 키우자. 이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더욱 큰 병원으로 발전하여, 봉생이 의료계 뿐 아니라 이 나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자’

1994년 7월 봉생병원은 420병상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증축되기에 이른다.

1949년 조그마한 의원에서 출발한 봉생이 1986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것이 제 1의 도약이라면, 1990년 동래봉생병원의 개원은 제 2의 도약, 1994년 봉생병원의 증축은 제 3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화 원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지로 제 3의 도약에 성공한 봉생은 대형병원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지금까지 음양으로 펼쳐온 문화, 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퍼진 봉생은 부산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 1995년 우리병원 최초로 신장이식 수술이 시작되었다

1,300여 평이 새로 증축됨으로서 연전평 3,000여 평, 420병상으로 증설된 봉생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로서 지하 1·2층은 보일러실, 발전실 등 영선시설 및 중앙공급실, 1층은 진료과 및 MRI, X-레이실 등 의료지원실, 3층은 신생아실, 분만실을 비롯한 산부인과, 소아과 병동, 4층은 내과, 신경과 병동, 5층은 인공신장실, 6층은 정형외과 병동, 7층은 신경외과 병동, 8층은 치과 진료실, 정신과 병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1986년 개설 이후 계속 성장을 거듭해온 신경정신과는 신관 증축에 따라 폐쇄병동 44병상, 개방병동 14병상을 증설 운영하게 되면서, 연간 2만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내원하는 등 부산·경남지역 종합병원으로서는 최대의 정신과 병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 3의 도약과 함께 봉생은 9월 신경외과, 신경내과, 신경정신과, 신경방사선과, 신경해부병리과를 신경정신의학부(부장 제영묘)로, 치과를 치과부(부장 우국명)으로 승격하고 시설 및 병상을 대폭 증설하는 등 더욱 전문화된 진료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3월 의보심사실을 신설하여 윤희령 수간호사를 초대 책임자로 파견한 치료비계산과는 다음해 보험과로 개편하였다.

1995년 3월 정숙금 과장의 부임과 함께 해부병리과 신설, 도서실에 의학전문사서를 충원하여 교육, 연구지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동래봉생 역시 94년 3월 신경정신과 개설, 다음해 1월 통증 클리닉 개설 등으로 그 규모를 늘려갔다.

이와 함께 봉생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봉생의 노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의화원장은 김인환 시인(현 교회복음신문사 사장)의 시에 이상근 작곡가(전 부산대 음악과 교수)의 곡으로, 봉생의 자부심이 넘쳐흐르는 봉생원가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봉생원가는 ‘힘들고 외로운 사람, 병들고 괴로운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봉생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으며, 11월 봉생가족화 연수에서 처음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한편, 그해 8월에는 신장이식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시래 명예원장을 주축으로 한 신장이식팀은 봉생 최초로 신장이식수술이 시작하였고, 41병동 내에 신이식 전문병실을 개설함으로서 인술 봉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신장이식수술은 신장내과 뿐만 아니라 외과, 비뇨기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전체 진료과가 함께 높은 진료수준을 갖추어야 가능하기에 3차 진료기관, 5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서나 시술하는 어려운 수술로, 봉생이 규모의 성장만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병원으로 도약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봉생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의화 원장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은 첨단 의학 발달에 따른 최신 의료기기 도입에 열성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무리를 해서라도 의료기기만큼은 언제나 최신의 성능을 자랑하는 첨단기기로 갖추어야 했다. 물론 이는 생명을 소중히 떠받들고자하는 봉생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봉생병원 증축개원과 함께 그 해 9월 동위원소실을 개소하였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 시카고대학



▲ 1994년 제1회 간호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피셔 교수와 서울 의대 핵의학과 이명철 교수를 초청하여 핵의학계 동향과 SPECT를 주제로 한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최첨단 의료기기인 감마카메라 프리즘 1000XP(미국 파커사), 맘모그라피(콘티넨탈사), 뇌혈관 촬영기, Carl Zeiss Superlux 300 미세현미경수술기 등을 대거 도입하였다.

1995년 5월에는 타 병원보다 2배 이상 업그레이드된 최신 MRI 자기공명영상시스템(Vista 1.0T/미국 파커사)을 설치하고, 6월 MRI 가동 기념 학술회를 개최했다. 스위스 제노바대학 G. 가르시아 박사의 <근골격계 방사선학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에는 김순용 성애병원장(전 병원협회장)을 비롯한 방사선과 전문의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생화학분석기(일본 Toshiba사), 초음파 진단기(미국 Acuson사), 관절경(미국 Smith Nephew 사), 전자내시경(일본 Olympus사) 등의 첨단의료장비를 함께 갖춤으로서 무한경쟁시대에 한발 앞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1995년 11월 대만에서 개최된 제 9차 아시아-호주 신경외과 학회에서 정의화 원장은 10년간 안면경련증으로 미세혈관감압술을 시술한 환자 261명 중

226명의 수술 경과를 분석, 성공률 96.1%의 결과를 정리한 <편측 안면경련의 미세혈관 감압술 후 추적 관찰시의 임상양상>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인 수준의 봉생 실력을 입증함으로써 의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9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봉생병원은 1995년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를, 다음해에는 신경외과, 일반외과로 수련과를 확대하게 됨으로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이로서 봉생은 의학발전의 두 지주인 임상과 연구를 통하여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토탈 케어라는 의료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담당하게 된 것이다.

6. 정의화 원장 초아의 봉사상 수상

'봉생'과 정의화 원장. 이제 모든 이들은 '봉생' 하면 정의화 원장을, 정의화 원장하면 '봉생'을 떠올리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 둘의 이름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서로의 분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의화 원장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봉생이념의 실천으로 봉생병원이 단순한 의료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몸소 찾아가 도움을 주는 넓은 의미의 복지기관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정의화 원장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봉생의 이름 또한 널리 알려져 갔다.

이 같은 헌신적인 활동이 사회에서 인정한 결과가 있었다. 극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로타리클럽이 수여하는 93~94년도 <초아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국제로타리안의 최대의 영예인 초아의 봉사상은 세계적으로 의료 및 문화를 통한 사회봉사에 상당한 공적이 인정되는 로타리안에게 수여되는데, 1995년 6월 22일 국제로타리 3360지구 부산포로타리클럽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이상을 수상한 정의화 원장은 전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로타리클럽에서는 소화영아재활원 아동 1백여 명에 대한 무료진료 등의 의료봉사사업, 봉생문화회



▲ 국제로타리안의 최대 영예인 <초아의 봉사상>을 수상한 정의화 원장

를 통한 시민무료강좌,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 학술 및 예술단체 후원 등 지역문화복지발전 기여, 봉생문화상 제정으로 문화예술진흥 노력, 포함 신사고 운영위원장으로서 건강한 시민공론 형성,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영호남 민간인협의회 회장으로서 학술 교류 활성화 등 정의화 원장의 주요 사회봉사사업을 높이 평가하여 초아의 봉사상 수상자로 결정케 되었다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겸손한 감사의 뜻을 표한 정의화 원장은 이후 봉생사회복지회, 봉생사회포럼 등을 창립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왕성한 사회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해 5월 지역민들을 위한 제1회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큰 기여를 한 정의화 원장은 10월에는 재활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봉생휠체어테니스단을 창단,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봉생가족들 역시 장애인 스스로의 재활의지를 복돋우며,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떨쳐버리고 차별없는 사회를 앞당기자는 그의 뜻에 동참하여 봉생장애인 후원회를 만들고, 1인 1구좌 이상씩 개설하여 매달 정성이 담긴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봉생휠체어테니스 선수단은 창단 1주년만인 1996년 6월 제1회 한국 휠체어 테니스협회장배 전국 대회에서 여자 복식 1위와 남자 C그룹 단식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부산의 장애인 재활 스포츠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7. 국민의 심부름꾼, 제15대 국회의원 정의화 당선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의료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후원자,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활동가.

정의화

어느덧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이러한 수식어가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절 많은 이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더욱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을 펼쳐 주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 속에, 그는 이제 사

회적 공인으로서 한층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헌신적인 봉사의 길을 걸어오던 1995년 8월, 정의화 원장은 뜻밖의 제의를 받게 된다.

박관용 국회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그를 방문해 “현 정치권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신망받고 유능한 젊은 세대를 발굴하고자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 일해보지 않겠는가”라며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사를 타진해온 것이다.

지난 세월 복지사회 실현의 꿈을 가지고 ‘국가가 못하면 나라도 먼저 시작하자’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힘닿는 데로 솔선수범으로 실천해왔었기에, 국가 정책과 정치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커있고 또 그만큼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껴왔던 그였다.

부정부패와 부조리로 진흙탕 같은 현실 정치에 몸을 담기가 선뜻 내키지 않았던 그가 일단 고사의 뜻을 전하자, 박 의원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며 시간을 두고 더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깊은 고민에 들어가게 되고, 심사숙고 끝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



▲ 1996년 4월 11일, 정의화 원장의 당선을 알리는 보도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너무 많았다. 조그마한 물줄기들이 모여 큰 강물을 만드는 법이지만, 그 흐름의 방향을 잡고 물꼬를 터주는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다. 21세기 복지한국을 건설하려면, 현 정치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수용되어야만 한다. 나부터 나서서 부정과 부패에 맞서 정치권을 맑게 하고, 전문 정책을 수립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보다 빨리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때 그의 나이 47세. 왕성한 활동력과,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혜안까지 겸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정의화 원장의 국회의원 출마 결정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20여 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바로 내 아픔처럼 느끼며,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생활의 고통까지 치료해주었던 정의화 원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다.

1996년 4월 11일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를 지향한 그는 전체 선거구 중 최대 격전지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부산 중·동구에서 쟁쟁한 전력의 허삼수, 김정길 후보와 접전을 벌려, 42%의 득표율

로 압승을 거두게 된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캐기보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대결로 민심을 사로잡아 당당히 당선된 정의화.

끊임없이 봉생의 뜻을 펼치며 걸어온 그의 봉사여정을 뒤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다. 한평생 인본주의 실천에 변함이 없던 그를 믿고 맡기겠다는 지역민들의 뜨거운 애정은 그렇게 표현되었다.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전문적이고 신선한 질의를 하여 언론에서 의정활동 1위로 평가받기도 한 정의화 원장은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초선의원들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8. 50성상,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가는 봉생

국회의원 정의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그의 혁신적인 열정을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던 봉생가족들은 더욱 깊어진 애정을 바탕으로 봉생의 발전을 위해 더더욱 노력하기에 이른다.

부산경남지역에서 가장 다양화, 전문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신경정신과의 경우, 1995년 낮병원을 개설하여 정신과 외래 환자 대상의 집단그룹교육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듬해에는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유일한 전문클리닉인 소아청소년정신과 개설 및 언어치료실 개설, 1997년 아동발달 치료실 개설과 정신전문간호사제 도입 등으로 최선의 전문 치료를 행하고 있다.

특히 신경정신과는 높은 진료수준을 인정받아 1996년부터 부산·경남지역의 여러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정신과 실습병원으로 지정되어 의료인 교육의 장으로서 그 위상을 드높였다.

1996년 11월에는 국내 최초의 뇌종합검진센터인 Brain Dock을 개소하여 선진국형 뇌 건강관리시스템을 선보였다. 발병시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뇌출증, 치매, 뇌종양, 중추신경계에 기인한 운동장애 등 뇌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개소된 뇌종합검진센터는 MRI, SPECT 등 다양한 첨단의료 검사기를 이용하여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뇌의



▲ 낙동강에서 펼쳐진 '97 봉생기축화연수' 뗏목 훈련

질병이나 질병 유발조건들을 미리 발견, 예방 치료를 하고 있다.

이같이 질적 성장을 이루하고 지역사회의 중추 의료기관으로 봉생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자, 보다 체계적인 전산화 작업을 위해 1996년 전산실과 의공과를 신설하여 다음해 7월 각 진료과 및 임상병리과, 해부 병리과, 수술실, 병동, 원무과 등 8개 파트에 Lan을 설치하고 중앙처리장치인 대형 컴퓨터 Server로 모든 시스템을 통합한 최신 검진종합 프로그램 가동하여 환자 종합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의료, 행정 전반에 걸친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1997년 3월에는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었고, 간호부에서는 퇴원환자들의 보다 원활한 회복과 지속적인 건강체크를 위해 각 수간호사가 담당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현 건강상태 체크와 상담을 실시하는 퇴원환자 전화방문제를 시작해 환자 서비스의 질을 한 층 더 높였다.

6월에는 구관 4층으로 이전한 인공신장실에 혈액 투석기 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5시간동안 누워서 투석해야하는 환자들의 고통과 지루함을 덜기 위해 TV 8대와 각 베드마다 CD기 설치 등 환자편의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8월 봉생병원과 동래봉생 방사선과에 3D 기능(입체화면 구성), 레이저 방식, 촬영소요시간 1초의 연속 촬영으로 영상의 선명도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 최고급 기종인 Spiral CT(Model : GE Hispeed CT/i)를 부산·경남지역 최초로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신바람나는 일터 만들기 97 봉생가족화 연수’는 공동체 의식 강화, 환자만족 증대를 위한 서비스 강화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원간 일체감 형성을 위해 연수자들이 직접 낙동강에서 옛목 훈련을 받는 등 단체 협동심을 기르는 행동교육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모았으며, 병원연수로는 처음 실시하는 참신한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그해 5월부터 능력중심의 인사고과를 위해 애사심, 친절, 직무능력, 창의력, 근태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직원근무평정을 실시해, 승진·승급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 증대와 직원들의 근무 의욕 상승을 도모하였다.

해가 갈수록 성장의 폭을 넓혀 가는 봉생의 규모에 맞추어 정의화 원장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행해오던 각종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9월 5일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를 설립했다.

“봉생의 의미가 生을 떠받들어 모시는 인본주의 사상을 나타내듯이 봉생병원은 지난 50여년간 의료 활동뿐 아니라 각종 문화사업과 장학, 복지사업을 시행해왔다.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봉생사회복지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복지사업의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의화 원장의 설립취지처럼 봉생사회복지회는 동구 초량3동에 봉생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자립지원, 의료, 결연, 장학 등 복지사업 추진과 경로의원, 노인대학, 주부대학 운영 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인본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설립 1주년을 맞은 1998년 7월에는 기념행사로 중·동구 지역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흥겨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해 노래경연대회, 즉석 춤 솜씨



▲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설립된 봉생사회복지회

뽐내기 등 다양한 여흥과 푸짐하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함으로서 따뜻한 정이 그리웠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봉생사회복지회는 그해 8월 태풍과 장마로 인해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자, 정의화원장의 사비 3천만원과 봉생병원 한나라당 중동구 지구당원들이 모은 1천만원 등 4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5톤 트럭 4대분에 나누어 싣고 수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조금이나마 수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정의화 원장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1998년에는 봉생의 조직정비와 적극적인 병원운영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로서 정의화 이사장은 의료원장으로, 김낸시 기획실장을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이시래 명예원장은 봉생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이시래 병원장은 1998년도 시무식에서 “IMF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한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정의화 의료원장의 뜻을 받아, 미흡하지만 열심히 일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히고 전직원 모두가 협동심과 함께 개개인의 능력개발로 병원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후 봉생과 동래봉생은 환자우선주의 실천, 지역 주민에의 복지활동으로 ‘내집처럼 편안하고 가족처럼 따뜻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였

다.

동래봉생병원에서는 3월 전반적인 태아 기형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3차원 초음파 진단 검사기를 설치하여 본격 가동 중에 있으며, 4월부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얹지로 참아버리는 직장인들과 급하게 병원을 찾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도 오후 4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아래 지역노인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해마다 동래봉생병원 개원기념행사로 개최해온 <경로무료의료봉사>를 더욱 확대 실시해, 개원 9주년인 1998년에는 500여명의 노인분들께 혈압측정, 소변 및 혈당 검사 등을 비롯한 건강검진과 진료상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봉생병원 역시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며 봉사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위해, 9월 개원 49주년 기념 행사로 <제1회 부산지역 노인대학초청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노인대학초청경연대회에는 모두 9개 노인대학이 참가하여 고전무용, 장고, 창을 비롯,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스트레칭 체조까지 선보여 젊은이 못지않은 정열을 과시했다. 지금까지 봉생을 아껴주신 지역노인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으나마 흥겨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힌 정의화 원장은 “지역 어른들께서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항상 봉생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잊지 말고 어려울 때면 언제나 봉생을 찾아오실 것”을 당부했다.

보다 친절한 병원, 보다 관심어린 간호를 목적으로 7월부터 Charming(복장 및 예절), Call(호출 및 시간), Clear(환경미화), Comfortable(환자의 안위), Can(물자절약 및 물품관리) 강화의 5C운동을 펼치고 있는 봉생병원 간호부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각 파트별,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서 환자만족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부에서는 11월 <제5회 독거노인돕기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을 봉생사회복지회에 기탁하고 봉생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독거노인들



▲ 1998년에 설립된 봉생사회포럼

의 외롭고 추운 겨울이 조금이라도 훈훈해지기를 기원했다.

이와 함께 12월 봉생병원과 동래봉생병원 간호부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연말연시를 병원에서 계속 보내야하는 외로운 입원환자들을 위하여 <제4회 환우 위안의 밤> 행사를 준비해, 평소 차분하던 모습과 달리 정열적인 댄싱과 에어로빅 공연, 구성진 노래솜씨로 환우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봉생 이념을 사회화 하고자 설립된 봉생사회복지회와 봉생문화회에서는 IMF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실직으로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해 10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테너 신영조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한 나눔 음악회에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누었으며, 정의화 원장의 후원금 1,000만원과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566만원 모두를 실직자 자녀 중학생 47명, 고등학생 36명에게 등록금으로 전달함으로서 고통분담을 실천하였다.

지역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론화하고자 정의화 원장은 그해 11월 각계 인사들과 주요 전문연구진들로 구성된 봉생사회포럼을 설립했다.

27일 개최된 봉생사회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21세기 부산의 비전과 전략>은 국토개발연구원 김원배 박사의 주제발표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토론으로 부산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소지역 단위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실천하는 지역밀착형 브레인집단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의화 원장의 설립 취지에 따라 봉생사회포럼은 다음해 7월 ‘문화도시 부산창조 네트워크’와 공동주최로 제2차 세미나 <문화도시 가꾸기 전략으로서 도심 문화근린조성>을 개최하는 등 매년 분기별로 지역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지역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1999년 5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봉생문화회에서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문화시민의 죄

표> 부산시민초청강연을 개최해, 유종환 포럼 신사고 공동대표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일 내사랑부산운동추진본부 공동대표의 ‘참여민주주의와 선거문화’,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의 ‘영상도시 부산의 비전과 가능성’ 주제강연으로 부산발전의 심도 깊은 모색을 펼쳤다.

환자의 권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봉생병원은 1999년 1월부터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진료비의 신용카드 지불제를 전면 시행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요법으로 시행해오던 간질 치료를 더욱 전문적인 진단과 함께 본격적인 수술 치료에까지 확장하고자 8월 간질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른다.

특히 봉생병원의 간질센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첨단 프로그램인 브레인 네비게이터 (Brain navigator)를 비롯, 최신기종인 24시간 비디오-뇌파 감시장치(24hr video - EEG moniter), 디지털 뇌파기(Digital EEG), 뇌정위 수술 시스템(Stereotactic system) 등의 최신의료기기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뇌정위 수술 시스템은 입체영상으로서 병灶의 위치를 파악한 후 바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수술집도를 할 수 있는 첨단 기기로서 간질뿐만 아니라 뇌종양, 뇌혈관 기형 등 신경외과 질환의 치료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간질 전문 담당 전문의와 첨단 의료기의 설치로



▲ 최단시일내 '신장이식 100례 돌파'라는 기념비를 세운 신장이식팀

더욱 전문화된 간질센터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간질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무료강좌 및 책자 배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신장이식의 최고 권위자인 이시래 병원장을 주축으로한 신장전문의들과 숙련된 전문간호사, 인공혈액투석기 30대를 설치한 인공신장실 운영 등으로 전국 최고의 만성신부전환자 치료센터로 자리매김한 봉생의 신장이식 클리닉팀은 8월 신장이식 수술 200례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한다.

봉생의술의 높은 수준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신장이식수술은 1995년 3월 첫 수술을 시작으로 매년 2배 이상의 증가율과 해를 거듭할수록 급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봉생병원 관리 신부전환자만 해도 1,000여명에 이르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식수술환자나 투

석환자의 생존율도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최고의 의료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999년은 봉생에 있어 너무도 감회 어린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인술과 박애의 정신으로 흘러온 봉생의 50년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인본주의의 실현으로 축약되어진다.

개원 50주년을 맞아 정의화 원장은 봉생 50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봉생 50년의 의미는 단순히 한 병원의 성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봉생이 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깊은 성찰로서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여야 합니다. 봉생가족과 더불어 봉생이념의 실천에 노력해온



▲ 봉생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교육의 장 봉생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것은 우리가 바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고자 힘이었습니다. 그간 봉생은 지역의 문화,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 왔고 그 성과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50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봉생의 50년 비전은 최고의 의료센터, 의과대학설립, 문화 및 복지센터의 건립을 통해 한층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봉생은 개원 50주년의 의미를 더욱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념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5월에는 도서벽지에 있는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개원 50주년 기념 제10차 도서 벽지아동 초청수학여행을 실시하였다. 특히 시대의 부산물인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을 허물고 영호남이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경남 한산초등학교와 전남 상태초등학교 학생 및 선생님 등 100여명을 초청한 정의화 원장은 어린이들에게 “21세기가 여러분들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9월 4일 50주년 개원 기념식에는 봉생병원, 동래봉생병원, 봉생문화회, 봉생사회복지회 등 모든 봉생인들과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준 각계 내빈 및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인본주의의 한길을 걸어온 봉생의 지난 50년간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새 천년을 맞아 봉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봉사하는 병원상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해마다 열어온 체육대회를 더욱 확대하여 직원 및 직원 가족뿐만 아니라 봉생에 재직했던 퇴직자들, 제약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까지 초청하여 봉생가족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한마당 잔치에 참석한 모든 봉생인들은 명랑운동회와 치어경연대회, 응원 경연, 디스코 경연 및 경품 추첨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9월 8일 개최된 제2회 노인대학 초청 경연대회는 지난해보다 더욱 규모를 넓혀 부산지역 30개 노인대학에서 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의 차원에서 광주 노인대학이 우정출연하여 더욱 행사를 빛내었으며, 참가 노인대학 학생들은 풍물, 고전무용, 댄스, 건강체조, 합창, 장기자랑, 촌극 등을 내용으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노익장을 뽐내기도 하였다.

11월 6일 고 김원묵 박사 25주기를 기념하여 고인의 흥상 건립과 함께 부산지역 의료발전사와 지역민과 함께 해 온 봉생 50년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봉생역사관(봉생사회복지회관 소재)을 개소하였다. 초창기 서양의학의 도입 및 발달과정, 광복 이후 부산지역의 의료발전과정이 담긴 각종 의료기기와 의료변천사 기록, 그리고 봉생병원 개원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사진 및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봉생역사관은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봉생역사관은 이후 더욱 확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의료발달사를 전시할 계획이어서 지역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타 도시에 비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기업이 윤을 사회로 환원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봉생병원 옆 180평 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다. 총 10억여원이 소요된 봉생 쌈지공원은 환자들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반세기동안 한결같이 생명을 소중히 떠받든다는 숭고한 봉생이념 하나로 인술의 빛을 밝혀온 봉생.

의료활동 뿐 아니라 의학연구, 사회봉사, 문화예술진흥사업, 장학사업, 각종 복지활동으로 진정한 박애의 정신을 실천해온 봉생의 궤적은 우선 이같이 가름되어진다.

지나온 50성상의 저력을 바탕으로 다가올 새천년을 힘차게 맞이하고자 하는 봉생은 언제나 생명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인본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봉생이념의 실천에 매진할 것이다.

제1부

고인을 회고하며

■ 고 김원묵 박사와 석신덕 여사의 발자취

평생을 바쳐 펼쳐온 奉生이념

영원한 고향 대막골

1920년대 국내외 정세는 일제의 대륙침략 전쟁이 더욱 확대되면서 한마디로 암울한 시대였다. 1919년의 기미독립만세 사건을 시작으로 1922년에는 천도교가 앞장을 선 자주독립선언문 선포, 1926년의 6·10독립만세 사건, 그리고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 등 우리민족의 독립투쟁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던 시절이기도 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분위기가 암담하던 시절, 그



▲ 광성중학교 5학년 시절

러니까 정확하게 1924년 9월 5일 고 김원묵 박사는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소용리 대막동(속칭 대막골)에서 김은필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양시내로부터 약 12km 정도의 거리를 둔 대막골은 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온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조부 김락서 선생은 당시 대막골에서 <봉생의원>을 개업하고 있던 분으로서 한학에도 능통하셔서 의술과 학문을 겸비하여 명성이 대단하던 분이셨다. 특히 그의 자애로운 인품 때문에 평양에서까지 일부러 봉생의원을 찾는 손님들이 있었고, 인근 부락에 왕진차 나들이를 할 경우에는 잘 생긴 백마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 그렇게 의젓하고 기풍이 서려있었다고 생존한 인척들은 회상하고 있다.

조부 김락서 선생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셨다. 장남이 일찍 세상을 버리자 자연히 차남이 많은 토지를 관리하며 집안 일을 돌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김원묵 박사의 부친인 김은필 선생이시다. 김원묵 아기가 한 살 되던 해,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태계하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물론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 김원묵은 이때부터 할머님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 조모 이씨가 손자 원묵에게 쓴은 정성은 하늘이 다 감동할 정도

였다고 많은 사람들은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파묵하고 인정많기는 선천적인 성품이었다

당시의 부농 가정이라면 으레 그려했듯이 소년 원묵 역시 비록 농촌이긴 해도 논밭에 나가도록 내버려두질 않았다. 그만큼 귀한 자식으로 조부모 그늘에서 커야만했다.

그러나 소년 원묵은 틈나는 대로 어른들의 눈을 속여 머슴의 지게를 대신 지기도 하고 꿀 베는 곳까지 따라 나서는가 하면, 어쩌다 어른들로부터 머슴들이 꾸중이라도 듣게 될 때는 앞장서서 그들을 변호하기에 열심이었다.

그런가하면 하루종일 지나도록 꼭 필요한 말 이외엔 입을 여는 일이 없어 그의 과묵한 성격은 선천적인 성품이었던 것 같다.

소년 원묵은 만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조부님 밑에서 한문을 수학하다가 대막골에서 약 4km 떨어진 <전천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6년 동안을 한번도 결석하는 일 없이 전교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졸업생 가운데 유일하게 평양의 <광성 중학교>에 입학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당시 광성 중학교(현재 서울에 있는 광성 중학교의 전신)는 평양시 경창리에 있었는데 기독교 감리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던 유일한 5년제 인문계 사립 학교였다.

중학교 시절엔 검도부 주장으로 활약

학교 부근에서 하숙생활을 시작한 소년 원묵은 시골출신답지 않게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학교성적은 물론 체육시간에도 가장 특출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당시로서는 입단 규정이 제일 까다롭다는 검도부원이 되어 방과 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하곤 했다. 드디어 검도부 주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 응당 소년 원묵이 차지하고도 남을 영광이었다고 고인의 친구들은 당시를 회상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 원묵은 기회 있을 때마다 문학 서적을 탐독하여 중학생으로선 상상도 못할 교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어학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 영어는 물론 일본어의 경우엔 지방사투리까지 알아들을 정도였다.

중학교 4학년 시절,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일행들은 곳곳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의 중학생들이 배운 일본어란 동경의 표준어에 그치는 정도였기에 지방 사투리를 이해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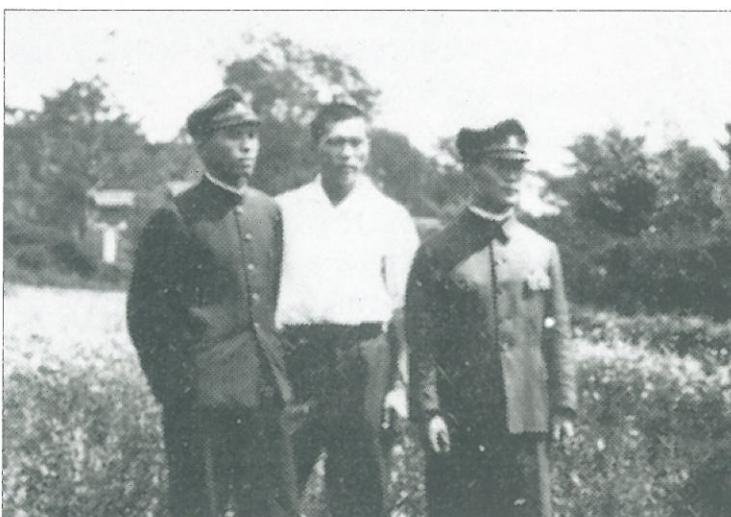
그런데 유일하게 소년 원묵만이 일본 각 지방의 방언을 알아듣고 친구들에게 통역을 해주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학업과 운동, 그리고 예능 면에서도 천부적 재능을 보여주던 그는 사생활 면에서도 너무 성실해서 그를 만나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 소년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많은 여학생들이 먼저 말을 나누고 싶어 그 주위를 맴돌았지만 소년 원묵은 한번도 그들쪽으로 시선을 돌려본 일이 없으며, 어쩌다 친구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도 반드시 해 지기 전에는 하숙집으로 귀가하곤 했다. 자애스러웠지만 근엄하기 이를 데 없는 조모님과 부친의 가정교육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고도 남는 일이었다.

109명 졸업생 중 유일하게 평양의전 입학

당시의 평양에는 두개의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그



▲ 중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하나가 <평양의전>이었으며 또 하나는 <대동공전>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상급학교로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필요없이 <평양의전>을 꼽던 시절이었다.

청년티가 나는 김원묵은 광성중학교 동기 졸업생 1백9명 가운데 오직 혼자만이 평양의전에 합격하는 영예를 차지하여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쩌면 그의 노력의 결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시골의 조부모님이나 아버님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온 마을이 며칠동안이나 축하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으며 마을의 큰 경사로 이웃 부락에까지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고 한다.

하기야 봉생의원 원장으로 한의사이자 침술가로서도 이름을 날린 조부님과 그의 대를 이은 아버님이었고 보면 그분들의 장손이 대를 이어 의학에 입문했다고 해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리라.

난민구호사업을 벌이며 평양도립병원 홀로 지켜

<평양의전> 시절의 김원묵은 오직 학업 밖에는 몰랐다. 도서관에서 며칠씩 밤샘하는 것은 보통 일이었고, 시체 해부실에서 혼자 남아 끝까지 세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낮에 배운 것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도 쓰러지지 않았던 강인한 체력은 이미 광성중학교 시절에 연마한 정신력과 체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평양의전> 시절은 끝까지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5년 조국광복과 함께 사회적으로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사상적으로 변신한 친구들의 많은 괴롭힘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과묵한 성품과 온화한 미소로 오히려 그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신봉하는 정신자세를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래도 끝까지 <민청> 가입을 권유해 오는 동료들에게 그는 ‘오직 내 갈 길은 이것뿐’이라며 의학서적을 높이들어 보여주고는 연구실로 내달리곤 했다.

<평양의전>을 졸업한 후에는 모교에 조교로 머물면서 <평양도립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때 그는 훗날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은사 한분을 만나게 되는

데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이다. 장박사는 당시 <평양도립병원> 원장 겸 외과 과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청년의사 김원묵에게 인격 면에서나 의학 면에서 영원한 스승으로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훗날 부산생활 가운데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가족, 친지들에게 장박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자랑거리로 이야기하곤 했다.

당시 평양에는 8.15 광복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많은 귀국동포들이 몰려들어 일대 혼잡을 빚고 있었는데, 이들을 한꺼번에 수용치 못하다보니 평양역전 주변은 물론 빈터마다 임시 천막촌이 곳곳에 세워질 정도였다. 고국을 찾아온 동포들이었지만 당장 묵을 수 있는 집은 물론 옷가지며 식량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사회적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때 단신으로 역전에 <난민 구호소>라는 플래카드를 내 건 사람이 바로 청년의사 김원묵이었다. 본인이 입던 옷가지들이며 있는 돈 모두를 투자하고 가까운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구호품 수집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혼자만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동포들의 뒷치닥거리를 감당하기란 중과부족이었다. 어느 혹독하게도 추운 겨울 한낮, 본인이 입고 있던 상의마저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서 있는 한 어린아이를 덮어주고는 병원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병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소련군인들의 횡포와 공산정권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의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대부분 월남했음) 남은 사람이라고는 간호원들과 행정직원, 관리직원 몇 명 뿐으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많은 소련군인들이 평양시내에 주둔해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 세상인양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였다.

야간 당직수위도 그들의 횡포가 무서워 별별 떨던 시절, 청년의사 김원묵은 항상 퇴근하지 않고 자원해서 순찰을 돌아주었다. 그가 부는 휘파람 소리는 무척 독특한 것이었는데, 간호원 기숙사에서는 청년 김원묵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야만 마음놓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져오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가 잠시 방심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담을 넘고 침입한 세 명의 소련군인들이 간호원 기숙사에 난입하여 간호원 몇 명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참이었다. 늦게서야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김원묵은 닥치는 대로 치고 넘어뜨리며 순식간에 그들을 길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다.

검도와 유도로 단련된 건장한 그 앞에 무릎을 끓은 소련군인들은 두고 보자는 소리를 외치며 빽소니를 쳤고 간호원들은 위험 직전에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청년 김원묵 자신의 문제였다.

당시 살인을 밥먹듯이 하고도 정당방위로 풀려나 대로를 활보하던 소련군인들이었기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에게 얻어맞은 분풀이를 하고야 말 것을 잘 아는 그로서는 하룻밤을 넘기기가 너무나 불안하기만 했다.

여기저기 병동마다 환하게 불이 켜지고 나중에는 퇴근했던 직원들까지 다시 모여들었지만 뾰족하게 해결할 방도가 나타나질 않았다.

조국 대한을 향해 단신 월남

드디어 청년 김원묵은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는 그 길로 발길을 돌려 고향인 대막골로 향했다.

멀리 바라보이는 고향 대막골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가슴 뿌듯하고 정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 새벽 마을 어귀를 황급히 뛰어들어가는 김원묵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프기만 했다.

잠시 후 아버님과 조부님 앞에 무릎을 끓은 김원묵은 비장한 각오를 털어놓고 있었다. 얼마나 침묵이 흘렸을까? 먼저 입을 연 것은 조부님이었다.

“오냐! 내려가거라. 대한민국에 가서 네 뜻을 펴보거라. 아범아! 아범이 알아서 챙겨주고 원묵이는 이것을 잘 지니고 그 깊은 뜻을 잊지 않도록 해라”하시며 깊이 접어 두었던 하이얀 종이를 건네주셨다. 조심스럽게 펴보니 조부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던 병원의 이름으로도 사용하던 “봉생”이란 두 글자였다.

봉생이란 집안의 가훈이자 조부님에게는 삶의 목

표 바로 그것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원묵이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 위로 치솟는 것 같은 강한 충동을 억제하며 조부님과 부친 김은필 선생께 큰 절로 하직인사를 드렸다.

이것이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막상 떠나는 이에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글자 그대로 생이별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눈치를 챈 식솔들이 여기저기서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녀자들이기 때문에 내놓고 인사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고 또 드러내어 울 수 조차 없었던 것이 당시의 가풍이었음을 아는 이는 다 짐작할 것이다.

자기 방으로 들어온 김원묵은 마침 평양에서 놀러와 있던 고종 사촌 동생인 홍화섭을 만났다. 훗날 월남한 홍화섭씨는 당시 평양사범 1년생으로 이 곳에 놀러와 있다가 고 김원묵박사 가족의 이별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케 되었다.

동생 홍군을 마지막 만나는 자리에서 김원묵은 갖고 있던 이북 화폐를 몽땅 내주며 다시 만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해야 한다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홍군은 수년 전 형님이 <평양의전> 재학시 우연히 만났을 때 자신이 보고있던 청춘 연애소설을 빼앗으며 학생이 볼 책이 따로 있는 것이라며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어 그때부터 무척 어렵고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돈까지 받게되어 어리둥절하기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품에서 의사국가고시 합격

1947년 혼자 몸으로 평양 탈출에 성공한 김원묵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신기락씨를 만났다. 신기락씨는 <평양의전> 선배로서 당시 명동 한복판에 개인병원을 개업하고 있을 때였다.

서로가 반갑게 만나 그 동안의 궁금했던 얘기들을 주고 받다가 신기락씨는 김원묵이 이북에서 소련군들을 구타하고 남한으로 탈출한 사실을 알고는 두 손을 힘주어 잡으며 같이 있을 것을 권유했다. 김원묵으로선 당장 이렇다하게 갈 곳도 없던 처지여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신기락씨의 조수가 되었다.

이미 의사자격증은 있었지만 북한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 체제였으므로 우선은 신기락씨의 개인 병원에서 함께 일하다가 월남한 이듬해인 1948년 보건사회부가 주관하는 의사자격 국가고시에 응시케 되었다.

그가 학구파였다든가 실력이 특출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표면에 나타난 일이지만, 이때도 한번 응시로 무난히 전과목 합격을 따내어 다른 응시자들은 물론 의학계와 보건사회부 당국자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의 의사자격 국가고시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전과목 합격까지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몇 년이 걸려야 가능한 시절이었으니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는 일이라 하겠다.

필생의 사업으로서 첫 봉생의원 개원

그 당시 그러니까 1949년 초에 김원묵은 〈평양의



▲ 봉생병원 설립자 고 김원묵 박사

전〉 1년 후배인 이두봉씨를 만나게 되었다. 1년의 선후배 관계였지만 친형제처럼 친하게 자라온 둘은 만나자마자 옛 시절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상의하는 상대가 되었는데 이때 이두봉씨에 의해 종로구 소격동에 살던 석순애씨를 소개받게 되었다.

석순애씨는 소격동에 무척이나 넓은 적산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젊은 의사 김원묵이 병원을 개업하고 싶다는 요청을 듣자마자 쾌히 수락하고 가옥 일부를 병원으로 사용토록 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남한 최초의 〈봉생의원〉으로서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의 일이었고 오늘날 〈봉생병원〉의 효시가 되는 셈이다.

이로서 청년 김원묵은 조부님께서 개업하셨던 〈봉생의원〉의 가업을 비록 타지에서나마 계승하게 되었고, 병원장으로서만이 아니라 평생의 생활 철학으로서도 〈봉생〉의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커다란 용지를 펴기 시작했다.

꿈에도 소원이던 병원 개업을 한 후 김원묵 원장은 의술과 인술을 다하여 환자를 돌보았다. 당시의 병원은 말이 의원이었지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환자들 때문에 마치 종합병원을 방불케 했다.

다행히 건물이 큰데다가 정원까지 넓어서 하루종일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대기할 수 있었고, 집주인인 석여사는 번창하는 병원의 뒷바라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평생의 반려자 석신덕 여사와의 만남

석순애 여사에게는 당시 신덕이라 불리우는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병원 일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김원장의 일을 거들게 되었다. 특별히 간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영리하고 민첩했던 석신덕은 어느 사이 김원장의 오른팔처럼 환자들의 뒷치 닥 꺼리에 능숙하게 되었다. 의사와 간호원이기 이전에 피끓는 청춘남녀였기에 얼마 안가 둘의 사이는 눈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운명처럼 만난 평생의 반려자 석신덕. 그녀가 있었기에 훗날 김원묵 박사가 존재할 수 있었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리라. 여기서 잠시 그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보자.

문 밖을 나서면 바로 대동강이 마주 보이는 넉넉하고 인심 좋던 조그마한 마을, 평안남도 평양시 항동. 1927년 1월 3일 딸부자집으로 불리던 아담한 가옥에서 석신덕 여사는 태어났다.

아버지 석연보 선생과 어머니 이문보 여사는 슬하에 순경, 승희, 필녀, 순복, 순애, 순선, 신덕, 춘홍까지 8자매를 두었는데, 이 중 7번째 딸인 신덕은 자매 중 가장 말없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정많은 소녀였다.

한창 재롱 피우며 귀여움을 받아야 할 세 살 나던 해, 부친 석연보 선생이 늄막염으로 39세 아까운 나이에 타계하셔서 아버지의 정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석신덕. 하지만 언니들에게 전해들은 인자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소녀 석신덕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잉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했던 부모님. 하지만 아들 없이 딸만 낳았으니 둘째부인이라도 들여 대를 이으라는 친척들의 불같은 성화에 석연보 선생은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서 하는 소리. 우리 딸들은 아들 봇까지 다해낼 것”이라며 일어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소녀 석신덕은 언제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아버지가 기대하신 것처럼 꼭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가슴깊이 다짐하곤 하였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어려운 난관에서도 항상 큰 의지로 삼은 것이 아버지였다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준 것은 어머니였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 항상 어머니를 우선으로 꼽았던 석신덕.

부친의 타계 후 샷바느질로 겨우 생활을 꾸려나갔던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 옥수수를 하루종일 물에 불려서 밀가루와 함께 버무려 만든 주먹떡은 어려운 동네 사람들과 항상 나누어 먹던 단골 메뉴였다.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먹떡을 주느냐”는 어린 신덕의 투정에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맛있고 행복한 것”이라며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훗날 그녀가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남달리 열심 이게 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더욱 엄하게 가정교육을 시켰던 어머니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 “남에게 항상 양보하며 살아라”,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 “맞은 사람은 편히 자도 때린 사람은 발뻗고 못 잔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그녀의 좌우명으로 남게 되었고, 항상 정직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 근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거의 연년생이었던 언니들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목욕탕을 갈 때면 동네사람들에게 ‘저기 병아리를 나왔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던 어린 시절, 항상 엄마 치마 뒤로 숨은 했던 석신덕은 수줍음 많은 소녀였다. 훗날 모두 여걸 소리를 들었던 만큼, 골목대장을 도맡아하며 활달하고 드센 성정을 지녔던 언니들 속에서 말없이 조용하기만 했던 석신덕은 항상 손해를 보기 일쑤였다. 형제들이 많을수록 자기 것을 쟁기기 위해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기 마련인데, 언제나 먼저 양보하기만 했던 그녀를 언니들은 ‘속없이 착한 신덕’이라고 부르곤 했다.

세월이 흘러, 둘째 석승희(훗날 소니아 석) 언니의



▲ 김원숙 박사의 반려자 고 석신덕 회장

이른 사회진출로 집안살림이 어느 정도 윤택해졌다.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해온 석승희는 17살의 나이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다. 이때가 1934년,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통틀어 제1호 여자운전사가 탄생한 것이다. 운전사가 귀했던 시절, 여자운전사는 더욱 드물었다. 그 당시 서울에는 이정희, 평양에는 석승희라며 이 두 명의 여자운전사들은 장안의 화제가 되곤 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자, 가족들은 신의주로 이주하게 된다.

그녀의 집은 당시 신의주의 명물로 일컬어졌다. 모두가 딸부자집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신의주는 물론, 타 도시에서도 유명한 딸부자집의 꽃다운 처녀들을 구경하기 위해 청년들이 몰려들었다. 하여 그녀의 집 담장에는 항상 집안을 기웃거리던 청년들이 끊이질 않았고, 도둑으로 오인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종종 발생하곤 했다.

광복과 함께 다시 서울로 이주한 석신덕은 스물셋, 꽃다운 처녀시절 드디어 가슴 떨리는 첫사랑, 평생의 반려자 김원묵을 만나게 된 것이다.

죽음도 무릅쓴 사랑의 맹세

봉생의원이 나날이 성황을 이루면서 김원묵 원장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항상 고마운 아저씨 또는 인자한 의사 선생님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언제나 그는 찾아온 환자들에게 빈부의 격차를 가리지 않았으며 치료비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사람에게도 두말 않고 성심성의로 의술을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바뀌고 정원의 아카시아 꽃이 서서히 그 질은 향기를 내뿜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3·8선이 무너지고 인민군들이 탱크를 앞세운 채 남으로 남으로 밀고 내려왔다.

며칠 후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인민군 부대가 진주하기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은 보따리를 이고 지고 피난길을 떠나고 있었다.

석순애 여사가 김원장에게 같이 피난을 떠나자고 종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원장으로선 북한에서의 탈출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한 것이었기에 장본인은

물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석여사로서도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원장으로선 쉽게 용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같은 부락의 몇몇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만약 단 하루라도 왕진을 거를 경우 환자의 병세가 치명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은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원장이 오히려 서둘러서 석여사 가족의 피난을 재촉했다. 하는 수 없이 하루속히 뒤따라 와줄 것을 당부하며 석여사 가족은 간단한 짐을 꾸려 친척이 살고 있는 수원을 향했다. 그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사람은 김원장이나 석여사보다도 그의 여동생인 석신덕이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이었다. 그와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사랑하는 이 곁에 남기를 원했던 석신덕 여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그녀는 선뜻 김원장 곁에 남기를 자원했고 언니 역시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난세에 가족을 뿌리치고 김원장의 곁에 머물기로 작정한 석신덕은 이미 한 여성의 일생을 한 남성에게 의지하려는 일생일대의 용단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짙은 러브스토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덩그리니 커다란 집에 단 둘만이 남았다. 난중이라 찾아오는 환자도 없었고 김원장이 왕진가방을 들고 치료중인 환자 집을 다녀오는 일이 하루 일의 전부였다.

극적인 서울탈출 드라마

당시 그 적산가옥은 담 하나 사이 저쪽에 수도육군 병원이 있었는데, 이 병원에 근무하던 이두봉씨가 김원장을 찾아왔다.

“형님! 아직 피난을 안 떠나고 계셨군요.”

“그래, 자네도 남아 있었구나. 앞으로 걱정이다.”

“형님! 이 집에 계시다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형님 이럴 필요 없이 같이 우리병원 지하실로 거처를 옮기자구요. 그 지하실은 크기도 크지만 한 석달

쯤 먹고 지내기는 아주 편안합니다.”

“글쎄,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쉬 용단이 내려지질 않는구먼.”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며칠 시간을 보내다가 이두봉씨의 소식은 끊겼고 드디어 수도 육군 병원에까지 인민군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는 눈치였다.

정말 그 병원 지하실로 옮기지 않기를 백 번 잘 했다 싶은 심정이었다. 이 때부터는 외부 출입도 겁이나서 할 수가 없었고 문이란 문은 전부 폐쇄시킨 채 빈집으로 위장을 한 후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하루종일 바깥의 동정만을 살피며 지내게 되었다.

바로 이 무렵, 수도육군병원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다급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많은 간호원들이 인민군 전상자를 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간호원 가운데는 몇 년 전 평양도립병원 시절에 김원장과 같이 근무하던 간호원이 한 명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느닷없이 공산당 장교복장을 한 사나이가 이 간호원의 어깨를 툭 치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것이었다.

“동무! 평양에 있던 이 간호원 아니오?”

“네? 그런데….”

“날 모르겠오? 평양도립병원에 있던 날 말이오.”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런데 이동무. 김원목이라고 알지요? 그 친구 서울에 내려와 살고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지금 어딨는지 알고 있소?”

“네? 네. 김원목씨라고 알지요. 그런데 전 그분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데요.”

“그래요? 알겠우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바빠서 그냥 가오만, 내일 다시 올테니까 같이 그 김원목이를 찾아봅시다. 이동무! 알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같은 대화를 나눈 후 이 간호원은 도저히 두근 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더란다.

그날 밤, 동료 간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담장을 뛰어넘은 이 간호원은 황급히 김원장의 지하실 문을 두드려대고 있었다. 이간호원으로부터 전후 이야기를

듣고 난 김원장은 마음에 집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놓고 그를 찾아가거나 앓아서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김원장과 석신덕은 동이 틀 무렵, 골목골목을 돌아 올지로 2가에 살고 계시던 석신덕 어머님의 집으로 일단 몸을 숨겼다. 며칠동안 다락방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야음을 틈타 다시 소격동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아무래도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신상에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언제라도 인민군의 검문에 응할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날밤으로 김원장은 소격동 동장을 찾았다. 옛날의 동장이 아닌 인민군에 의해 선출된 동장이었으나 과거에 그 가족들이 김원장으로부터 몇 번이나 무료 치료를 받고 고마워하던 사람이었다. 막상 대면할 때까지도 그의 모습이 옛날과는 달리 진짜 빨갱이가 되어 있으면 어찌나 하고 걱정이 태산같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태도는 온순하기만 했다. 김원장의 요청을 다 듣고난 동장은 “원장 선생님! 제가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 준 대서야 어디 사람 새깁니까? 번번이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셨잖습니까”하고는 누가 검문을 해도 당당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서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인심만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그 길로 김원장과 석신덕은 그동안 보아주지 못했던 환자들을 방문치료한 후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동료 의사의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다. 곧장 한강을 넘을까도 했으나 김원장의 머릿속에는 늘 늑막염으로 앓고 있는 환자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였다.

청파동에 일단 숙소를 정해놓고 수시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청동까지 왕래하며 환자치료를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환자의 상태도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이고 또 서울 시내의 분위기가 점점 혐악해지고 있었으므로 장기간 복용할 약을 건네주고 한강을 넘을 생각으로 둘은 흰 가운 복장을 왕진 가방을 든 채 마지막 왕진을 떠났다. 그 동안 찾아가지 못한 소격동 병원도 궁

금하고 해서 잠시 들려볼 생각으로 먼저 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멀리 병원 건물이 보이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노라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총을 한 인민군들이 병원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웬 사람이 다가오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것이었다.

“이거, 김원장님이 아니십니까?”

“네? 누구신지요?”

“전 김원장님 병원 앞에 살던 최00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원장님께서 벌써 피난을 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못 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심한 환자가 있어서 그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으면서도 김원장과 석신덕은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난세에 그것도 서울 한 복판에서 자신들을 알아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불안은 곧 가셔질 수 있었다. 다행히 달려가서 인민군에게 고자질을 할 만한 빨갱이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김원장이 집에도 가보고 싶고 또 환자의 집에도 찾아가 치료도 해주어야겠다며 앞으로 나서려 하자 그는 깜짝 놀라면서 갈 길을 막았다.

“김원장님,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어제 인민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원장님을 찾아내라고 얼마나 유탄질렸는지 아십니까? 그 때 누군가가 김원장님은 얼마 전에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겨우 위기를 면했답니다. 만약 김원장님이 지금 제 발로 그들 앞에 나타나면 우리들은 어찌되겠습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빨리 몸을 피하세요”하며 오히려 울상을 짓는 것이었다. 순간 김원장은 마음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름을 느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빨리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긴박감도 느낄 수 있었다. 서둘러 그를 골목길로 끌고가 뜨거운 약수와 함께 감사함을 표시하고 갖고 있던 약을 건네주며 산청동 환자의 약도를 그려주었다. 그리고 잘 전해 줄 것과 만나는 모든 사

람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해 줄 것도 잊지 않았다.

다시 발길을 되돌린 김원장은 석신덕의 손을 잡고 청파동으로 돌아왔다. 이제 놈들이 자신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한시라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동료의사의 도움을 받아 왼쪽 팔에 가짜 기브스를 만들었다. 누가 보아도 왼쪽 팔 하나는 완전히 못 쓰게 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X-ray 가운데 왼쪽 팔이 으깨져 나간 사진 한 장도 챙겨 넣었다. 검문검색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어렵고 어렵게 마포강에서 배를 주선하고 도강을 마쳤다. 수원까지 달려와 석순애 여사를 찾으니 이미 평택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다시 석여사를 찾아 평택으로 향했다.

이때가 한창 무더웠던 8월이었고 아프지도 않은 팔 하나를 온통 기브스를 한 채 움직여야하는 김원장으로선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둘의 기쁨도 큰 것이었다. 비록 세상이 뒤집히고 단 하루도 마음놓고 유숙할 거처조차 없는 신세였지만 이럴수록 두 사람은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택에 와서 석순애 여사와 합류한 김원장은 비록 남의 집 더부살이였어도 오랫만에 시골의 전원풍경에 도취될 수 있어서 좋았다. 팔베개를 하고 풀밭에 누워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 어느 사이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운 조부님이며 아버님,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까지 아른거렸다. ‘피난을 하셨을까? 혹시 놈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9·28 서울 수복 후 육군에 자원 입대

평택에서의 생활도 평화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이때는 곳곳에 인민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고 마을마다 그들의 점조직 세력이 미칠 때여서 심지어는 서울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의 명부까지 상부에 보고 토록 되어 있었다.

다행히 김원장이 묵고 있는 석순애 여사의 시가는 인심을 잊지 않고 있는 집이어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누구 하나 고자질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이

며 또 그때그때 돌아가는 정세까지를 앞다투어 찾아와 알려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본의 아닌 농촌의 전원생활 가운데 몰래 엿듣는 라디오 방송이나 마을의 분위기로 점차 인민군이 밀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의 발악도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닥치는 대로 민가의 가축을 징발해 가는가 하면, 곳곳에서 인민재판이란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고 특히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별별 이유를 다 붙여 못살게 굴었다.

드디어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이란 뉴스와 함께 수도 서울이 탈환되었다. 이른바 9·28 서울 수복이었다.

김원장은 오랫동안 골절환자인양 한쪽 팔에 부쳤던 깁스를 떼어내고 석여사의 친척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렸다. 석신덕과 함께 즉시 서울 소격동으로 향했다.

글자 그대로 서울은 폐허의 도시가 되어 있었다. 파괴된 건물 사이 사이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시민들과 전상 환자들, 그리고 부모 잃은 고아들의 떠거리 등, 전쟁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소격동 ‘봉생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기 비품 가운데 쓸만한 것은 다 없어졌고 의료기구며 의약품도 남아있질 않았다. 오직 남아있는 것이라곤 집을 떠나기 전에 집 천장에 몰래 감추어 두었던 현미경 하나뿐이었다. 그나마 이 현미경을 찾아들고 김원장은 다소 안도의 숨을 쉬는 듯했다. 현재 봉생병원에서 그의 체취를 물씬 풍기게 하는 물건 중에 하나로 이 현미경이 남아 있으며 스위스 Wild사 제품이다.

김원장은 며칠동안 그 특유의 침묵을 지키며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불쑥 군에 입대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석신덕으로서도 이렇다하게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었다.

김원장의 결심은 곧 실천에 옮겨져 논산 훈련소에 입영하는 몸이 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27세, 한창 혈기가 왕성하던 청년시절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장교복 입고 미 육군병원에 유학

훈련을 마친 김원장의 양 어깨에는 반짝거리는 디아몬드 두 개가 달려 있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중위가 된 것이다.

김중위의 첫 근무지는 ‘제2육군병원’으로 배속되었다. 그 당시 마산여자고등학교에 자리잡았던 제2육군병원은 뒤에 ‘제3육군병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오늘날 부산시 남구 망미동의 ‘국군부산병원’으로 바뀌게 된다.

김중위가 마산으로 떠나게 되자 석신덕도 바늘에 실 가듯 부군의 곁으로 따라갔다. 병원 옆에 단칸방을 얻어 아쉬운 대로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김중위는 근무시간을 마치고도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서 밤샘하기가 보통이었다. 그것은 전상자



▲ 1951년 춘천 제1야전병원 신경외과 막사 앞에서

치료도 치료였지만 본래가 학구파였던 기질이 되살아나 남은 시간 대부분을 연구실에서 보내곤 했기 때문이었다.

마산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일은 둘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었다. 석신덕의 몸 속에 지금의 유일한 딸인 낸시 아기가 임태된 것이다.

아내가 채 몸을 풀기도 전에 김중위는 대위로 진급하면서 춘천 제1야전병원 신경외과반으로 전속명령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김대위는 몸이 무거운 석신덕을 홀로 남겨두고 두 번째 근무지인 춘천으로 향했다. 여기에서 그는 무수한 전상환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귀중한 체험들을 쌓게 된다.

처음으로 남편과 떨어져 있던 시간, 두 사람은 매일같이 그리움에 편지를 쓰곤 했다. “보고픈 당신에게. 조용히 누워 배에 손을 얹고 있으면 아기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은 아기가 당신이 보고 싶은지 자꾸 발길질을 해대요. 하루빨리 아기와 함께 당신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식사 꼭챙겨 드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김대위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편지를 보냈으며, 왕래하는 편지 속에서 딸 낸시양의 출

산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당시의 동료들은 그때를 회상해준다.

1953년 10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기 ‘낸시’와 함께 남편의 근무지 춘천으로 달려온 석신덕 여사. 단칸방을 전전하던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낸시와 함께 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나날들이었다고 말하곤 했다. 다소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름 ‘낸시’. 처음에는 ‘은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단란한 세 가족이 모인 것에 대한 그의 기쁨은 1년전의 ‘금성화랑 무공훈장’에 이어 불과 며칠 전 두번째로 ‘은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상받은 직후여서 더욱 크게 느껴졌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신경외과학이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이론과 임상실험에 심혈을 기울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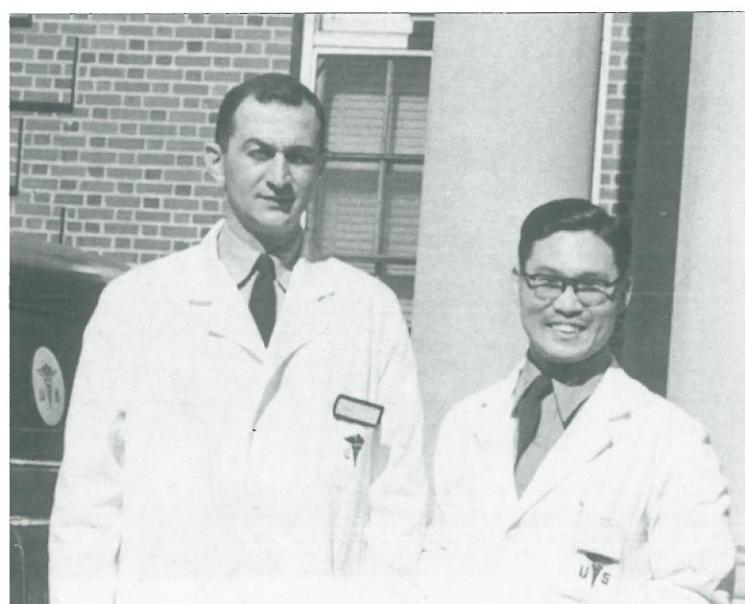
평소 성격이 온화하고 또 책임감이 투철한 그였는지라 장교, 사병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성으로 치료에 힘을 쓰다보니 그의 손길이 닿은 환자는 항상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한 인품과 의술에 대해서는 군 병원 밖에까지 소문이 퍼져 일반인들도 그의 치료를 받고 싶다면서 퇴근 후 사택에까지 쇄도할 정도였으니 그의 명성이 어느 만큼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이러한 역량은 군에서도 인정을 하기에 이르러 그로 하여금 ‘수도육군병원 신경외과’로 전입시켜 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한편,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유학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에게 신경외과의 첨단의학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귀국과 함께 그는 ‘제3육군병원’(현 국군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계급도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었다.

지금도 유명한 제3육군병원장 취임사

그 당시의 ‘제3육군병원’에는 1천여명의 전상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두부손상이나 척추손상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정도면 대충 짐작가는 일이지만 환자들의 횡포도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환자들 가운데



▲ 1956년 월터리드 미육군병원 시절

기억나는 인물로는 김만술 소령(입원당시는 대위)도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6·25전투 중 가장 빛나는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1개 소대병력으로 적 1개 연대병력을 물리치고 미국 육군의 최고훈장을 받은 장본인이다. 이밖에도 쟁쟁한 무공을 쌓고 부상당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군의관들은 물론 병원장까지도 그들의 위세에 놀랄 지경이었다.

그러나 김원묵 소령이 부임하고부터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상대방의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고 따뜻한 인간애와 정중한 인품, 그리고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성심성의를 다하는 그의 진실한 생활자세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억세기만 하던 전상자들이 김소령 앞에서 순한 양처럼 변해버린 것이었다.

그가 미육군 ‘월터리드’ 병원 유학 시절 처음 본 것 가운데 ‘뇌동맥 촬영’이 있었는데, 그는 그 기술을 충분히 의힘은 물론 그 동안의 경비를 최대로 줄여 촬영기구를 구입하여 귀국했다. 그밖에 필요한 촬영기구는 미국에서 눈여겨 보아온 대로 손수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김원묵 소령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뇌동맥 촬영이 선보이게 되었고 의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보급이 안되었던 Angio needle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데 Angio 후에는 반드시 손수 Needle을 씻고 소독할 정도였고, 의약품이나 위생재료 모든 것이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보급된 시절이었지만 거즈 한 장이라도 혀되어 버리는 일이 없을 만큼 물자를 아끼는 성품이기도 했다.

군에서도 확고한 기반을 다지면서 그 실력을 군内外로 멀칠 즈음 중령으로 진급케 되었다. 병원 내에서도 외과부장으로 또 진료부장으로, 그리고 도서실장으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쁘기만 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의 학구열은 식지를 않아 1960년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여 1963년엔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 이듬해인 1964년엔 우리나라 군의관으로선 최초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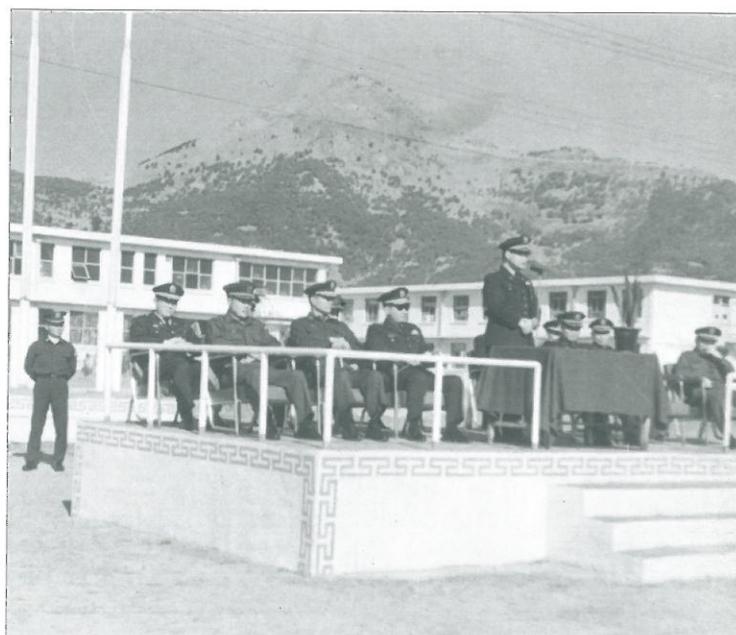
그리고 곧이어 대령으로 진급한 김원묵 박사는

‘제3육군병원’ 병원장 대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병원장으로 취임하던 날, 많은 내외 귀빈과 장병들 앞에서 행한 그의 취임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는데, 당시의 연설요지를 간략하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건강을 잃은 환자다. 가난한 사람은 근검절약하면 잘 살 수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성실히 노력하면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건강은 돈이나 권력, 학식이나 명예도 결코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장병 여러분은 이 점을 유의하여 병원의 모든 일을 환자 제일주의로 하고 불행한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불구가 된 환자가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

일반 환자들 위해 봉생신경외과 개업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김박사가 1956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부산의 ‘제3육군병원’으로 발령을 받고 내려와 보니 병원 안의 환자도 환자였지만 사회에서도 많은 두부 손상, 척추손상 환자들이 있었으나 이렇다할 치료기관이 없어 사회적으로 큰 골치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일반 환



▲ 1964년 제3육군병원 병원장 취임식

자들을 군 병동에서 치료해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행히 이런 특수한 경우를 위해 야간병원을 개업 할 수 있도록 당시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었으므로 현재 범일동 오버 브릿지 부근에 야간에만 문을 여는 ‘봉생신경외과의원’을 개업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이듬해인 1957년 현재의 봉생병원 자리인 동구 좌천동 68-11번지로 이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1964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김박사는 봉생신경외과의원의 개업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몸이 되었다.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늘여 살아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부산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산업화로 치달으면서 신경외과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석신덕 여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생활을 벗어나 병원의 크고 작은 살림을 도맡아 하기에 이른다. 그녀는 김원묵 박사가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환자 간호부터, 식사, 세탁, 청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끊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시도 쉴 틈 없이 일만 했다. 해도 해도 끝없이 나오는 빨래감이며, 청소거리, 그 많은 환자들의 3끼 식사만 해도, 족히 열 사람 뜻의 일이었다. 하지만 생활력 강한 이북사람의 특징이었을까. 그녀

는 일을 도와줄 사람 한 명 두지 않고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해내었던 것이다.

한편, 김박사는 군 병원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봉생의 환자들 치료에 거의 매일 밤을 지새워야 했다. 신경외과라고는 한곳도 없던 당시의 부산 실정이었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지만,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환자들을 김박사에게 보내올 정도로 불비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김박사는 또 한번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에서의 예편이었다.

17년간 정들고 공들여온 군의관 생활이었다. 이제 지역주민들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군복을 벗으려는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1967년, 그는 대령계급으로 육군에서 예편하고 오직 봉생신경외과에만 전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의 명성 때문에 환자는 날로 증가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은 물론 호남지방과 심지어는 강원도 지방에서까지 환자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김박사는 아무리 바빠도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성의를 다하였고, 어쩌다가 불손한 환자가 들어와 직원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시비를 걸어와도 절대 다투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부탁을 잊지 않았다.

간혹 직원들과 다툼을 벌이는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직원부터 책망을 하는 성품으로 어디까지나 ‘환자 제일주의’였다. 또한 진료 도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들에게 정중한 조의를 표함은 물론 그 자책감으로 며칠씩 침식을 잊고 괴로워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혼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것이었다. 그가 학구파라는 것은 잘 알려졌고 실력 또한 신경외과계에 독보적인 존재였지만 항상 겹혀한 자세를 잊지 않았다. 진료 중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절대 권위를 앞장세우는 법 없이 선배, 동료, 심지어는 후배들에게까지 서슴없이 물어 스스로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생활면에서도 검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미 육군 ‘월터리드’ 병원에 유학할 당시에도 동료들은 시간을 내어 관광을 하는 등 즐거움을 찾아 나섰지만 김박사는 한번도 그들과 어울린 적이 없었다. 식빵 한



▲ 1964년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가족과 함께

조각으로 공복을 메우며 아끼고 모은 돈으로 의학서적과 촬영기구를 구입하는데 골몰할 정도였다. 그후에도 새로운 의술 습득을 위해 자주 도미했지만 그때마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숙소에서 한 발자국도 외출하지 않고 책을 불들고 앉아 있어서 비교적 자주 미국을 다녀왔어도 미국지리라든가 풍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현신적인 내조로 봉생의 기틀을 만든 석신덕 여사

계속해서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점심이며 저녁을 건너뛰기가 일쑤였는데, 이 때문에 식사를 제때에 못하는 간호원들의 불평도 많았다. 이러한 직원들을 다독이며 진두지휘한 것은 바로 석신덕 여사였다. 그녀는 진료를 제외한 모든 병원 일들을 도맡아하였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그 것에서 더 큰 보람을 찾았던 석신덕 여사. 하지만 이때 그녀는 평생토록 고생하게 되는 지병을 얻게 된다. 항상 피로감과 몸살에 시달렸던 그녀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픈 건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곤 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 그녀의 약은 설탕물이었다.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에도 몇번씩 설탕물을 타먹곤 했던 그녀. 김낸시 이사장은 설탕물에 밥을 말아먹기도 하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자기도 맛있게 한 입씩 받아먹던 그 때를 기억한다.

“병인 줄 몰랐죠. 어머니는 그냥 피로가 쌓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나을거라고 넘어가곤 했으니까. 어머니는 워낙 말이 없었던데다가, 아픈 건 거의 표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게 결국 병을 키운 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랬다. 누적되던 피로와 그녀의 만병통치약 설탕물. 그로 인해 결국 심한 당뇨병이 그녀에게 엄습해 왔다. 석신덕 여사가 처음으로 자신의 병을 알게 된 것은 오랜만에 한국에 왔던 언니 소니아 석 때문이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그녀는 당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너 왜 그렇게 더듬거리고 그러니?”

“별거 아냐. 눈이 나빠져서 그래. 조금 무리를 했는지 피로해서 그런가봐. 좀 쉬면 나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장 검사를 해봐야겠는데”

물건 하나를 찾아도 한참을 더듬거리곤 하던 모습을 본 소니아 석은 그녀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당장 미국에서 심장 전문의로 활동하던 막내 동생 춘홍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덕이가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상해. 단순히 눈 나쁜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 미국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봐야겠으니까, 실력있는 안과 전문의 좀 소개해줘”

진단결과, 병명은 심한 당뇨와 백내장. 우선 눈 수술이 급했다. 1970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할 정도로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눈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석신덕 여사는 그때부터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두꺼운 특수 안경을 끼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돌아온 뒤 석신덕 여사는 더욱 더 병원 일에 매달리곤 했다. 옆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그녀에게는 소용없었다. 일가 친척 하나없이 외로운 타향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맨손으로 일구어낸 땀의 결실, 봉생병원은 삶의 낙이었고 그녀의 전부였다.

“당신은 인자하고 따뜻한 그 모습 그대로 있으세



▲ 1980년 직장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요. 다른 것에는 신경쓰지 말고, 진료와 수술에만 전념하세요. 다른 뒷처리는 모두 내게 맡겨요”

병원 직원들의 관리 감독부터, 늦은 밤 마지막 병원 문단속까지 도맡아 한 그녀.

“아주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셨죠. 환자에게 불친절하거나, 조금이라도 물품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가차없이 불호령이 떨어졌거든요. 김원묵 박사가 덕장이라면, 석신덕 여사는 맹장이었다고나 할까. 아무래도 위에 무서운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석신덕 여사만 나타났다하면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곤 했으니까요. 또 한 편으로는 항상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직원들 가정 대소사까지 챙겨주시곤 했기 때문에, 모두가 어머니처럼 잘 따르고 존경했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석신덕 여사 때문에 병원 기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녀와 함께 병원 생활을 했던 직원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이처럼 병원 운영이 물 흐르듯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진두지휘한 석신덕 여사에게 김원묵 박사는 “낸시 엄마,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거야” 라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자애롭고 온화한 김원묵 박사와 엄격하고 세심한 석신덕 여사, 이 잉꼬부부의 조화는 너무도 이상적이어서 누구나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날로 봄비는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넓은 2층의 목조건물이 감당할 수가 없어 1970년 마침내 현재의 병원건물을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입해 온 중환자실의 ‘ICU 모니터 장비’를 비롯, ‘중앙공급식 산소장치’, ‘최신 뇌파검사기’, ‘두부용 초음파기’, ‘고용량 X-ray투시 장치’ 등 가장 초현대식 의료기구를 설비한 병원으로 의학계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또한 신경외과와 밀접한 정형외과를 증설하는 한편, 빈번한 수술 때문에 당시로서는 민간병원 최초의 마취과 전문의사를 초빙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을 쏟기 시작

병원이 날로 확장되면서 김박사의 마음 속에는 날로 급증하는 암 환자가 커다란 숙제로 자리잡기 시

작했다. 암 정복이야말로 의사라면 누구나 공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새로운 도전상대로서 항상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속 시설을 현대화시켜 나가는 한편, 암 치료장치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종합병원 승격과 간호학교 개설 준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 그러니까 1972년에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학계를 리드해 나가는 리더쉽을 발휘했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매주 출강을 하는가 하면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출제위원으로 활약했다.

지역사회의 시민체육사업에도 관심을 쏟았던 그는 부산시 ‘배드민턴회’ 회장을 맡아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다했는가하면 국제 로타리클럽 회원, 모교인 광성중학교 후원회 회장, 성모여자고등학교 육성회 회장 등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종교적으로도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종파를 초월하여 지원요청에 응했으며 글자 그대로 ‘봉생’ 이념을 생활화하는 분이었다.

형제처럼 지내던 정윤호 선생과 사돈을 맺다

김원묵 박사와 한약방을 경영하는 정윤호(동서 한약방 대표) 선생과의 만남은 20여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나자마자 김박사 쪽에서 먼저 친형제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옛 고향의 조부님과 아버님 곁에 늘 배어있던 한약냄새와 그 비슷한 분위기가 되살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제시대 당시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부를 마치고 1944년 고시전형 합격,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귀국한 정윤호 선생은 20여년간을 중, 고교 교장으로 교직에 종사하다가 역시 부친의 기업이었던 한약방을 계승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현재 부산진역 부근에 기업중인 ‘유일 신경외과’ 원장인 정현화 박사가 바로 장남이고, 현 봉생병원 정의화 원장이 차남이 된다.

말하자면 김박사와 정선생은 훗날 사돈이 될 인연이었던 것이다.

김박사가 정선생을 친형제처럼 따르고 얼마나 좋았는지는 많은 행적에서 나타나지만 1971년 10월 20일자 소인이 찍힌 엽서(김박사가 일본에서 정선생께 보낸 엽서로 정선생이 보관)를 보면, ‘… 매일 아침, 저녁 봉생 신축 현장엘 들러 격려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로 시작되어 정선생이 김박사가 없는 사이에도 친형제처럼 공사현장에 격려 겸 독려차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1973년 8월 12일자 소인이 찍힌 엽서(미국에서 보낸 엽서)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출국 때 우중에도 공항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의는 꽤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낸시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분을 만났으니 낸시 자신 기뻐하고 있으며 나 자신 흐뭇한 마음 비할 바 없습니다. 더욱이나 정선생님과는 가장 가깝게 믿는 우정을 나눴는데 이것을 넘어 무엇인가 또 다른 감회를 감출 수 없습니다. 즉 50세가 되도록 형제 없이 자란 나로서 형이 하나 생겼으니 말입니다. 낸시가 아버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미 이때는 정의화를 사위로 결정한 후였기 때문에 사돈에게 마치 형님께 대하는 듯한 내용의 엽서 전문이었다.

이야기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만 이렇게 양가의 아버지들이 오랜 세월 교분을 이어오던 1972년 여름 어느 날,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두 집안이 한 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정의화와 김낸시가 처음 상봉하게 된 것이 바로 이날.

당시 정의화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반에 재학중이며 가장 촉망되는 의사지망생으로서 엘리트 청년이었고, 김낸시는 성모여고를 졸업 후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있는 남가주대학교 상과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말하자면 청순한 숙녀 초년생이었다.

연령으로 보아 5년이나 차이가 나다보니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오빠로 부르도록 권유했고, 정의화도 여동생처럼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물론 그때

만 해도 본인들은 물론 어른들조차 사돈을 맷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을 때였다. 그만큼 김낸시를 어린애로 취급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이후로 다시 부산과 미국 LA로 헤어지면서 서로 편지가 오고가기 시작하다가 이듬해에 다시 귀국한 낸시에게 정의화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하게 되고 이어서 김박사 앞에 나타난 청년의사 정의화는 딸을 저에게 맡겨 달라고 당당하게 나선다. 이 때 정의화는 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인턴 과정이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빛이었으나 김박사는 온 얼굴에 활짝 미소를 띠우며 쾌히 승낙케 되고 정윤호 선생께도 연락하여 뒷일을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평소 오랫동안의 교분이 사돈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되는 셈이다.

김박사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 낸시에게 쏟은 사랑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녀가 몸이 아파 식사를 거르면 같이 수저를 놓을 정도였고 시간만 나면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외출하는 것을 제일 큰 낙으로 삼을 만큼 항상 그녀의 주위에서 맴돌았다. 그러한 아버지였으니 딸을 미국에 보내놓고 걱정하는 모습은 주위 사람이 민망할 정도였다.



▲ 정의화원장과 김낸시 이사장이 처음 만난 날, 양가 가족이 함께 기념 촬영

그후 남은 수학을 위해 미국에 돌아간 낸시에게 김박사는 한달에도 십여 차례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정의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974년 9월 26일자 소인이 찍힌 편지(김박사가 작고하기 약 40일 전 미국에 있는 낸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장래 사윗감을 칭찬하며 믿음직스러워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가 5시 30분에 의화와 엄마가 같이 비행장까지 나왔다. 나는 지금 서울에 있

다. 의화는 똑똑하고 우수한 젊은 의사이다. 앞으로 어느 과를 택하든 잘 할 것이다. 의화 부모님도 훌륭하고 형제들도 모두 우수하며 화목한 집안이다. 또 우리 가정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 우리와는 참 둘도 없이 일맞는 집안이다…’

김박사의 편지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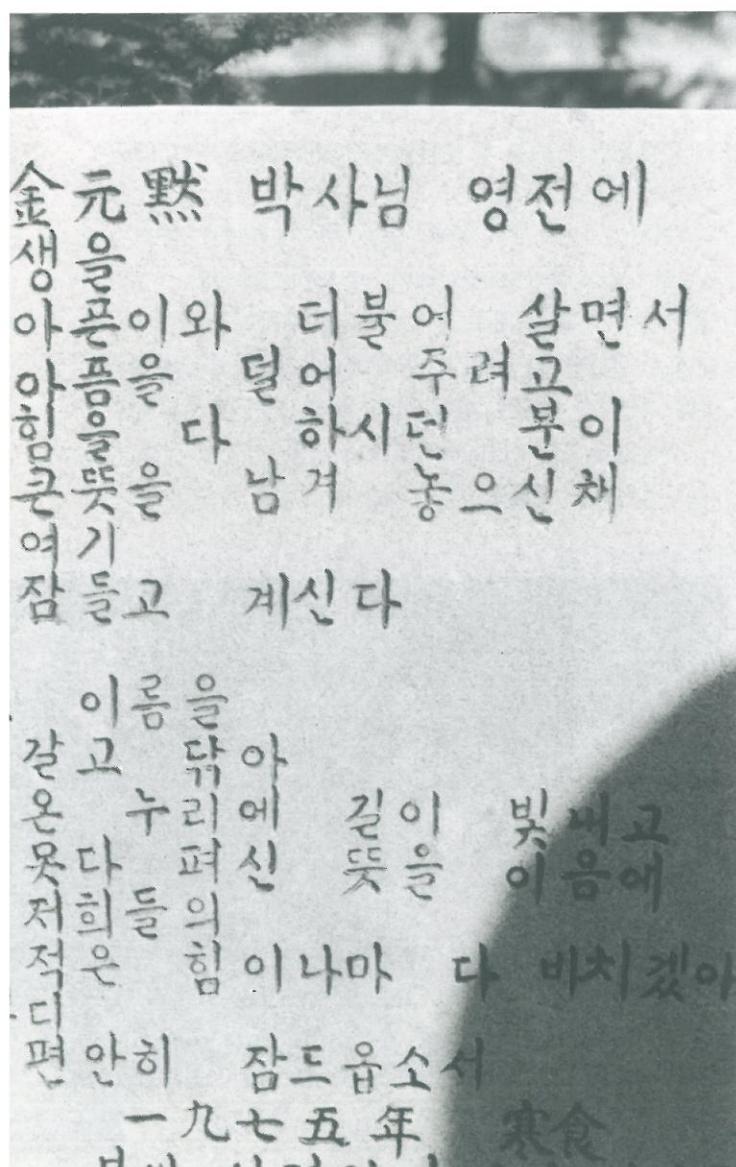
1974년 10월 15일 발신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는 김박사가 작고하기 약 20여일 전이었다.

‘… 너한테 사전 연락 없이 내가 의화 아버지와 상의해서 호적에 올린 것은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판단하기에 낸시 너 자신이 의화를 좋아했고 의화도 너를 둘도 없는 상대로 좋아하니 거리낄 것이 무엇이겠느냐? … 중략 … 의화와 너의 아름다운 관계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 문제만 남고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함으로써 양가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또 서로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되리라 믿는다. 낸시 너에게 물어볼 시간이 없었던 점을 양해해다오. … 중략 … 의화와 네가 결혼 약속이 되었으니 아버지로서,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한시름 놓은 것과 다름없다. 사실 귀여운 딸을 시집보내려면, 즉 사윗감을 구하느라고 속을 많이 써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많이 들었다. 거기에 비해서 낸시 너는 나나 엄마의 속을 하나도 쓰게 한 것이 없이 잘 선택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것은 다 하느님께서 잘 돌보아 주신 은혜라고 감사드리고 싶다…’

어처구니 없는 슬픔, 김원묵 박사의 운명

평소에도 김박사는 의화를 만나면 사위로서 또 후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이 왜 ‘봉생’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 집안의 내력과 봉생이념을 설명해 주곤 했다. 특히 의화가 자신의 전공분야인 신경외과로 마음을 굳히자 그의 기뻐하는 모습은 대단한 것이었다.

1974년 9월말, 당시 중공 봄을 타고 한창 떠들썩하였던 ‘세계침술학회’ 연수회가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원래가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김박사이기



▲ 고 김원묵 박사의 묘비명

도 했지만, 평소 한의학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그였는지라 침술학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십여 명의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 나라 의사로는 유일하게 김박사 혼자뿐이었다.

모두 6주 과정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첫 비행기로 상경하여 경희대학교와 가장 가까운 청량리 대왕빌딩 내 브라운 호텔에 숙소를 정했다가 토요일 오전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내려와 병원 일을 보곤 했다.

앞으로 일주일쯤의 마지막 기간을 남겨놓은 11월 2일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즉시 가방을 챙겨들고 공항으로 달려갔을 것인데, 마침 부산에 거주하는 친구 이씨가 찾아왔다. 이씨는 평양 광성중학 동기 동창으로 가장 가깝게 지내던, 말하자면 죽마고우라 할 수 있는 분이었다.

마침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있어 비자 신청차 상경했던 것인데 외무부에 김박사가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의논 차 찾아온 것이었다. 같이 외무부로 갔으나 이미 토요일 업무마감이 되어 하는 수 없이 월요일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었다.

이때 친구가 김박사를 종용했다. 월요일에 혼자 들어가 일해낼 자신이 없으니 같이 서울에 머물렀다가 월요일 오전 일찌감치 일을 좀 봐 달라는 부탁이었다.

김박사로서는 부산의 병원 일도 난감했지만 죽마고우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승낙을 하고는 토요일 하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 의학계의 이런저런 대화로 시간을 보내고 밤 늦게서야 단골 숙소였던 브라운 호텔을 찾았다.

바로 그 날밤 대왕코너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속출했고, 그 명단에는 김원묵 박사의 이름도 올라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박사의 마지막 행적이고 우리 모두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기도 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운 인정의 화신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이들은 안

타까움에 슬픔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평생을 함께 하자던 남편 김원묵 박사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버린 후 석신덕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문밖으로 나설 힘조차 없었다. 믿어지지가,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석신덕 여사는 차라리 남편을 따라 세상을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봉생병원이었다. 남편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봉생병원이 김원묵 박사의 타계로 인해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게 된 것이다.

봉생 병원을 지키기 위한 석신덕 회장의 노력

석신덕 여사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계속 빠져있을 수 없었다.

‘병원이 이대로 문닫는다면, 저 세상에서 다시 남편을 만났을 때 무어라 말해야 할까. 너무 힘겨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이가 어떻게 만든 병원인데, 내가 지켜나가야만 해’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룩한 봉생, 남편의 유업을 계



▲ 1984년 병원신축 기공식

속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석신덕 여사는 병원 운영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여장부로 소문났던 석신덕 여사는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던 사위 정의화가 전문의가 되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봉생병원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침식도 잊은 채 불철주야로 병원 일에 매달렸다.

많은 이들이 병원을 탐내었다. 범인으로 만들어 지분을 가르자는 이야기, 봉생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해 줄 터이니 복지재단에 기증하라는 제안, 대학에 병원을 팔라는 유혹 등 등. 하지만 석신덕 여사는 그 어느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봉생은 단순한 재산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와 남편의 모든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의사도 아닌, 그저 한 여자의 몸으로 풍전등화의 병원을 운영하기란 너무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엄격한 경영자로서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모든 직원들을 이끌어갔다.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봉생이념을 마음의 기둥으로 삼아 결코 혼들림 없이 꾹꼿한 모습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갔던 것이다.

석신덕 회장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봉생병원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갔다. 그녀를 믿었던

직원들의 단결된 모습과 봉생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 의 애정 어린 마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 시절 석신덕 회장을 찾으려면 병원 현관이 바로 보이는 약국으로 가면 되었다. 항상 약국 창구에 앉아서 들고 나는 환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응급환자가 오면 달려나가 부축해주거나 수속을 밟아주곤 했던 그녀. 밤이 깊어지면 잠 못 자고 고생하는 당직 직원들을 위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며, 국수를 직접 만들어주었던 석신덕 회장은 한달에 한번씩 식당에 전직원들을 모이게 하고는 그 달이 생일인 직원들에게 생일축하잔치를 열어주곤 했다. 현재 의무 기록실 자리에 위치해있던 그때 병원 식당은 평소에는 직원식당으로, 행사시에는 강당으로, 연말이면 송년회 연회장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병원이 다시 성장궤도로 접어들게 되자, 그녀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주력을 다하게 된다. 북이 고향이던 실향민의 외로움을 남편과 함께 달래곤 했던 그녀, 평소 남편과 항상 다짐했던 ‘나보다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던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석신덕 회장의 복지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하면 바로 병원 앞 육교 건설을 꼽을 수 있다.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석신덕 회장은 사비 4천 3백 89만원을 들여 1980년 12월 병원 앞에 육교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석신덕 회장이 만든 그 육교로 인해 이후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도 한결 편리해졌다.

평생 비싼 옷 한 벌 사 입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았던 그녀. 평소 지병이었던 당뇨 때문에 미국에 와서 치료하라는 언니 소니아석의 초청에도 ‘부산에서 세금 1위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석신덕 회장.

모두가 구두쇠라고 생각했던 석신덕 회장은 그렇게 알뜰히 아껴 모은 재산을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선뜻 내놓았던 것이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항상 나누는 삶을 강조하시던 어머니의 교훈과 남편의 생활철학이던 봉생이념을 그녀는 이



▲ 1981년 개최한 제1회 경로위안잔치에서 지역노인들과 흥겨운 한때

령게 승화시켜나갔다.

1981년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위 정의화 원장이 선진의학연구를 마치고 봉생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제서야 그녀는 한시름 마음을 놓고 조금씩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엄마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평생을 함께 가는 스타일이었죠. 제가 어릴 적에는 외동딸이라 귀하게 키우면 버릇 나빠진다고 응석 한번 안 받아주시며, 일부러 더욱 엄하게 대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크고 나니까, 엄만 친구처럼 대해주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곤 했어요. 그 때야 엄마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후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함흥냉면이나 쟁반을 먹으려, 둘이 함께 시내에 나가 데이트도 즐기고 그랬던 기억이 남아요” 그랬다. 이제 석신덕 여사에게 딸 낸시는 둘도 없는 애인이었고, 다정한 친구였다.

그간 병원 운영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석신덕 회장은 지병이었던 당뇨가 심해지면서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나빠지게 되었다. 너무 오래 방치해두었던 탓에 중세는 아주 심각했다. 석신덕 회장은 신장 부문을 제일 잘 본다는 이시래 박사가 있는 고신대 병원에서 투석을 받기에 이르렀다. 훗날 봉생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시래 박사와의 인연은 이처럼 환자와 담당의사로서의 첫 만남이 그 시작이었다. 1985년 종합병원 승격과 함께 내과가 새로 개설되자, 석신덕 회장은 그때부터 자신의 병원인 봉생에서 당뇨 치료와 혈액 투석을 받게 된다.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도 석신덕 회장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활동은 그칠 줄 몰랐다. 여러 양로원들을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1981년에는 경로의 달을 맞아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병원으로 초대해 제 1회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자기 자신은 술도 못 마시고, 잘 놀지도 못하지만, 다른 이들의 흥을 돋구고 즐겁게 노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하던 석신덕 여사. 그녀는 이후 매년 5월이면 병원 옥상의 넓은 공간에 넉넉한 음식과 흥겨운 여흥거리를 준비해 지역거주노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녀는 또한 팔각회, 성지회, 구정자문위원, 적십자봉사단, 올림픽추진위원회, 평통자문위원회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평생을 동분서주하며 사회봉사에 헌신했다.

그녀의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봉생은 지역민들의 한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면서 결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지역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봉생의 설립자인 남편, 김원묵 박사의 타계 이후 봉생을 지켜나간 석신덕 회장의 노력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아침마다 ELS 영어학원으로 향했던 석신덕 회장은 언제나 긴장된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위한 자기 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함께 수업을 듣던 클래스 메이트들은 그녀를 참 좋아했다. 그녀가 결석이라도 한 날에는 항상 전화가 오곤 했다. 왜 수업에 빠졌냐고, 내일은 꼭 나오라는 전갈이었다. 좌중 분위기도 잘 맞출뿐더러,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그녀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학생이었다.

그리운 남편의 곁으로 떠난 석신덕 회장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던 조카 장기열씨가 잠시 업무차 귀국했다. 오랜만의 회포를 풀기 위해 온 가족들이 모여 파라다이스 호텔 중국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궁금했던 친척들의 안부를



▲ 1989년 고 석신덕 회장의 영결식

물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그녀는 그 날 따라 기침이 심했고 몸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병원에 돌아가서 진료를 받고 투석하자는 가족들의 권유에도 그녀는 괜찮다며 그냥 참고 말았다.

“이 밤에 투석을 하면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잖니. 좀 참았다가 내일 아침에 하지 뭐”

밤새 고통 속에서 뒤척이던 석신덕 회장은 다음날 아침 인공신장실로 향했다. 투석 중 상태가 너무 악화되자, 급히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는 의사들의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딸 낸시와 사위의 두 손을 꼭 잡은 채 임종을 맞이하였다. 마지막 까지 딸의 행복과 봉생의 미래를 부탁하면서 눈을 감은 석신덕 여사.

“내가 죽으면 절대 부조금 받지 마라.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부담을 주면 안돼. 장례식도 아주 간소하게 해야 한다”

평소 석신덕 회장이 당부해왔던 말대로 그녀의 장례식은 부조금도 사양한 채 조촐하게 치뤄졌다. 그날 그녀를 잊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그녀를 먼 길로 떠나보내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여인으로서 평범한 길을 걸어가면서 일신의 안락과 행복을 구하려했으면 그 누구보다도 유복했을 그녀, 하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도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온 석신덕 회장. 남보다 많은 부를 쌓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다. 오로지 봉생을 지키고 홀륭하게 발전시켜 먼저 떠난 남편의 유지를 따르고자 했던 마음 하나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의학계의 거목이었던 김원묵 박사와 평생의 반려자 석신덕 회장.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몸과 마음 아낌없이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봉생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봉생과 함께 살아 영원히 빛날 이들의 고귀한 인품과 업적 앞에 삼가 명복을 빌어 마지 않는다.

고 김원묵 박사 약력

1941. 3. 평양 광성중학교 졸업(5년제)
1942. 4. 평양 의학전문학교 입학
1947. 4. 동교 졸업
1949. 9. 봉생의원 개원
1950. 12. 육군 중위 임관(군의관)
1955. 12. 도미. WALTER RIED미육군병원 신경외과 근무
1956. 8. 귀국. 제3육군병원 신경외과과장 보직 후
동병원 외과부장, 부원장 및 병원장 역임
1956. 9. 봉생신경외과 개원
1960. 4.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학
1963. 4. 동교 수료
1963. 7.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합격
1964. 2. 의학박사 학위취득(연세대학교제57호)
1964. 4. 연세의대 신경외과 외래 조교수
1965. 4. 연세의대 신경외과 외래 부교수
1967. 9. 육군 대령으로 예편
1968. 4. 연세대학교 신경외과 외래교수
1970. 대한신경외과 학회 회장 역임
1972. 11. 미국 LOS ANGELES FOUNDATION OF OTOLOGY에서
현미경 수술법 신경외과 과정이수
1974. 11. 1. 경희대학교 국제침술연수회 수료
1974. 11. 3. 타계

제2부

정의화 의료원장의 끊임없는 봉사 여정

| 정의화가 걸어온 길

쉼없는 항해 그리고 새로운 꿈

천자봉 아래서 꿈을 키우던 웅천 땃골 소년

정의화원장이 태어난 창원군 웅동면 소사리는 앞 으로는 호수처럼 잔잔한 진해만의 쪽빛 바다가 넘실 대고, 뒤로는 우뚝 솟은 천자봉이 당당하게 그 위용 을 뽐내는 반농반어의 작은 시골 마을이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전 설이 서려 있는 천자봉에서 시원하게 내려 온 산줄 기가 두 팔을 벌려 마을을 아늑하게 품에 안고 있는 듯한 곳. 인심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신명이 살아있는 곳이다.

취해 동짓(취)달 한밤중 취시. 그러니까 양력으로 1948년 12월 18일 상오 0시 15분. 경남 진해시 웅동1동 소사12번지 웅동고등공민학교에 딸린 교장 사택에서 윤자 호자 아버님의 차남으로 그는 태어났다. 하루에 걸친 긴 진통 끝에 태어난 그의 탯줄은 아버지인 정윤호선생이 직접 끊었다고 한다.

의화(義和)라는 이름은 할아버지 초산(樵山) 정순용(鄭純鎔) 선생이 지어 준 것이다.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정의화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해방 후 귀국하여 당시 마산 양덕동에서 한의사

일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어렵게도 그가 태어난 지 사흘만에 돌아가셨다.

꼿꼿한 선비 집안

할아버지인 정순용선생은 김해군 가산리 약 300석 지기 대농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약관의 나이인 16세에 밀양 영남루에서 치뤄진 영남 과거시험에서 장원을 한 한학자이며, 스무 살 때 경남 양산군수로 제수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단발령을 거부하고 군수자리조차 버리고 오지인 영산(靈山)으로 피신했다. 그는 지조를 중하게 여기는 선비였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인재 양성이야말로 훗날 나라를 되찾는 길임을 선각하고 일찍부터 김해 대동면 주중리에서 서당을 열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의학을 익혀 널리 인술을 펴기도 한 분이었다.

정씨의 본관은 문현에 210본에서 247본 정도가 나와 있으나 오늘날 현존하는 본관은 30여 본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정씨의 원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신라의 6촌 중 취산 진지촌의 촌장인 지백호

(智伯虎) 선조이시다. 오늘날 정씨의 각 본관별 시조들은 모두 지백호의 원손(遠孫)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혈연적 계보는 상고할 수 없다. 어쨌든 정씨는 같은 혈손이라 할 수 있다. 정씨는 신라 9성(姓) 중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명별(名閥)의 지위를 누려왔으며, 특히 고려조에 이르러서는 영일 정씨를 으뜸으로 동래 정씨, 청주 정씨, 온양 정씨, 진주 정씨 등이 상당한 세력을 떨쳤다고 한다.

영일 정씨는 고려 예종 때 문과에 등거하여 추밀원 지진사(知秦事)를 지냈던 습명으로부터 시작된다.

11대가 고려말 충신으로 문하시중까지 지낸 그 유명한 포은 정몽주 선생이다. 명문가로서 통정대부, 호조참판 등이 나왔으며, 19대 윤(倫)자 때 김해로 입향하게 된다.

할아버지인 순(純)자, 용(鎔)자는 28대, 아버지인 운(勛)자 호(灝)자는 29대, 정의화원장은 30대손이 된다.

정윤호선생은 1922년 음력 5월 24일 경남 김해군 가락면 대저리 서당에서 정순용선생과 창원 황씨 가문의 황금홍여사 사이에 6남으로 태어났다.

천재로 불리웠던 정윤호선생

정윤호선생은 여섯 살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다, 아홉 살이 되던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과를 졸업한 수재였다. 초등학교에서 야간 상업고등학교 때까지, 지금으로 치면 미술과 음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를 받아 주위에서는 천재로 불리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동경 제1고보를 다니다 폐결핵으로 휴학하고, 다음해부터 야간상고를 다니면서 낮에는 부친의 한약방 일을 도왔다고 했다.

1944년 사법고등전형고시에 합격하여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시보로 임관까지 했지만, 1945년 한국이 독립되므로 일본국민으로 귀화하라는 사법부 동료들의 권고도 뿐리치고 사직한 후 첫 아이를 임신 중인 19세 어린 신부와 함께 귀국하였다. 초대 서울시장을 지낸 당시 와세다대학 출신의 김상돈 선생의 ‘해방된 조국에 정군같은 유능한 젊은이가 필요하니 함께 귀국하자.’는 권고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조국은 독립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서울 마포형무소 임시소장, 미현병대 통역관 등을 지내면서 법관으로 복직 권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죄인들과 살기보다는 후학을 키워야 한다는 뜻을 품고 정윤호선생은 처가가 있는 창원군 웅동면 소사리로 이주해 마침내 1946년 웅동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웅동면 소사는 정의화원장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자란 고향으로 그 곳에서 화축을 밟힌 두 분이 이순희여사를 낳은 곳이며, 훗날 정의화원장과 동생 철화, 여동생 순애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웅동면은 해방 당시는 경상남도 창원군에 속해 있었으나, 이후 의창군으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진해시로 편입되어서 웅동 1, 2동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은 옛날부터 ‘웅천 땃골’이라 불리던 산간벽지농촌이었다. 그러나 문화수준은 매우 높아서 ‘벙어리도 3년이면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일제 때에는 사립 계광학교가 있었으나 이전까지는 정식 중학교를 설립할 수 없을 정도의 빈촌이라 뜻은 있어도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정윤호 선생이 웅동중학교를 설립하니 웅천면, 천가면, 녹산면, 장유면 그리고 웅동면 일대 학생들이 취학을 하게 되었다.

1955년 정윤호선생은 부산시 중구에 소재한 건국중



▲ 1971년 설날 가족과 함께

학교 교장 및 건국대학숙 강사에 임명됨에 따라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슬하에 3남1녀를 두었으므로 자식들의 교육문제가 이사를 하게된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

정윤호선생은 부산 건국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1959년 당시 교육계의 부조리에 혐오를 느끼고 교육계를 떠난 이후, 선친의 유업인 한약방을 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년 의화와 꿈을 키워 나갔던 학창시절

어릴 때 밀가루 음식을 하도 좋아해서 한때 빵집에 장가가겠다고 우겼던 소년 의화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웅동 골짜기에서 뒹굴며 자라났다. 개천에서 물장난 치다 지치면 바위 위에 벌거숭이 그대로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꿈을 키웠던 그 시절. 제 마을은 제쳐두고 옆 마을 뒷동산에 탐스럽게 영글은 밤나무를 서리하던 개구쟁이였다. 회충이 많았던 시절이라 황토로 쌓은 담장의 흙을 파내어 먹으면서 뺨갛게 변한 입 주위를 쳐다보며 서로 깔깔 웃었던 가슴 환한 시절이었다.

돌이 지나자마자 의사호열자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사흘 밤낮을 설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아 마음을 쓰고 있는데, 부친의 꿈에 친할아버지가 현몽을 했다는 것이다.

“야. 이놈아. 아이에게 약을 안 해 먹이고, 왜 이리 고생을 시키느냐. 인삼 서 돈에 찹쌀 한 숟가락 봇고 대추를 썰어 고아서 그 물을 먹여라.”

꿈을 꾸고 난 뒤 부친은 현몽에서 들은 대로 약재를 구해 고아 먹였더니 설사가 그쳤는데, 완전히 낫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한다. 그 뒤로 디스크로 고생하기까지는 잔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신났던 것은 집안의 잔칫날이나,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사리 벚꽃장이 서던 날이었다고 한다. 4월 벚꽃이 만개할 때면 장구에 맞춰 신나게 어깨춤을 추는 친척들의 신명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흥이 났고, 지금도 장구에 팽과리만 있어도 어깨를 절로 덩실거리는 벼룩은 그때 얻은 신명 덕분이라고. 술 한두 잔을 걸친 뒤에 결눈질로 배운 학춤을 추는 것도 그 신명의 텏줄이 이어진 것이 아닐까.

웅동국민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다닌 후 여름방학 때 소년 의화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동구 수정동 385번지. 수정 1동 성분도 병원 옆 개천가 저지대 골목의 2층집이었다.

중앙초등학교로 전학한 그는 성품이 유순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예의바른 소년이었다고 한다. 심성이 여리고 착한 탓인 지 전학을 온 직후에 ‘시골서 전학 온 촌놈’이라고 심지어 여학생에게까지 손찌검을 당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와서 형에게 일러바치면 ‘우째 가시나한테 다 맞고 들어오노?’ 라며 되레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고.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거의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던 소년 의화는 1961년 부산중학교에 입학했다. 부산중학교는 말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부산경남 일대의 내노라 하는 수재들만 들어가는 명문이었다.

열다섯 살이 되던 중학교 2학년 때 정윤호선생은 첫째인 현화, 둘째인 의화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소재 중조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를 참배하게 했다. 살을 에이는 영하 12도의 혹한 속에서 포은 선생의 영당과 영정, 위패를 참배한 소년 의화는 영정을 보면서 자신이 포은 선생을 많이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훗날에 안 사실이지만, 포은 선생은



▲ 사진예술에 깊이 빠졌던 학창시절

12월 무자일에 태어나셨는데, 그가 태어난 날도 12월 쥐날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일까. 그는 어릴 때부터 포은조와 같이 훌륭한 삶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많다고 한다. 아무튼 이 날 소년의 가슴에는 왕조가 뒤바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충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선조의 모습이 깊이 박히게 되었다. 이것이 훗날 정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천직인 의업을 떨치고 정치일선에 나가게 되는 단초가 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정윤호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삶이란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고, 결코 편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생을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라는 부친의 가르침은 환자를 보거나 수술을 하기 전에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환자진료에 있어서도 두 번 점검(Double Checking)과 확신(Make Sure)을 해야만 안심이 되는 신경외과의사로서의 습성을 어릴 적부터 가다듬은 계기가 됐던 것이다.

중학교 때는 보이스카웃 소년단원으로 입단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간 활동을 하였다. 소년단의 슬로건은 1일1선이었고, 그것을 실천해 내면서 배운 것은 봉사·박애·희생정신이었다. 비록 소년단의 표어였지만 어린 시절에 큰 가르침이 되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부산중학교를 비교적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 곧바로 부산경남의 최고 명문인 부산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고교시절에는 학업에 열중하는 한편으로 야구, 축구 등 운동을 즐겼다.

사진예술과 만나다

그의 삶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을 들라고 하면 사진예술을 빼놓을 수 없다. 사진예술에 몰두하게 된 것은 고교 2학년 때 형이 권유한 것이 시발점이 된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사진예술에도 뚝 빠졌다고 한다. 사진에 심취해 있을 때 그는 카메라를 자신의 몸보다 소중히 여겼다. 삶의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예술의 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던 중이었기에, 사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카메라의 소중함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카메라를

소중하게 다뤘는가를 잘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였다고 한다. 비선대를 오르며 설악산의 숨겨진 비경을 카메라에 담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게 되었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채 3-4미터 가량 밑으로 급히 미끄러져내려갔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카메라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카메라 든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한 손으로 바위를 긁고 있었다. 다행히 낭떠러지 바로 중간쯤에서 멈추었다. 아래는 수십 미터의 계곡이 이어지고 있었다. 쳐다보니 정말 아찔했다고 한다. 삶과 죽음이 바로 한 치 앞에서 결정됐던 것이다. 깜빡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바위 옆 나무가 몇 그루 있는 안전한 곳으로 둘러서 와 그를 부축했다. 오른쪽 발목을



▲ 대학시절 국제신문 어린이날 사진전 특선 작품 <정숙>

심하게 다치고, 바위를 긁은 왼손가락이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카메라를 무사히 지켜낸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고 한다.

의사의 길로 들어서다

의가(醫家)를 이루려는 부친의 뜻에 따라 그는 1967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간다.

의예과 2년 동안 까다로운 의학공부는 물론 사진이나 독서 등 좋아하는 분야에도 열중했다. 그 또래들이 흔히 겪는 이성문제로 고민도 해 보았고, 사진에 깊이 몰두하기도 했으며 쇼펜하우어, 앙드레 지드, 헤르만 헤세의 책들을 읽고 그들의 사상에 심취하였다. 당시 탐독했던 데칸쇼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 중에서도 특히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에 흠뻑 매료됐다.

의예과 시절에는 부산대학보 1면 담당 및 사진기자를 했다. 학보사 기자 생활은 우리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한편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안목을 길러주었고, 훗날 봉생병원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부산대학 의예과 2학년 때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을 겪게 된다. 의예과 단짝이었던 송태형(현 새동래 정신병원장)의 권유로 함께 합기도를 배우던 중 일어난 일이었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서너 번 영주 터널 인근의 서부극장 뒤 합기도 도장에 가서 열심히 합기도를 익히던 중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구



▲ 1973년말 세브란스 인턴 시절

기종목으로 단련되어 허리가 유연했던 터라 머리 위로 발목이 쉽게 올라갈 정도는 된 그는 특히 족수연습을 많이 했는데, 연습 도중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동시에 매트에 쓰러지듯이 누워 버렸고, 허리의 심한 경직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놀란 관장과 친구가 달려와서 지압과 마사지를 해주었으나, 한참을 누워 진땀을 흘리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때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16인승쯤 되는 합승버스가 다녔는데, 초량역 앞에서 겨우 버스에서 내려 거의 기다시피 하여 집에 도착하였다. 부모님께 아프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갔으나, 허리가 뻣뻣해서 양말과 바지를 벗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짤끔짤끔 눈물까지 흘려야 했다고. 이것이 급성디스크(추간판탈출증)라는 것을 안 것은 3년 뒤 본과에서 신경외과 임상학을 배우면서였다고 한다.

다음날에야 둘째가 몹시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린 부친이 좌골신경통인 모양이라고 진단하고 한약을 지어 주셨으나, 고통은 계속되었고 그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한약을 복용해야만 했다.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허리라서 그런지 쉽사리 완치되지 않았다. 좋아하던 야구를 비롯해 다른 운동도 일체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합기도를 배우다 다친 허리는 결국 한약에만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만성디스크로 진전되었다. 이 때문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누워서 공부하는 새로운 버릇이 생기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허리를 크게 굽히기 어렵고 방바닥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한다. 적게는 서너 시간에서 길게는 열 시간이 넘는 수술도 서서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선 채로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 는 몇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의자에 앓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한다.

디스크로 고통스런 학창시절이었지만 의예과 때 부산대학 사진예술연구회 총무로 활동한 쟁이 기질은 본과에 가서도 그를 가만있게 만들지 않았다. 본과 1학년이 되자마자 부산의대 사진부를 창립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2학년 때는 회장을 맡아 많은 학우들을 사진의 오묘한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 시절 스무 작품 이상이 각 콘테스트에 입선 및 입상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68년 국제신문 어린이날 사진전에서 중구 소재 중앙성당에서 촬영한 '정숙'이라는 작품으로 특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한국일보 주최의 한국국제싸롱에는 자갈치시장에 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를 찍은 <어머니>라는 작품으로 입선했고, 개천예술제에서 가작을 하는 등 각종 사진전을 휩쓸다시피 했다.

이 시기에 입선한 사진전과 작품명을 살펴보면 국제신문 어린이사진콘테스트 특선 <정숙>, 돌샘사진전 가작 <영성체>, 동아대학 대학생 사진촬영콘테스트 준특선 <송추의 여심>, 전국대학생 사진콘테스트 입선 <열중> <농장의 가족>, 대구매일신문 제 15회 어린이사진전 입선 <눈밭 속의 동심들>, 제1회 전국 대학미전 입선 <강행군>, 71년 한국사진연감 수록 <귀로>, 69년 국제신문 어린이사진콘테스트 입선 <승리> <눈오는 날> <두 소년> <상인의 딸>, 부산-블라디보스톡 교환사진전 출품 <공원의 두 노인> 등이다.

그가 카메라 앵글에 포착한 피사체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통과 한숨, 슬픔과 한이 렌즈를 통해 그의 혈관으로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사진부 지도교수였던 정인성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최민식 선생의 작품을 본 뒤로는 그 분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한다. 궁핍한 생활에 짚들어 깊이 패인 주름살, 흙먼지가 일만큼 꽉꽉한 가슴에 파놓은 그 우물의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있는 서민들의 시름을 보면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도 언젠가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디스크 수술을 받다

허리디스크는 세브란스병원 인턴 시절에 더욱 악화되어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3년 12월 1일의 일이었다.

콜을 받아 응급환자를 수술실로 데리고 간 것까지

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마취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의 몸체를 수술대에 들어올리다 허리를 빼끗한 것이었다.

순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텔썩 주저앉아 버린 그의 모습에 놀란 마취간호사가 황급히 이리저리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달려 온 간호사와 동료의사들의 도움으로 겨우 스트레치카에 오를 수 있었다. 곧바로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훗날 봉생병원의 병원장도 지낸 바 있는 고 김수휴(당시 신경외과 레지던트 3년차) 선생이 직접 척추조영술을 했다. 검사 결과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는 진단이 나왔고,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신경외과 주임교수이며 훗날 은사가 된 이현재교수의 집도 하에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3주일간이나 병상생활을 해야 했다. 한창 바쁜 와중에 누워 있어야 했으니 대신 근무를 해야 하는 동료인턴들의 고생이 심했음을 물론이다.

디스크 수술로 인해 1974년 3월 신체검사에서 무종판결을 받았다. 무종 판결을 받으면 다음 해에 또 다시 신검을 받아야 했으므로 75년 3월 대구군의학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 수술 후유증으로 허리의 운동장애가 심하다는 진단이 나와 최종적으로 병종 판결을 받아 군 입대를 면제받게 되었다.

만약에 그때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 군 복무를 하게 되었더라면 봉생과의 인연은 결코 맺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5년간이나 고통을 준 요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인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어쩌면 예과 2학년 말에 생겼던 디스크 질환 또한 운명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1974년 2월 말, 세브란스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채 완쾌도 되기 전이었다. 그는 내의와 책 몇 권이 든 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 중앙고속버스편으로 서울에서 전주로 향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신경외과 수련의로 다시 출발하는 날이었다. 전주 예수병원에는 네 사람이 각 3개 월씩 파견근무를 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행정적으로는 전주예수병원 T.O였으므로, 첫 순서로 3월 1일부터 첫 3개월간 전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었다.

죽음이 맺어준 인연

그가 봉생과 인연을 맺은 것은 외5촌 아저씨의 죽음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윤호선생과 김원묵 박사는 1960년 중부산로타리클럽 회원으로 안면을 튼 뒤,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차 서로의 인품을 존경하고 우정을 쌓아 가고 있었다. 그 즈음 정윤호 선생의 친척 중 한 분이 당시의 봉생신경외과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아 퇴원을 앞두고 있을 때 불행히도 그 분과 문병 온 친척 어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입원실은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방이었다.

이 사고는 봉생병원의 명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악재였다. 자칫하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정윤호선생은 평소 김원묵 박사의 인품을 존경해왔던 터라 앞에 나서서 수습을 하셨다. 정윤호선생의 덕망을 믿었던 친척들은 연탄을 사용하는 불편한 입원실의 조건을 이해하고 원만한 수습에 임해주었다. 두 분의 우정과 신뢰는 이 일로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고관아저씨로 부르면서 따르던 외 5촌 아저씨의 죽음으로 중학교 2학년이던 그는 이 때 처음으로 봉생병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외가 쪽으로 5촌 아저씨였지만 어머니의 형제분들이 모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친형제 보

다 더 가까웠다. 아저씨는 수정동 고관 입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셨으므로, '고관 외삼촌' 하며 많이 따랐다.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아저씨가 창출간에 돌아가셨으니 슬픔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봉생병원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으니 인연치고는 참 이상한 인연이었다.

그 인연이 두 가족을 친척처럼 가까이 만들었고, 그가 봉생신경외과병원의 외동딸을 결국 아내로 삼는 계기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아내와 첫 만남

김원묵 박사는 키 180센티의 틈직한 청년 의사 정의화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그가 김낸시양을 아내로 맞기 전에 두 번의 맞선을 주선했을 정도였다. 나중에 장인이 된 김 박사가 맞선을 주선했으니 인생이란 참 불가사의하지 않은가.

1972년 9월 초, 그 해 2월 성모여고를 졸업한 김 박사의 무남독녀 김낸시 양은 미국에서 6개월간의 어학과정을 마치고 일시 귀국했다. 그녀는 9월부터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상대 경영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미국은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 장기간 유학생활을 떠나야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김 박사는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정윤호선생의 가족을 초청했다. 지금은 문을 닫은 해운대 극동호텔 중국관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정의화군은 본과 4학년으로 미국의사시험(E.C.F.M.G)에 합격한 뒤 조금은 느긋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식사를 마친 양가 식구들은 해운대 백사장 옆 도로를 산책을 나갔다. 그는 메고 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김낸시 양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식사를 할 때는 늦게 도착한 데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계신 자리여서 스쳐가듯 보았기 때문이다.

첫인상의 느낌은 뭐라 표현할까. 정말 참하고 순수하다라고 할까. 아니면 소녀 같은 귀여운 인상이라 할까. 아무튼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첫인상은 화인(火印)처럼 가슴에 깊이 새겨



▲ 1972년 9월초 해운대에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

겼다고 한다.

그녀와 다시 조우하게 된 것은 편지를 통해서였다.

그 해 연말쯤이었다. 미국의 외국 의사에 대한 정책이 3, 4년후면 바뀐다는 정보가 나돌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대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의과대를 졸업한 후 군복무가 끝나면 바로 미국에 건너가 선진의료지식을 배우고 싶었던 게 그의 꿈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 디스크로 고생한 지는 4년이 되었지만 그런 대로 견딜 만 했으므로, 당시만 해도 디스크로 군대에 가지 못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때였다. 그는 결례를 무릅쓰고 김 박사께 청을 넣었다.

김 박사의 동서 중에는 일본인 2세로 미국 신경외과 의사로 있는 「나루세」박사라는 분이 있었다. 김 박사는 미국에 유학 중인 낸시 양에게 「나루세」박사를 통해 사정을 알아보라고 편지를 했는데, 정윤호 선생을 통해 낸시 양의 답신을 받아 보게 된 것이다. 깨알처럼 쓰여진 편지에는 성의를 다해 알아본 흔적이 진하게 배여 있었다. 이역만리 머나먼 땅에서 애를 썼을 낸시 양을 생각하니 너무 고마와 그녀에게 감사의 편지를 동봉해 보냈다.

이를 계기로 서로를 격려하는 편지를 9개월 가까이 주고받았다.

이렇게 편지가 오고 간 것이 서로의 사랑을 쌓는 시작이었을까. 편지를 통해 낸시양은 유학생 활동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그 또한 그때 부산을 떠나 객지인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혹독한 인턴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 있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아니면 첫 만남에서 받았던 좋은 인상이 서로를 끌었던 것일까. 젊은 그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틈이 나는 대로 서신을 나누었다.

1973년 여름이 시작되기 전 그에게 낸시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다.

…남가주대학과 이화여대는 서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귀국해서 두 달 정도 이화여대 썸머스쿨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6월 말부터 이화여대 기숙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가 세브란스병원 인턴의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홍익대 앞에 있는 형님의 서교 아파트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와 제일 병원 산부인과 헤지던트로 근무하던 형님 부부는 마침 전라북도 남원 근처로 6개월간 무의총 근무를 떠나 있었다.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인턴의 처지인지라 더부살이라 해봐야 주말에 한 번씩 들어가 세탁이나 하는 정도였다. 그때 재일교포인 친척 여동생 정무자(현 서울 제일병원 마취과장 부인)가 일본에서 나와 이화여대 음대 성악과에 다니고 있었다. 우연찮게 그 해 여름에 피아노 특별레슨을 받는다고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것. 그녀는 부지런하게도 일주일만에 귀가하는 그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었다.

낸시와의 재회와 청혼

7월 초 토요일. 그는 마침 월급날도 되고 해서 그 동안 빨래 신세를 많이 진 친척여동생에게 오랜만에 한 턱을 내기로 하고, 이화여대 앞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이화여대 앞 정류소에서 내려 약속장소로 가던 중 덩치 큰 미국인 두 사람과 자그마한 한국 여자가 앞에서 걸어왔다.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혹시 낸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사람은 성큼성큼 다가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서 있었다. 한 걸음씩 다가오는 세 사람 중에 여자는 분명 낸시였다.

미국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그녀에게 식사가 끝나는 대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교제를 할만큼 발전한 관계도 아니었다. 낸시는 다섯 살이나 어려서 그때까지 그저 여동생 같은 느낌뿐이었다. 그날 이후 낸시와 재일교포 친척 여동생 무자 그에게 세 사람은 주말마다 만났다. 낸시와 무자는 우연히도 동갑이었고, 그것이 두 사람을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었다. 또 모두들 객지생활을 하는 형편인지

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막연했던 그의 마음은 확실해졌다. 낸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함께 지내는 동안 비로소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썸머스쿨이 끝날 즈음 단둘이 데이트를 할 기회가 생겼다. 그는 자신의 집안과 가문,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 후 전격적으로 청혼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성으로서 서로를 아끼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8월말 여름휴가 기간을 택해 겸사겸사 부산으로 내려온 그는 김원묵 박사의 진료실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낸시양과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다.

신경외과학의 대가이자 봉생신경외과 원장인 분이다. 햇병아리 의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분이었지만, 낸시에 대한 사랑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알지 못할 용기를 얻고 있었다. 김 박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몇 초에 불과했지만 영겁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통통하면서도 포근한 김 박사의 손이 그의 손에 포개졌다. 그리고 인자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는 지금도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김 박사님의 타계 후 봉생병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그 따스하고 포근했던 두 손의 체온과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고인의 솔직한 심회가 큰 힘이 된 것이다.

결혼을 다짐한 상태에서 김낸시양은 9월초에 미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사흘이 멀다하고 편지로 사랑의 밀어를 나누었다.

이듬해인 1974년, 여름방학에 맞춰 귀국한 낸시양에게 의학군의 모친인 이순희여사는 당신이 끼고 있던 다이어몬드반지를 세공을 해서 약혼기념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7월에 휴가를 얻어 부산에 내려온 그에게 석신덕회장이 로렉스콤비 시계를 사서 손목에 손수 채워주었다. 안사돈 될 사람이 자기 딸에게 반지를 준 사실을 알고는 예물형식으로 시계를 선물한 것이다. 우리 아이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낸시양이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석신덕 여사였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무언지 모를 생각이 불현듯 들어 우선 그런 식으로 약혼이라도 기정사실로 해두고 싶었다고 뒷날 회고하였다. 약혼식도 없었고, 양가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은 그렇게 맺어졌다.

혼인신고를 하다

그 해 여름이 가고 10월 2일, 낸시양이 미국에 유학 중인 상태에서 양가의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 2일 김 박사가 갑자기 타계하자 주변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혼인신고를 하기 두 달여 전인 1974년 8월. 그는 간염수치가 2,000까지 올라가는 급성간염에 걸려 입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다. 어떤 일이든 손을 대면 혼신을 다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혹독한 전공의 수련과정에 몸을 사리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간염으로 입원해 있을 때 김원묵 박사는 경희대학에서 3개월 코스로 열리고 있던 세계침술연수회에



▲ 1976년 사랑하는 아내 낸시와 함께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었다.

김 박사는 일요일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가 연수를 받고 금요일 밤이 되면 부산으로 내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서울 청량리 대왕코너 빌딩에 있던 브라운호텔에 숙소를 정한 김 박사는 정의화군의 병간호를 위해 올라온 딸의 숙소를 바로 옆방에 구해 두었다. 그러나 9월 초 방학이 끝나 출국할 때까지 그녀는 2주일 동안 정의화군이 입원한 병실에서 침식을 같이 하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를 했다. 자신이 마련해 둔 호텔방도 마다하고 약혼자의 간병에 매달려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김박사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2주간이나 병실에서 침식을 함께 하지 않았는가. 청춘남녀에게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둘 사이를 확실하게 해두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는 간염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자 퇴원을 하고, 몸조리를 위해 2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9월 10일 경이었다. 아무래도 본가에서 몸조리를 하는 게 나을 듯 싶어 그는 부산으로 내려왔다.

부산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9월말의 어느 일요일, 김 박사가 수정동 본가로 불쑥 찾아왔다. ‘닥터 정과 낸시는 기왕 결혼할 사이니 혼인신고를 미리 해 두는 게 어떻겠나?’는 것이 아닌가.

간염으로 입원해 있을 때 간병을 자청한 낸시와 2주간이나 침식을 함께 한 사실이 김 박사의 마음에 두고두고 걸렸던 것일까. 그는 이미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약혼까지 한 터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김 박사는 정윤호선생에게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는 당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 혼인신고에 대한 문제를 사돈 될 정윤호선생께 일임해 놓고 김 박사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세계침술연수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다.

1974년 10월 2일. 정윤호선생은 김원묵 박사와 약속 한대로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혼을 먼저 하게 된 것이다.

청년의사에게 던져진 운명

1974년 11월 2일. 정의화군은 급성간염에서 회복되

어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던 중이었다. 지극히 평범한 그날에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우리 나라 신경외과의 거목 김원묵 박사의 타계.

김 박사는 세계침술연수회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은 후 부산으로 내려올 예정이었다. 침술연구를 하던 약 12주일 동안 서울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한번도 없었던 김 박사였다. 그런데 마침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 친구로부터 외무부 일을 좀 봐 달라는 청을 받고 서울에 머물러 있다가 대왕코너 화재의 참사에 희생된 것이었다. 그 주말, 꼭 수술을 해주어야 할 환자나 병원에 큰 일이 있었으면 부산에 오셨을 것이 아닌가. 운명은 이런 것일까?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다음날인 11월 3일 오전 7시경이었다.

간염치료를 위해 잠시 본가에 머물러 있었던 그는 부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큰일났다, 의화야. 사돈께서 변을 당하신 것 같다.’

청량리 대왕코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브라운 호텔 숙박 명단에 김 박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사망자 80여명, 부상자 다수.

그는 곧장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으로 달려갔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석신덕회장은 망연자실해 있었다.

‘건강하신 분이고, 어떤 사태에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분이니까 틀림없이 생존해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현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석회장을 안정시킨 후, 당시 원무과장인 김석철씨를 대동하여 오전 10시 비행기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각 병원에 분산 입원해 있는 부상자부터 확인했다. 돌아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다 누비고 다녀도 김 박사는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세브란스병원의 이현재 교수, 정상섭 교수, 김영수 선생, 최중언 선생, 김수희 선생, 도종웅 선생, 박상근 선생, 그리고 형인 정현화 선생 등이 소식을 듣고 뒤

늦게 달려왔다. 부상자들 중에서 김 박사를 찾아내지 못한 채 함께 각 병원의 영안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영안실을 찾아 해멘 지 다섯 시간여.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서울 고려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있는 김 박사의 시신과 유품을 찾아냈다.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생전의 유품만이 고인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타다 만 봉생병원 이름이 새겨진 서류봉투, 양복 안주머니 위에 붙어 있는 부산 광복동 김석창테일러 상표, 보수동 보스톤양화에서 맞춘 구두.

한국 신경외과학의 거목, 김원묵 박사. 큰 별이 떨어진 것이다. 장례는 오일장으로 결정했다. 미국에 있는 김낸시양이 귀국하는 시간을 고려해서였다. 그동안 정의화군이 상주로 빈소를 꼬박 지켰다.

장례방식에 대해서는 김 박사의 업적이나 사회적 공헌도를 고려해서 신경외과학회 학회장(學會葬)하자 광성중학교 학교장(學校葬)하자는 등의 의논들이 있었으나 결국 병원장(病院葬)으로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사흘 후 김낸시, 그녀가 도착했다. 무엇인가 단단히 각오를 한 듯 눈물도 보이지 않은 채, 이를 악문 굳은 표정으로 내실로 들어간 그녀는 시어머니가 손수 만든 소복으로 갈아입고 빈소로 나왔다.

분향을 하고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 그녀의 표정은 차라리 처연해 보였다. 도착해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단둘이 내실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지듯 안겨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깨의 들썩임이 조금씩 잦아지면서 마침 눈물을 그쳤다. 그는 그녀의 두 팔을 부여잡고 힘주어 말했다. ‘용기를 내요, 내가 있지 않소.’ 다시 빈소로 나온 그녀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김낸시양은 귀국하기 며칠 전에 받은 고인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봉함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대개는 떨자식들이 결혼문제로 부모 속을 많이 태

우는데, 너는 훌륭한 배필을 선택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었으니 효녀다. 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너와 의화군의 혼인신고를 했다….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없으면 분란이 생기는 법이었다. 신문지상에는 김 박사가 30억의 유산을 남겼다는 확인되지 않는 기사가 실렸고, 여기저기서 병원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병원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이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사위인 정의화군이었다. 석신덕 여사와 외동딸은 여자라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위는 아무래도 걸끄러웠던 것이다. 거기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만 했지 사실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었기에, 호사가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입방아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을 빌미로 미망인과 외동딸, 사위를 떼어놓기 위한 이간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기결혼, 정략결혼설이 가장 먼저 나왔고, 돈보고 장가갔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한 두 청춘남녀에게 이러한 뜬소문은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당시 정의화군이 받았던 상처와 고통과 비애는 의사로서의 정체성마저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와중에서 김원묵 박사와 함께 신경외과를 보던 부원장은 병원 전체 수익의 1/3을 주면 병원을 계속 살려나가 주겠다는 무리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

김 박사의 빈 자리는 너무나 컸다. 그러나 당장 그 자리를 메워줄 사람이 없었다. 정의화군은 아직 전공의에 불과했다. 자연 봉생병원은 극심한 공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직원 서넛만 모여도 앞으로 병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궁금해하며,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주위에서도 병원의 앞날을 두고 정체불명의 이런저런 소문들이 불거져 나왔다. 갑작스레 미망인이 되어버린 석신덕 여사와 외동딸인 김낸시양은 김 박사가 남기고 간 빈 자리의 크기 앞에 마냥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김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한 달 전인 10월 2일, 외동딸인 김낸시양과 2년 동안 교제해 오던 정의화군을 짹지어 놓지 않았더라면, 젊은 부부의 운명

은 그리고 봉생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의외로 집요하고 강력했다.

봉생병원에 주어진 두 가지 시나리오

그 당시 혼란에 빠진 병원을 두고 진행되었던 시나리오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의료법인의 설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산지역의 유수한 사학에서 인수추진이었다.

봉생신경외과병원은 잘 알다시피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 올 정도로 명성이 높았고, 그만큼 사업체로서도 부가가치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이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첫 시나리오인 의료법인 설립문제는 S 변호사가 상속세 면제를 미끼로 병원을 자기 손안에 넣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은 훗날 명명백백히 밝혀진다.

S 변호사와의 인연은 석신덕 회장의 언니인 쏘니아 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L.A에서 여결로 알려진 그녀는 고 육영수 여사와 친분이 있었다. 제부인 김원묵 박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시 귀국한 그녀는 상을 치룬 후 청와대를 방문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 봉생신경외과가 상속문제로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권력기관의 수장인 모씨가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가 S 변호사를 불러 도와줄 길을 찾아봐 달라고 했던 것이다. S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당시 서울 서소문동에 사무실을 내고 있었다.

S 변호사는 그 길로 봉생신경외과를 방문했다. 그의 계획은 김원묵 박사가 생전에 의료법인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법인설립서류가 완성된 것으로 하여 처리하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법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조서류를 만들어 상속세를 면해 보자는 것이었다.

S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직접 전해들은 정의화군은 단호하게 얘기했다. ‘저는 불법적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후에 법적인 문

제가 발생하면 직접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정희 출신 N 의원, 미국에서 온 석신덕 회장의 언니, 은사인 세브란스병원의 L 교수에게도 증인으로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의료법인체를 설립하려는 S 변호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S 변호사는 법인 설립을 차차 진행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정관을 만들고 이사장에 석신덕, 이사에 석신덕 여사의 친인척 몇몇을 선정하고 감사에 자신을 임명하였다. 그는 최종절차로써 마침내 석신덕 여사의 인감도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계획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석신덕 회장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법인 설립에 결정적인 이사장의 날인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어.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계단을 오르다가 ‘인감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된다.’는 말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거야.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법인 설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찬찬히 생각하게 되었지.

당시 우리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사람의 남편으로 부산시 경찰국 경제반에 근무 중이던 안진우(현재 정년퇴직)선생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

“석 여사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인감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됩니다.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진우 선생의 말을 되씹으며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S 변호사를 떠보기로 작정했어. 생각 끝에 법인체의 임원진에 대해 말을 꺼냈지.

“감사는 꼭 변호사님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 사위도 있는데…”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S 변호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감사를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위가 하면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S 변호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

‘감사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병원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 감사자리란 말이지. 그렇다면 차라리 생판 남인 변호사가 말아먹는 것보다야 사위가 말아 먹는 게 천 번 낫지.’

S 변호사는 말 한 마디로 자기의 속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셈이었지. 의사가 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사위가 아직 미덥지는 못했으나, S 변호사의 말은 나의 생각을 돌려놓았던 게야.

변호사 앞에서 한참 핸드백을 뒤지는 체 하던 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

“이걸 어쩌죠. 인감도장을 부산에 두고 왔네요. 김 박사가 돌아가신 후 정신이 없어서… 서류를 주시면 제가 도장을 찍어서 등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별 일은 없겠죠.”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고 나는 곧장 부산으로 돌아왔지.

김원묵 박사가 평생을 일궈놓은 봉생병원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석신덕회장이 보여준 순발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운명의 여신이 봉생병원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준 것일까?

의료법인 설립의 추진이 주춤하자 이번에는 부산의 모 사학재단에서 병원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대학에는 의과대학이 없었던 터라 부산경남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봉생병원을 인수함으로써 수의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자는 의도인 것 같았다.

이밖에도 당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던 고인과 동향인 평양 출신의 친구 한 분은 복지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는 말로 미망인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던 데에는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속세 때문이었다. 당시 3억 원은 지금 화폐가치로 따진다면 1백억 원이 넘을 엄청난 액수였다. 당시 병원의 재정상태로서는 상속세

를 내기 위해서는 병원 건물까지 매각해야 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석신덕회장은 사위의 끈질긴 설득으로 봉생병원을 상속받기로 결정하였다.

상속을 받기까지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은 지금은 해운대 세무서장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한 설찬수 선생으로, 당시 상속세를 취급하는 국세청 개인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설선생은 정의화군이 속해 있는 남광회의 같은 회원이었다. 평소 그 분의 강직함과 청렴한 처신에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던 그는 자연스레 봉생병원의 문제를 자주 의논했는데, 정말 천금같은 조언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한다. 설선생님의 요지는 ‘변호사들은 상법을 잘 모르는 수가 많다. 그런 식으로 의료법인을 만든다고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S변호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술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1975년 2월 26일. 마침내 상속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상속세를 3년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 덕분에 당시 동원 가능한 약 9천만 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간 연부 연납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

상속 결정이 난 며칠 후 봉생병원의 전직원이 식당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의화군은 ‘김 박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유업을 반드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3년 후 전문의가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봉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3월부터 맡은 직책이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 50%에서 최고 300%까지 파격적으로 인상됐다. 직원들에게 용기와 신념을 주려는 의도에서였다. 급여를 받은 직원들은 깜짝 놀랐고, 심지어 모 과장은 3배나 인상된 월급봉투를 받고 잘못 나온 것이 아닌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고 한다.

그가 내린 결정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더더구나 경영의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었다. 의학 공부만 한 젊은 풋

내기 의사가 내던진 승부수는 존폐의 위기에서 봉생을 굳게 뭉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순수한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불순한 생각은 끼여들 틈이 없었다. 아무튼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고, 그 결단이 결국 봉생을 견뎌내는 단초가 되었다.

파격적인 급여 인상을 하는 한편으로 봉생병원의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다. 구매와 경리의 분리, 그리고 원장과 진료부장의 직무 한계 설정이 요체였다. 부정의 소지가 개입되지 않게 서로 견제하는 설계였다.

석신덕 여사가 회장을 맡아 실제적인 경영을 했고, 전공의였던 정의화군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이면 부산에 내려와 병원을 점검하고 간부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브란스병원 전임강사로 있다가 오사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심재홍 박사가 봉생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정의화군에게 보냈다. 심재홍 박사가 봉생병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성을 다하는 심원장을 비롯한 봉생가족들의 노력으로 병원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김박사의 빈 자리가 차츰 채워지게 된 것이다. 그는 한결 훌기분한 마음으로 수련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수련의 시절

1975년 수련의 2년 차 시절 정의화원장은 전주예수병원에서 훗날 우리 나라 척추에 있어 최고권위자가 되는 김영수 선생을 만났다. 김영수 선생은 세브란스 의과대 학창시절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의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폭넓은 인격의 소유자였다.

김영수 선생은 군의관으로 제대한 후 첫 직장이 모교와 제휴되어 있는 전주예수병원인지라, 수련의들을 의욕적으로 가르쳤다.

김영수 선생으로서는 정의화군이 첫 제자인데다, 그가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24시간 뛰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지 외래도 맡기고, 모든 수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심껏 이끌어주셨다. 그 또한 봉생병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수련을 중

도폐하고 가야 할 형편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 애를 썼다.

낮에는 수술과 외래진료를 배우고, 밤에 응급수술이 없으면 책과 씨름하며 나날을 보냈다. 그는 신경외과의 보편적이고 흔한 수술이었던 두개외상과 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을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김영수 선생은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고, 수술 기회도 많이 준 까닭에 대부분의 수련의들이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례를 집도하지 못한다는 디스크 수술을 100례 이상 집도하게 되었다. 자신이 디스크 환자였으므로 척추에 관한 공부는 어느 전문의 못지 않게 많이 하였고, 시술을 할 때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요추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수술법을 구사하였다.

1975년 초, 그는 처음으로 척추종양제거수술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김영수 선생과 함께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강완익 선생이 기회를 준 것이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1년이 겨우 지난 햅병아리가, 전문의도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척추수막종 제거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은 강완익 선생이 그만큼 믿어주셨기 때문이었다. 척추수막종제거 수술은 자칫하면 하지마비가 올 수 있는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다른 수련의사보다 일찍 집도 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

1976년 전주예수병원 개원기념일에 그 해의 최고



▲ 정의화 원장의 형인 정현화 선생(현 유일병원장)의 박사 학위 수여식

수련의에게 주는 특별상에 추천되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원목(목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끝내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모든 병원직원들이 인정한 일꾼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던 셈이다.

3년을 미루어온 결혼식, 그리고 4대 병원장 취임. 1977년 7월 1일. 정의화원장은 오후 늦게 병원 일과를 서둘러 끝내고 대전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을 거쳐가야 했다. 김낸 시양은 그 해 6월 남가주대학 경영학과를 무사히 졸업하고 귀국해 있었다. 3년 간 미루어 두었던 결혼식을 7월 2일 올리기로 했던 것이다.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를 눈앞에 두고서도 결혼식 전날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봐야했던 그는 밤늦게서야 신랑이 되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다. 지난 3년간 여름 방학 기간에만 짧은 동거생활을 해야했던 젊은 부부가 마침내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7월 2일 많은 하객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결혼식이 열렸다.

2박 3일의 짧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부산에 돌아온 젊은 부부는 하루만에 일가친척과 부모를 찾아뵙고는 바로 전주로 출발했다. 기다리고 있을 환자가 있

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전주 시내 어느 육군 중령이 사는 주택의 2층을 전세금 100만원을 주고 신혼의 둑지를 틀었다. 소꿉장난 같은 신혼살림이 시작되었다.

1977년 10월 이 신혼 부부는 서울로 살림을 옮겼다. 수련의 마지막 5개월을 세브란스병원에서 보내면서 동료들과 전문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정의화원장은 1978년 2월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후 마침내 봉생병원 4대 병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봉생병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을 때 병원장을 맡고 있던 심재홍 선생은 정의화원장이 수련의 과정을 마치는 시기에 맞추어 부산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발령을 받아 놓고 있었다.

심 원장 이임 이후 그는 김승일(현 대동병원 근무) 과장과 함께 매일 입원환자 70여명, 외래환자 200명 이상 그리고 수술을 매월 30례 이상을 소화해야만 했다. 김 과장은 사흘에 하루를 당직서는 조건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원장이 떠맡았다.

한 달에 20일을 당직을 서야 하는 강행군이었다. 환자들과 24시간을 함께하면서 3년 전 직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3년 동안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고 병원을 굳게 지켜 준 직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주어진 소명인 환자의 생명을 떠받드는 일에 열정을 불살랐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적으로 일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뇌종양 수술, 뇌혈관수술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 안 된다.’ ‘더 배워야만 한다.’ ‘미국으로 가야 한다.’ 김 박사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경력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며 고민했다.

더구나 간염, 장티푸스, 디스크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기간 4년 동안 6개월 이상을 쉬지 않았는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선진의학을 집중적으로 배워야겠다는 강박감도 있었다.



▲ 1977년 3년을 미뤄오던 결혼식을 올렸다

신경외과학은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 아닌가. 그는 4개월여 짧은 병원장 생활을 뒤로하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장기간 연수를 떠날 결심을 했다. 연수를 떠나기 전 당분간 병원을 이끌어 줄 병원장으로 부산의대 신경외과 김수후 교수를 모셨다.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병원 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원묵 박사님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써 지역 사회에 봉사하려면 항상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저는 더욱 밝은 봉생의 미래를 위해 선진의학 연구에 매진코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들겠지만 흔들림 없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재벌그룹의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해 지급하였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였지만 어려운 길을 함께 지켜줄 봉생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다.

미국 연수를 시작하다

정의화원장은 1978년 7월 26일 김낸시여사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가시밭길의 연수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 석 달간은 어학연수와 미국생활을 익히는데 도 시간이 모자랐다고 한다. 밤에는 어학연수를 받아야 했고, 낮에는 남가주대학(USC)과 가주 LA대학(UCLA) 병원 신경외과에 방문의사(visiting doctor)로 3개월간 연수를 받았다. 막내 처이모부인 나루세 박사께서 소개장을 써주어 가능했던 것.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한 곳은 샌프란시스코대학으로 1978년 10월 현미경 혈관수술실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연구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혈관수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위스 취리히대학의 야사길(Yasagil)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 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야사길 교수는 ‘나는 제대로 된 혈관연구실이 없으니 우선 샌프란시스코대학의 노만 채터(Norman Chater) 교수에게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답장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채터 교수의 문하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6개월간 이 열정에 불타는 청년의사는 태평양에서 가까운 잔 무어(John Moore)라는 월세아파트에서 살면서 미세혈관 현미경 수술의 기본 테크닉을 익혔다. 지금으로 치면 중풍, 뇌혈관이식 수술을 하면서 테크닉을 배웠는데, 그 때 자신의 손에서 실험용으로 쓰인 쥐만 해도 100여마리가 넘었다고 한다. 주 5일 동안 매일 쥐 한 마리를 가지고 경동맥, 대퇴동맥을 이식시키고, 그런 후 쥐의 혈액 내 산소양을 측정하였다.

틈틈이 중요한 수술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 수술을 배우고, 주 1회는 미국 전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UCSF 뉴턴(Newton) 교수가 이끄는 신경방사선과 컨퍼런스(conference)에도 참석하였다.

병원 앞 육교를 건설키로 하다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펠로우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미국으로 석신덕 회장의 전화가 왔다. ‘시에서 병원 앞에 육교를 건설해 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는데, 닥터 정의 생각은 어떻노?’라는 것 이었다.

당시 봉생병원 앞은 마의 도로라고 일컬어질 만큼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 부산의 주 간선 도로라 교통량도 많았고, 왕복 8차선이라 차도 그렇게 밀리지 않아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건널목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연히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했다.

부산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면 10년 전 만해도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치면 모두가 봉생신경외과 병원부터 먼저 찾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병원의 수익은 많아 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병원 바로 앞에서 사고가 빈발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장모님.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육교를 만들어 시에 기증토록 합시다.’

육교 건설에 드는 비용만 해도 5천여 만원. 물가상

승률을 감안한다면 지금쯤은 5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병원 앞 육교를 건설하는 데 투입되었다.

피터 자네타박사에 사사와 뉴욕대학병원 의사 생활

처음에는 6개월을 예상하고 떠난 연수였지만, 막상 미국 신경외과학의 수준을 확인하고 나니 신천지를 발견한 것과 같아 쉽게 귀국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왕 온 김에 더 깊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실제 의사생활을 하고 싶어서류를 보냈다. 의과대 본과 4학년 때 미국의사시험에 합격하여 미국의사 자격은 갖고 있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채터 교수의 추천서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3군데 병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텍사스 산안토니오의과대학, 콜롬브스 오하이오의과대학 신경외과, 뉴욕의과대학(NYU) 신경외과였다.

뉴욕의과대학 신경외과로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연수가 끝난 것은 4월말이었다. 뉴욕대학에서의 근무는 7월1일부터 시작이라 2개월의 공백이 생겼다. 그러나 고군분투하고 있을 석 신덕회장과 봉생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쉴 수가 없었다.

피츠버그대학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면경련증

과 삼차신경통에 대한 수술이론을 밝히고, 수술법도 연구개발한 석학 피터 자네타(Peter Jannetta)박사가 신경외과 교수로 있었다. 월 180달러 사용료를 내고 대학 기숙사에 한 달간 생활하면서 자네타 박사로부터 안면경련증 및 삼차신경통의 수술법인 뇌혈관감압술(MVD)을 연마했다. 그가 안면질환의 권위자로 인정받게 된 단초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대학에서 의사생활은 피를 말리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외래를 보고 수술을 하면서도 사흘에 한번은 당직을 서야 했다. 뉴욕의 날씨가 건조한 탓인지 야간 당직을 서고 난 다음날 아침은 어김없이 코피를 쏟아야 했다.

숙소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서 환자가 부를 때면 그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당직실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한 평 남짓한 당직실은 침대도 없었고 책상, 캐비넷, 소파가 전부였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일을 해야만 했던 나날들. 연봉은 2만불이었지만 세금과 연금을 떼면 월 1,500불쯤 되었다. 급여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급여보다 10배 이상의 일을 하게 만들어놓은 게 미국식 시스템이다. 여기서 그는 미국인의 지독함에 눈을 뜨게 된다.

당시 주로 했던 수술은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그리고 뇌종양, 뇌외상 수술이었다. 환자는 대부분 미국의 의료보호환자(메디 케어)로, 개인환자는 조수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체계였다.

NYU 메디컬센터는 벨뷰병원, 맨하탄원호병원, 성빈센트병원을 자매병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들을 3개월씩 순환하며 근무했다.

NYU에서 임상펠로우 1년은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신경외과 의사들과 많은 교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훗날 귀국한 뒤 김원묵 박사의 10주기를 기념하여 <김원묵추모 봉생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의 교분이 크게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봉생병원 의사들을 미국으로 연수를 보낼 경우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NYU 시절 얻은 첫아들 연학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잭 던(Dr. Jack Dunn), 낸시 엡스타인(Dr. Nancy Epstein)



▲ 미국 연수시절 수술이 끝난 후

등을 만나게 된 것도 그때였다.

당시 NYU 교수진은 현대 신경외과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셉 랜소호프(Dr. Joseph Ransohoff), 유진 후램(Dr. Eugene Flamm), 후드 에스틴(Dr. Fred Epstein) 등이었고, 레지던트는 잭 둔(Dr. Jack Dunn), 마이클 샐론(Dr. Michael Shannon), 헨리 바르코브스키(Dr. Henry Barkowski), 낸시 에스틴(Dr. Nancy Epstein), 빅터 호(Dr. Victor Ho), 데이빗 헌트(Dr. David Hunt), 제프리 위스호프(Dr. Jeffry Wishoff) 등이었다.

임상펠로우는 일종의 일 년간 계약직 레지던트였다. 세계적인 대가들의 수술을 도우면서 뇌종양, 뇌동맥류, 혈관질환 수술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짧은 영어 실력이었으나 주 1회 외래환자(의료보호대상자)도 보고, 주 1회 수술례 보고회(Surgic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수술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언어의 장벽으로 미국 의사생활은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의사로서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친절한 태도와 자세, 난이도가 높은 수술법 체험, 많은 새로운 신경외과 시술법, 의사들의 생활과 근무태도 등이었다.

뉴욕대학병원 의사 시절 그는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들을 갖게 된다. 김낸시여사는 임신을 한 것이다. 당시 맨하탄 체이스은행에 다니던 김낸시여사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렵게 얇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동안 세 번을 유산한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안정이 요구되었다.

김낸시여사는 1980년 5월 4일 예정일보다 6주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다. 결코 짧지 않았던 8개월 반이지나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첫 아들을 보게 되었다. 첫아들 연학이었다. 뉴욕생활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2세를 갖게 된 것이다.

연학이라는 이름은 부친인 정윤호선생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연학의 미국식 이름은 피터 연학 정(Peter Yeon Hark Chung)이다.

귀국을 결심하다

NYU에서 1년간의 펠로우가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외래를 보던 중 키가 자그마한 중국인 할머니를 진료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관습으로 발을 동여매서 크지 못하게 한 전족을 한 할머니로, 전족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달릴 수도 없었다. 비인간적인 관습이라 해서 이제는 없어졌지만, 그 할머니를 진료하면서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전족을 한 할머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부족할 것 없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아직 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다니 정말 안타깝다. 빨리 공부를 끝내고 돌아가서 우리 나라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겠다.'

당시 우리 나라 신경외과의 수준은 서울의 몇몇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했다.

'1년간 펠로우가 끝나면 NYU에서 미진한 부분을 더 배우고, 스위스의 야사길교수, 카나다의 드래커 교수에게 사사한 후 현미경 수술법을 완전히 익히고 귀국한다.'

귀국을 결심한 것이다. 그는 우선 귀국 계획을 세워 놓고 사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곳에 편지를 보내 사전 허락을 받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귀국에 앞서 한국 의료계에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정리를 한 후 남은 연수기간 동안 해야 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 첫 계획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분야가 신경방사선과였다. 뉴욕대학에서는 뇌혈관에 카데터를 넣어 그 곳에 그루(glue)를 쏘아서 혈관이 터지지 않게 하는 인터벤션널 유로래디올로지(Interventional Neuro Radiology)라는 시술이 있었다. 펠로우로 그 시술법을 3개월간 집중적으로 배웠다. 3개월간 신경방사선과, 신경외과 겸해서 연구를 한 후인 1979년 10월, 그는 1년 4개월간의 뉴욕 생활을 정리했다.

찰스 드레이크 교수와 야사길 교수에 사사받다

그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한 달간 시간을 내어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런던 시에 있는 웨스턴 온타리오 의과대학 신경외과 찰스 드레이크(Charles

Drake) 교수에게 사사를 받았다. 드레이크 교수는 소뇌쪽 뇌동맥류의 세계적인 대가이다. 소뇌쪽 뇌동맥류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병이지만 세계적인 대가에게서 그 수술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드레이크 교수에게 사사를 받은 후 1980년 가을, 계획대로 스위스 취리히주립대학으로 달려갔다. 스위스 취리히주립대학에는 뇌동맥류 특히 대뇌부분에 있어 세계적인 대가인 야사길 교수가 있었다.

그는 가지 야사길(Gazi Yasagil) 교수에게서 신의 손놀림을 보았다고 한다.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할 때 그의 눈과 행동에서 제사를 지내는 엄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실로 환상적인 대가를 만났다고 가슴 설레어 했었다.

그는 이 세계적인 대가에게 사사하면서 조그만 인덱스에 칼 넣은 위치, 크기, 모양, 손놀림 등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메모를 했다. 짧은 기간동안 배워야했기에 그 메모를 집으로 돌아와 수십 번 반복해서 익히곤 했다.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에서 첫 견습의 사를 했던 L.A USC 대학병원의 커지(Theodore Kurze) 선생의 가르침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윔블던 테니스를 관람할 때 공만 쳐다보고 서브에만 신경을 쓰면 테니스 배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수들의 손놀림, 스매싱 폼, 몸놀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커지 선생의 가르침대로 야사길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메모를 했는데, 지금도 책상 서랍에는 그 때의 인덱스가 보관되어 있다.

그는 귀국하기 전까지 교과서나 잡지에서 본 학계 최고의 권위자에게 배우기 위해 마치 구도자처럼 미국과 유럽을 떠돌아 다녔다.

로마린다대학에서 연수하다

유럽연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6개월 기한으로 캘리포니아 로마린다(Loma Linda)대학 미세 혈관 혼미경 수술실 펠로우를 시작했다. 연구는 주로 고양이 뇌 산소·탄산가스 측정을 중심으로 뇌혈류 연구를 하였다.

뉴욕대학 의사생활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혼미경 수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국에 앞서 혼미경 수술을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으로, 로마린다대학 오스틴 교수에게 뇌줄증 수술에 대한 연수를 본격적으로 받았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연수는 원래 81년 1월부터 6개 월 계획이었으나, 5개월만에 끝났다. 아내가 또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다. 첫 아들 연학이 돌도 지나지 않았던 때였다.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했고, 혼미경 수술에 대한 실제적인 연수는 거의 마쳤기에 단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라면 미국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 결국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하기로 했다. 중요한 짐은 항공편으로, 나머지 짐은 선편으로 보내고, 남은 짐들은 나눠주기도 했지만 3년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는 것도 그리 만만치 않았다.

새로운 봉생을 위하여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날은 한국시간으로 81년 5월 4일이었다. 미국에 간 지 만 2년 9개월 조금 넘은 세월이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봉생병원을 국내 최고의 뇌신경 전문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다.

1972년 당시 3차에 걸친 신축공사로 80병상 규모로 병원이 증축되었을 때만 해도 봉생병원은 부산지역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81년 당시에는 새로운 시스템과 규모를 가진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 봉생병원으로서는 또 한번 도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우선 입원실 문제가 급했다. 환자들이 입원실 내에서 밥을 해먹고 이불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집에서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충별 취사장을 따로 만들고 이불 등속도 병원에서 지급했다. 1인 1실로 되어 있던 입원실을 일부 다인실로 고쳤으며 뇌신경 전문병원답게 원무과, 응급실 등을 개조하고 중환자실도 현대화하여 전문진료가 가능도록 했다.

하지만 그가 배운 최첨단 의술을 펼치기에 당시 봉생병원의 시설은 너무나 열악했다. 내부 공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옛 기와집 대지 150평에 180평 정도

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대지 330평,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신축을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장모인 석신덕회장이 반대의견을 들고나선 것이었다.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서 제대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토탈 케어(total care 전인치료)가 요구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다시 말하면 신경외과, 정형외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키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수익만 생각하면 그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병원이 되려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등 기본 진료과는 갖춰져야 했다.

각 과 전문의사들의 협진 체계 없는 전문병원은 세계적인 병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미국에서 확인한 터였다. 더군다나 언젠가는 봉생의과대학을 꿈꾸고 있던 터라 소위 ‘동 따뜻하고 배부른 식’의 인생이란 애시당초 관심 밖이었다. 한 마디로 의사로서 야망이 커던 것이다. 인류에 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사랑 받는 진정한 병원이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대학시절 의사로서 도시형 슈바이처를 꿈꾸었었고, 의료복지 전달체계를 봉생을 통해 이뤄보겠다는 것이 귀국할 때의 꿈이었다. 즉, 급성기 병원, 회복기 병원, 재활병원, 양로병원, 복지재단. 이 다섯 가지 의료체계를 갖추고 여력이 있으면 봉생정신으로 무장된 의학도를 양성하는 봉생의과대학 설립이 꿈이었던 것이다.

석신덕회장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석회장은 이제 병원은 충분히 커고, 외국에서 선진의학을 배워온 젊은 사위라면 충분히 현상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첨단시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많은 환자들이 선진 의료혜택을 받게 하려면 지금의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두 개의 진료과 만으로는 부족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병원이 될 수도 없었다. 건평 1,000평 남짓한 규모로서는 정말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정원장은 석회장의 완강한 반대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봉생병원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미국에서 배운 지식을 후배들에게 펼쳐 보이고자 교수직을 찾아보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자신에게 맞는 자리는 찾기 어려웠다. 결국 취직을 포기하고 3년간 미국에서 모은 자료와 지식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형인 정현화 박사가 자신의 병원인 유일병원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했다. 정현화박사는 그에게 부원장이란 직책을 부여하면서 현미경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새로 마련해 주기도 했다.

충모와 사위의 갈등에 가장 입장이 난처했던 사람은 김낸시여사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남편의 갈등으로 인한 심한 가슴앓이를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념이 강해 한다면 하고야 마는 남편을 잘 아는 터라 묵묵히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 뒷바라지에만 전념했다. 그녀는 어떤 일이라도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다. 결국 석신덕회장이 뜻을 굽히고 들어왔다. 12월 중순 집으로 와서 ‘망년회를 해야 하는데 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노.’ 라며 병원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닥터 정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경영해 봐라.’는 것이었다

다시 병원장의 자리로 돌아온 그는 먼저 병원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신경외과 단과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도약을 구상한 것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가 많이 내원했지만 응급수술 이후의 환자진료에는 애로가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선은 기존의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과에서 일반외과와 치과(구강외과)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내과는 당시 메리놀병원에 근무 중이던 심봉섭 선생(현 영남대 교수), 안과는 대청동에 개업 중인 대학선배인 이춘식 원장이 왕진을 해주는 진료시스템으로 꾸려나갔다.

기존의 건물을 살리면서 여러 기능들을 접목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응급실을 확장하고 중환자실을 개조하는 한편, 방사선실을 이전하고 원무과를 확장해 기능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 1인실로

만 되어 있는 병실을 3인실, 6인실로 일부 개조하고 환자들의 침구 반입을 금지시키고, 보호자 음식을 한 곳에서 조리하도록 조리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미국에서의 의사생활을 통해 경험한 진료시스템을 구축 하려고 해도 그 구상대로 병원건물의 기능을 살릴 만큼 능력 있는 설계사가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

혼자서 진료과 및 지원시설 배치 등 기능 변경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나갔지만 자신의 구상을 담기에는 기존의 건물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석신덕회장에게 신축부지를 새로 매입할 것을 권했다.

“아무리 병원을 이리저리 뜯어고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 진료시스템을 갖추려면 아무래도 새 건물을 지어야겠습니다.”

“조그맣지만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 안되겠나. 왜 머리 아프게 병원을 키우려고 하는가.”

“장모님은 제 꿈을 잘 아실 게 아닙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은 우리 병원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돈 버는 병원으로 만족하시겠다면 제가 그에 맞는 의사를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투고 뛰어나가고 다시 화해하고 그런 불편한 시간이 꽤나 많았으나 그는 결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 꺾을 수가 없었다. 환자를 위한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신축공사는 1년 정도 미루어지게 되었지만, 1983년도에 구체적인 증축설계에 들어가 1984년에 기공식을 갖고 1985년 마무리를 보게 되었다.

당시 부산에는 병원 설계 전문가도 없었다. 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증축이나 부분 신축을 할 때 기능상 배치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불가능했다.

기본 건물 설계는 건축사에게 맡겼지만, 기능조정과 방 배치 등을 두고 정원장 혼자서 두 달 이상 설계도면과 씨름하기도 했다.

귀국한 후부터 1995년 본원의 최종 증축 시까지 그의 방에는 설계도면과 청사진들이 항상 놓여 있었다. 그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7개동, 8,000여평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가 설계도면이나 건축용

어에 익숙한 이유도 그 덕분이다.

그의 구상은 단지 병원의 확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1983년 보건사회부 시행령으로 병원 명칭에 전문 과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봉생신경외과병원 대신 봉생병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그는 이름이 너무 길다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원묵기념’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야겠다고 고집하였다. 그렇게 해서 83년 봉생신경외과병원은 ‘김원묵기념 봉생병원’으로 원호를 바꾸게 되었다. 이는 그의 인생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 배경은 이렇다.

첫째, 우리 사회에는 자신이 잘되면 자신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그릇된 사고가 팽배해 있다. 정치권력도 마찬가지로 새로 권력을쥔 사람은 전임자를 속죄양으로 하는 근래의 정치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 것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 앞으로 봉생 병원이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하더라도 그 병원을 만들고 남긴 어른에 대한 존경은 영원해야 한다. 그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는 사람의 이름은 묻혀도 관계없다. 이는 효에서 출발한 그의 철학이었다.

둘째, 우리나라에 양의학이 도입된 이후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군산의 씨그레이브기념 병원, 부산의 윌레스기념 침례병원 등 외국인의사에 대한 기념병원은 있으되, 한국의사에 대한 기념병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원묵 박사는 우리 나라 신경외과에 있어 기념비적인 인물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학계에서는 최초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처음 시작하는 개척자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던 그는 애국심에서 발로된 철학을 실천하고자 했다. 애국과 효는 그의 삶에 있어 모든 행동을 구현하는 두 개의 기둥이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신경외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 박사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봉생추모학술회를 개최했다.

1984년은 김 박사가 타계한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그는 낙후된 부산경남지역의 신경외과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고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봉생병원 35년사 발간과 ‘봉생 김원묵 추모 국제학술회’를

시작해보자고 결심했다.

국내의 석학과 외국의 석학이 한 자리에 모여 신경외과학의 최신 지견에 대한 교류를 갖는 이 학술회는 부산의학계 최초의 국제모임이었고, 최고의 학술대회로 평가받았다. 그 동안 학술회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들은 일본의 야마우라(Akita Yamaura), 쓰기타(Kenichiro Sugita), 후쿠시마(T. Fukushima), 후쿠이(M. Fukui), 후지(K. Fujii), 마쓰시마(T. Matsushima), 카즈오 와다나베(Kazuo Watanabe), 모리야마(Moriyama), 사이토(Saito), 카와세(Kawase), 누쿠이(Nukui)교수 등 일본의 신경외과학의 대가들, 그리고 브라질의 올리베이라(E. de Oliveira), 미국의 로톤(Albert Rhoton), 잭 던(Jack Dunn)교수, 독일의 마지드 사미(Mazid Samii), 대만의 투 용강(Tu Yong Gang)교수 등 외국의 쟁쟁한 석학들이었다. 국내에서도 이규창 교수, 정상섭 교수, 최길수 교수, 최창락 교수, 임언 교수, 심재홍 교수 등 학계의 내노라하는 분들이 기꺼이 참석해 주었다.

1984년 이후 9회 째 계속 해오던 추모학술대회는 1996년 그가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전후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 잠시 휴면 중에 있다.

봉생이념과 원훈을 만들다

1981년 연말 다시 병원장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원훈과 봉생이념을 만들었다. 새해 구상을 하면서 이념이 없는 조직은 영속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봉생병원의 지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곧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정직, 성실, 박애라는 원훈과 함께 환자의 권익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의학발전에 매진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는 봉생이념을 통해 봉생병원을 개인소유의 병원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 한 차원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비전이 없는 조직은 나태하기 쉽고 방향을 잊기 쉽다. 그는 봉생병원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1980년 초만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이 병원에서는 뇌 컴퓨터촬영기기(CT) 도입이 불가능했다. 봉생병원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건사회부의 규제로 뇌질환 진료에 가장 필수적인 뇌CT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 후 병원 증축으로 뇌 CT, 전신용 CT, MRI 도입이 가능해졌고, 수술의 꽃이라는 장기이식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검사실 장비나 중환자실 시설 등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느 병원 못지 않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런 정신들이 오늘의 봉생이 있게 하였고, 내일의 봉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의료에 있어 기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기사, 일반직원들의 자기 계발이다. 의사의 경우 아무런 강제규정 없이 해외 연수를 보냈다. 소위 연수를 하고 돌아와선 몇 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 그것이 의미가 적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연수를 다녀온 의사가 봉생을 떠나 어디에 있다손 치더라도 더 많이 공부한 의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료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축 전 원장실은 구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중환자실 바로 앞이었다. 한 평 짜리 진찰용 침대와 책상을 한 켠에 놓고 침실로 사용하기도 한 곳이다. 야간 수술이 끝나면 그 곳에서 자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는 일부러 중환자실 앞에 원장실을 만들었다. 생명이 위독하지만 소생할 가능성 있는 환자를 두고



▲ 1983년 2월 직원들과 함께 석신덕 여사의 생신을 축하하며

퇴근한 적이 없다. 며칠이고 승부가 날 때까지 사신(死神)과 싸웠다. ‘환자와 가족,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생길 확률은 훨씬 커진다고 그는 믿고 있다.

당시 80여명의 직원 이름을 모두 외우기 위해 월급날이 되면 원장실에서 직접 월급봉투를 전달하곤 했다고 한다. 전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은 물론 사석에서는 형 동생으로 호칭하며 함께 어울렸다. 봉생가족화연수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늘 봉생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단순히 폐기만만하고 추진력 있는 청년의사로서, 원대한 미래를 구상하는 경영자로서 사려깊은 면모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종합병원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신축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규모가 커지면 행정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봉생병원의 구성원 중에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할 적절한 인재가 없었던 것이다.

많은 고민 끝에 고교 1학년 짹으로 인연을 맺어 죽마고우처럼 지내고 있는 박경흠씨에게 행정처장직을 제의를 했다. 처음에 완곡하게 거절하던 박경흠씨는 두 번에 걸친 정원장의 간곡한 부탁을 결국 수락했다. 정원장은 이를 마치 유비가 삼고초려 끝에 제



▲ 절친한 친구 박경흠과 함께

갈량을 군사로 모시고 온 것과 종종 비교하곤 한다.

1984년 10월. 부산에서는 최초로 행정처장 제도를 도입하여 박경흠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병원 행정체계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했다. 이 제도는 봉생병원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이후 다른 병원으로 확산되었다.

정의화원장은 직원 복지에도 앞선 제도를 도입 운영했다. 이를테면 부산에서는 최초로 우수직원과 장기근속직원을 선발하여 해마다 해외연수를 보냈고, 당시 병원으로서는 획기적인 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환자에 대한 친절서비스에 더욱 힘쓰게 하는 한편으로 애사심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병원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바로 병원의 발전으로 퍼드 백 되었다.

종합병원으로 도약

1985년 3월 16일.

봉생병원은 착공 1년 2개월만에 종합병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골몰해왔던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던 신축이었다. 기획, 예산 편성, 설계, 수정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만 했던 일이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그리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정신과 등 12개 진료과목, 뇌컴퓨터 단층촬영기를 비롯한 첨단의학 장비를 갖추고 그 위용을 드러내던 날,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감격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외형만 늘리고자 시작한 종합병원 건립이 아니었다. 환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토탈 케어(Total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을 비로소 갖춘 것이었다. 중환자실을 미국식의 최신식 시설로 만든 것을 보면 무엇을 위해 종합병원을 건립하게 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와 간호사의 1대1 간호가 가능한 중환자실은 의미하는가. 바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떠받들겠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

종합병원 건립은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묵묵

하게 자신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했던 병원 식구들에게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꾸준히 병원을 키워 나가면 내용이 다양해지고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 직원들은 새로운 익숙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또한 병원이 커질수록 자리가 늘어나므로 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 자연 병원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실제 1985년의 종합병원 승격과 1990년의 동래봉생병원 개원은 많은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었다.

새로운 식구들에게는 그룹별로 교육을 위해 1박 2일 교외로 가서 연수도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인성 교육과 봉생정신 교육,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최상의 근무조건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며,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인격체를 만드는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서 봉생을 키우고 싶었던 게 그의 목표였다.

그 해 봉생병원 제 1기 공채간호사를 선발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직원채용 시 임시직원에서부터 임상과장까지 일일이 면접을 보았던 그는 능력 보다도 심성을 우선시했고 사람됨됨이가 봉생인이 될 자질이 있는가를 먼저 따졌다. 능력은 키우면 되고 지식을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었다. 의사를 선발할 때의 기준은 봉생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신의가 있으며 자기계발 의욕이 강한 사람을 물색했다.

그는 김 박사의 유업을 잊기 위해 누구보다 희생적으로 일을 했다. 봉생가족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슈퍼맨’이었다. 새벽까지 수술을 하고, 두어 시간 토막 잠을 잔 후 다시 회진을 하고 외래를 보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뇌동맥류의 경우 어려운 수술케이스를 만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데, 심지어 뇌동정맥 기형 환자를 위해 16시간을 수술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혼신의 힘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리더가 가장 열심히 일할 때 아래 사람이 따라 온다는 사실이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뇌종양, 안면경련, 뇌동맥류, 삼차신경통 환자들

이 치료를 받고 싶어도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멀리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고, 그나마 완치율이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었기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뇌동맥류 수술은 고도의 기법이 필요한 난해한 수술이었고, 인력과 시설이 뛰어난 일부 병원에서 조차 시술을 꺼려할 정도로 신경외과 영역의 고난도 수술이다. 그는 1981년 귀국한 후 10년만에 뇌동맥류 수술 300례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안면경련증 수술에 있어서도 완치율 96.1%를 기록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 결과는 아시아-호주 신경외과학회에 보고되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1996년 5월초에는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학회지로 알려져 있는〈NEUROSURGERY〉라는 잡지에 이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인 동시에 봉생병원의 개가였다. 2차병원에서 그 것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치료와 수술 결과물을 가지고 세계적인 권위자에 논문이 게재된 예는 신경외과로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500례를 돌파한 안면경련증은 그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매년 여름과 겨울에 약 50례씩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시술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의



▲ 업무에 열중인 정의화 원장

가 국내에서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석신덕 회장 타계하다

1989년 4월 중순 봉생병원은 언론과 시위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시위 도중 머리를 다친 부산교육대생 이경현 양이 응급실로 실려왔던 것이다. 생사의 기로에 선 경현 양을 두고 경찰과 시위대는 대치했다. 환자상태에 따라서는 정국의 흐름이 뒤바뀌어질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

시위대의 주장은 경현 양이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찍혀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병원은 각목을 든 시위대와 불상사를 대비한 경찰들로 시장통을 방불케 했고, 언론사들은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기를 쓰는 형국이었다.

전화는 불이라도 난 듯 울어댔고, 똑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영문 모를 협박전화에다 몇 시에 죽었냐는 엉뚱한 질문들까지 쇄도했다. 이 사태는 3주간이나

계속 되었다. 부분적으로 진료가 마비되어 병원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현 양을 살려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들 하지만 하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바꾸어야 했던 절박한 시간들이었다. 경찰이나 시위대, 언론이 무엇이라 하던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경외과 팀을 중심으로 침착하리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처방과 시술에 들어갔다. 주치의를 선정하여 24시간 환자상태를 확인케 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언론인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것 외엔 일체 외부의 접촉을 피했다.

국회에서도 조사단이 파견되어왔지만 원칙은 불편부당(不偏不黨). 누구의 편도 아닌 오로지 환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었다.

입원한 지 열흘이 지나자 빈사상태의 경현 양은 마침내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이들이 지나자 혼자 눈을 뜨고 시선을 맞추기도 했다. 눈에 띄게 차도를 보였다. 최소한 생명은 건진 것이다.

3주간 계속된 학생들의 농성 투쟁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치는 구호, 그리고 병원을 뒤덮다시피한 대자보. 이것이 그때 병원에서 거주하던 석신덕회장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김원묵 박사가 타계한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12시까지 병원 현관 옆로비에 앉아 계시곤 했던 분이셨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투석 등 오랜 지병으로 가뜩이나 쇠약해진 석회장은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갈 즈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1989년 5월 2일.

봉생을 자신의 분신인 양 여겼던 석신덕 회장이 타계했다.

봉생소아과 시절부터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생을 지켜온 석신덕 회장은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고 병원의 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분이었다.

‘원장님 곁을 떠나면 우리 애가 못 살아날 것 같다.’며 경현 양의 아버지가 애절하게 매달렸지만, 석신덕회장이 타계한 다음에야 상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 정의화 원장의 안면경련증 수술 장면

힘들게 경현양 가족들을 설득해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토록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농성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밤 12시에 부산대학병원으로 전격적으로 후송하였다. 그 후 부산시의 요청으로 천만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깨끗이 감면해주었다. 어쨌든 경현 양은 불행한 이 시대의 희생자였기 때문이었다. 경현 양 사건으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면해 준 진료비보다 몇십배 더 큰 손실을 입었지만, 무슨 일이든 결심은 신중히 하지만 일단 결정을 하면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그의 원칙이었다.

1989년 5월 7일.

석신덕 회장의 영결식을 치뤄졌다. 수많은 조문객과 봉생가족들의 애도 속에 고 김원묵 박사가 계시는 백운공원 묘지에 고이 안치되었다. 김원묵박사가 타계한 지 15년만에 석신덕 여사는 사랑하는 이의 곁으로 가신 것이었다.

의료취약지역에 제 2의 봉생을 구상하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봉생병원은 또 한차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1985년부터 봉생병원은 종합병원으로 변신하였지만 뇌신경분야가 위낙 알려져 있어 다른 진료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뇌신경분야를 제외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병원이 동일지역 내에 많이 있는 까닭에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제외한 진료과의 발전이 더뎠던 것이다.

종합병원 개설 2년이 지난 뒤에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소위 네 개의 중요 진료과의 입원환자를 다 합쳐도 20명을 넘지 않았고, 외래환자 총수가 100명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봉생병원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긴박감이 그를 휘감고 있었다. 실제로 봉생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또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에 반해, 본원이 시내 중심가와 가까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땅값이 너무 비싸 더 이상의 병원 확장은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봉생병원을 뇌신경 전문병원으

로 육성하되, 다른 지역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구상하게 되었다. 인구밀집지역에 메디컬센터를 만들어야 봉생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는 당직이나 수술이 없는 주말에는 부산 외곽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지를 지도에 일일이 표시하곤 했다. 주말이면 남들은 등산이나 골프를 하든지 야외나들이에 나설 때 혼자 차를 몰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동산업자를 만나는 등 제 2병원 구상에 몰두하였다. 부산의 미래 발전방향까지 염두에 두면서 6개월 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이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동래 안락동을 선택했다. 우선 동래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지역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시설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안락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그 지역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수가 극히 적었고, 부산 시역(市域)의 확장으로 주민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시가지가 들어 설 기장·양산방면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충분요건이었던 것이다.

처음엔 해운대 쪽을 생각했으나 LA와 샌디에고 사이의 도시 팽창을 보았기 때문에 송정과 기장 방면 즉, 바다를 끼고 도시가 발전할 것으로 보았다. 기장은 반송을 거쳐 안락로터리로 바로 연결되고 있었다.

동래봉생병원의 개원

1989년 1월 착공을 한 동래봉생병원은 이듬 해인 90년 6월 2일 대지 8백여평에 지하 3층, 지상 7층, 연건평 2,200평으로 250병상 규모로 태어났다. 그리고 일년 후에는 부속건물을 지어 연결하였다.

주요시설로는 응급실, 중환자실, 전신컴퓨터촬영실, 초음파실, 위내시경실, 5개의 수술실, 신생아실, 분만실, 소아중환자실, 전자재활치료실 등이었다.

외상센터병원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가능한 한 넓게 설계하였다.

4필지, 연건평 3,000여평, 276병상의 비교적 소규모로 병원을 설립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1988년 초 처음 매입한 500여평은 평당 60만원이었으나, 마지막 매입한 200여평은 거의 평당 500만원 이상을 주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던 부동산 가격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만한 돈이 없었다. 당시 석신덕회장이 제 2병원 신축을 완강하게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과감하게 대지 매입자금을 요구하였더라면, 초기에 그 주변 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들이 아닌 사위였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자금을 요청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그렇다고 동래봉생병원 건립 자금을 쉽게 조달한 것만은 아니었다.

먼저 우리 병원과 거래하던 부산은행 지점에서는 대출액수가 너무 많아 어렵다고 거절당했다. 그는 고민 끝에 부산은행장을 직접 찾아갔다.

부산은행장에게 자신의 소신과 왜 제 2병원을 신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부도는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시간 여를 혼신을 다해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짧았지만 오랜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나름대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 점,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실력과 패기. 이런 점들이 인정을 받았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한참 신중하게 얘기를

듣던 부산은행장이 신축 자금 대부분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출해주기로 승낙을 해준 것이었다.

동래봉생병원은 은행대출 50억, 리스 50억의 부채를 안고 출발했으나, 그는 충분히 이를 극복할 자신을 갖고 있었다.

동래봉생이야말로 봉생의 미래를 위해 그때 꼭 이루어야 할 작업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긴 역사를 가진 침례병원이 초량에서 금정구로 이전해 갈 예정인 것을 보더라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도심의 종합병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데서 그의 예지를 발견할 수 있다.

동래봉생병원 개원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인사 문제였다. 병원장, 행정책임자, 간호부장 이 세 자리를 누가 맡아주는가에 신생 병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은 천안 순천향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있는 성병년 박사를 영입했다. 성 박사는 정의화원장의 중·고·대학의 1년 후배이다. 천안으로 두 번이나 찾아가 확약을 받았고, 콜로라도 덴버대학병원에 1년 연수를 한 후 병원장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연수 경비는 봉생병원에서 부담할 작정이었다.

간호책임자로는 중환자실에서 10년 이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수진 수간호사를 내정하였다. 그녀는 안동간호학교를 졸업했는데, 전인간호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진 봉생의 보물이었다.

가장 큰 문제가 행정책임자였다.

그는 프론티어클럽에 같이 몸담고 있었던 서원유통 전무 박용호씨를 설득해 행정책임자로 임명했다. 박용호씨는 서원유통 사장의 고교 후배인데다 돈독한 신임까지 받고 있는 터였다. 이 사실을 안 서원유통 사장은 더 높은 급여와 김해백화점 책임자 자리를 내세워 이직을 막으려 했다고 한다.

동래봉생병원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500평, 200평 규모의 별관건물 두 동을 더 신축하여 인공신장실, 응급실, 정형외과 입원실, 치과를 확대하는 한편 직원숙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동래·해운대지역



▲ 제2의 도약 동래봉생병원 개원

의 중심의료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동래봉생병원의 시련

동래봉생병원은 개원 후 3년째에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

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아 2년을 고전하다가 3년째 들어 조금씩 형편이 호전되고 있을 때였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점차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동래봉생이 느닷없는 걸림돌을 만났으니 한 번의 의료분쟁과 한 번의 노사분규였다. 겨우 안정을 찾아갈 시점에서 닥친 큰 시련이었다.

1992년 3월 18일. 복통을 호소하는 임신 9개월의 임산부가 동래봉생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임산부는 진료 중 제산제 및 위장약 주사를 맞고 갑자기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사흘 후 끝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족측은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지레 단정하고 폭력과 난동을 부리며 열흘간이나 병원업무를 마비시켰다.

임상적으로는 뇌동맥류나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질환이 있거나 임신중독증 즉, 간질증세와 혈압상승으로 인한 출혈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유족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둘러 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입원하는 등의 소란행위가 지속된 것이다.

그는 의료분쟁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병원의 과실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충분한 책임과 보상을 해주는 반면, 과실이 없다고 판명될 때는 병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온 빛나는 봉생의 업적들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처했음에도 그는 신중하고도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당시 그의 입장은 이랬다.

“책임이 어디에 있든 병원을 믿고 입원한 환자를 회생시키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자책해야 하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가족들의 슬픔에 머리 숙여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피우지 못하고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에 무한한 동정과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명명백백 원인을 규명코자 합니다. 병원이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봉생인의 명예를 위해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저와 우리 봉생인의 양심을 밝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팽배한 의료불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도 의료인의 과실 탓인지 아니면 자신의 질병 탓인지 밝히는 것이 진실로 고인의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받드는 봉생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그의 신념은 쉬쉬하면서 덮어두고 넘어가는 식의 해결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래봉생병원에 불어온 또 한 번의 시련은 봉생에 몸담은지 20년이 되어 가던 1993년 7월이었다.

그동안 봉생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 모든 봉생인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정의화원장은 혼신의 힘을 쏟았다. 거기에는 실로 순식간에 흘러 가버린 짧음과 꿈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그가 지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5백여 봉생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든든한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심한 좌절과 갈등을 안겨주었다. 1987년 본원의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갈등이 있은 후 5년만의 일이었다.

87, 88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한국노총의 무기력함에 염증을 느낀 일군의 노동자그룹들은 민주노총의 건설에 주력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부각해야 했던 그들로서는 초기에 매우 극렬한 투쟁방식을 선택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픔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병원노동조합연맹은 민주노총 건설에 있어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분규에 휘말렸고, 또 일부 병원은 문을 닫기도 했다.

동래봉생병원도 병원 분규의 희오리를 예외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었다. 7월에 동래봉생병원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이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합법화됨에 따라 자연히 전국 병원노동조합연맹도 합법화되었는데, 그 첫 시험무대가 동래봉생병원에서 펼쳐진 것이다. 그때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은 춘투가 끝나 분규가 몇은 상태였다. 1993년 여름과 가을 파업으로 홍역을 치룬 사업장은 태어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동래봉생병원 밖에 없었다.

무릇 모든 조직은 리더와 구성원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노동조합은 그 한 바퀴인 셈이다. 문제는 한 바퀴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을 때 그 조직은 뒤뚱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는 두 말 할 나위가 없었다.

또, 병원은 일반 생산업체와 달리 오너가 직접 진료하고 집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또한 하나의 팀웍으로 묶여야 하는 특수성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병원의 노사분규는 미묘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많았다.

석 달 가까이 지속된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 많은 환자들이 떠나갔다. 병원 건물은 붉은 깃발과 스프레이 자국으로 슬프게 물들었다. 부산지역 노동운동, 학생운동단체들이 가세하였고 결국 7월부터 시작된 노사분규는 9월에는 파업으로 이어졌다. 55일간이나 진행된 80명의 노조원 파업은 12월초에 마무리되었다.

정의화원장은 이 파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 솔직히 많이 지쳐있었다고 술회한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회의를 많이 느꼈으며 의료계의 여러 현실을 감안했을 때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동래봉생병원을 포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병원의 손실은 20여억원이 넘을 정도로 엄청났다. 그러나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봉생가족들이 서로 헬뜯고 반목한 그 처참한 시간들이었다. 동래봉생병원을 병원다운 병원, 명실상부한 일류 종합병원을 만들고 싶었던

그의 뜻이 왜곡된 데에 대한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신장학의 1인자 이시래 박사의 영입과 제3의 도약

비 온 뒤의 땅은 더 굳어진다고 했다. 몇 번의 위기가 봉생을 뒤흔드는 와중에서도 언제나처럼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1992년에는 신장질환과 고혈압의 권위자이며 전 고신의료원 부속 복음병원장을 역임한 이시래 박사와 산부인과학의 권위자인 정재훈 박사가 봉생으로 오게 된다.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명예원장으로 취임한 이시래 박사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개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학자는 학자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봉생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명예 원장직을 맡기 전에 우선 정 원장과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장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신장질환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힘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 원장이 이를 꽤 수락했기 때문에 저는 봉생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시래 박사가 봉생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9년이었다. 석신덕회장이 당뇨병 후유증으로 콩팥이 나빠져 신장학의 권위자인 이시래 박사를 찾아간 데서 그 인연은 시작된다. 이 박사는 부산고 9회로 고신대 병원장을 역임한, 정의화원장의 대선배였다. 이후 이 박사는 석회장의 주치의가 되었고, 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정의화 원장과 만나게 되었다.

정의화원장은 이시래박사가 고신대학병원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봉생이 대학병원급은 아니지만 돈이 목적인 병원은 아닙니다.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시면서 학문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후배가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며 이박사를 모셔왔다.

이시래 박사가 이끄는 우리 병원의 신장이식팀은 1999년 8월 10일 신장이식 200례 달성을 이루어내었다. 팀장에 이시래(신장내과) 병원장을 비롯하여 허길(외과·집도의), 윤철수(비뇨기과·집도의), 김중경(신장내과), 이진숙(임상병리과)과장이 이식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내에서 2차병원급으로 의학의 꽃이라고 하는 장기이식수술을 해낸 곳은 봉생병원 외에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즉 2차병원도 웬만한 첨단 시술은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국의 의료계에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봉생병원이 의학발전에 선봉이 된다는 이념을 지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본원 증축과 의료법인으로 전환

1993년 7월부터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증축공사에 들어갔다. 신장이식 등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신장이식시스템을 갖추려면 SPECT라는 동위원소촬영기는 필수였고, 임상병리시설 등 많은 기자재 도입과 함께, 신장내과 팀워크도 보강해야만 했다. 그러려면 이를 수용할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마침 병원 옆에 부지가 비교적 싼 값에 나왔다. 가내공업으로 신발 접착제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몇 년 전 구입하려했을 때 평당 1,300만원을 달라던 부지였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평당 700만원에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었다.

정의화원장은 이시래 박사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을 매입한 만큼, 이를 토대로 병원 증축에 박차를 가했다.

제 3의 도약.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것을 제 1도약이라면, 동래병원 신축은 제 2도약, 본원 증축은 제 3의 도약이었다.

그는 항상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날이 개이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본원 증축에 앞서 1993년 9월 개인병원이었던 김원묵기념봉생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했다.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병원은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기관이어야 한다는 정의화원장의 신념대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본원 증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5년 10월 29일

봉생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만 14개월의 공사끝에 연건평 2천여평 증축, 병상 수 420병상, 핵의학실·MRI실의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그 면모를 일신한 채 지하 3층, 지상 9층의 웅자(雄姿)를 드러냈다. 1974년 김원묵박사가 남긴 1,000평 구관과 2차에 걸친 공사를 통해 각 2,000평의 신축과 증축. 드디어 21년간의 긴 세월 끝에 본원을 연건평 5,000평, 3개동으로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봉생문화회 설립

정의화원장은 항상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남는 이익이 있다면 그 중 1/3은 병원 발전을 위해 비축하고, 1/3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1/3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정신은 1981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서벽지 아동초청 수학여행을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의화원장의 철학에 기반을 둔 봉생이념에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강조되어 있다.

198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 보수와 진보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저속한 대중문화와 건강한 문화의 갈



▲ 1994년 신관 증축으로 완공된 봉생병원의 모습

등 등 사회적인 제가치가 혼돈 속에 소용돌이치던 기간이었다. 국민, 대중, 세대, 계층 모두가 좌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그는 경제발전만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강한 문화의 텃밭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가치관의 혼돈 속에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새 좌표를 세우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봉생문화회의 설립이다. 1989년 여름의 일이었다.

하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인환 시인(당시 YMCA 기획실장)과 배승원 경성일보 편집국장(현 국제신문 주간)이 병원으로 정의화원장을 찾아왔다.

병원 옆 태양호텔(현 올림피아호텔) 2층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들이 어렵게 꺼낸 얘기가 봉생병원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부산의 문화를 위해 작은 일을 좀 해주어야겠다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허 천 선생(작고)께서 발행 중인 월간 <현장>이라는 잡지를 인수해서 계속 발간해 달라는 것이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문화예술에 대해 애정이 컸었고, 또 우리 사회의 불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은 활짝 피어야만 한다고 절박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정의화 원장은 선뜻 승낙을 했다고 한다.

잡지를 인수하기로 한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화 교양잡지 하나 발행하는 것이 부산 문화 발전에 무슨 큰 힘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기왕 나설 바엔

제대로 하자,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 봉생문화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영감처럼 떠올랐다고 한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결심이 서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미가 있는 모양이다. 문화회를 만든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내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대학 시절에 사진 작품으로 많은 입선과 입상을 해 본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부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신인상도 공로상도 아닌 ‘누가 알아주건 아니든,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해나가는 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그들을 봉생이 존재하는 한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결론짓고 봉생문화상을 우선 제정하기로 했다.

봉생문화회는 초창기부터 이해원(전 부산일보 논설주간·상무), 김인환 시인(현 교회복음신문 사장), 정영자 교수(신라대 국문학과), 김천혜 교수(부산대 독문학과), 이영일 교수(부산대 독문학과), 지호경(설계사), 조상흠(변호사), 배승원(현 국제신문 논설주간), 권철현 교수(현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이 이사로서 적극 도와주었다.

지금은 하정애 교수(신라대 교수 현대무용), 강남주 교수(부경대 국문학과), 서상환(서양화가), 김석규(장학관), 김창근(동의대 국문학과), 김성종(소설가) 등 역대 봉생문화상 수상자들이 이사로 참여하여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정의화원장이 기초했던 봉생문화회 설립 취지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날이 갈수록 물질주의와 상업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퇴폐 향락 외설문화가 일상화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물질적 풍요로움 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 이르게 된다.

이 자각은 취지문에서 보여지듯이 “인간성 회복의



▲ 1992년 개최한 봉생문화상 시상식

순수한 바람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절규들이 모여 적으나마 소외계층을 돋고 문화예술의 창달에 일익을 해보고자 봉생문화회를 설립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취지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봉생문화회는 우선적으로 부산경남지방의 문화예술 진흥과 언론 창달을 지원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과 문화사업의 기본적 전제인 사회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989년부터 봉생문화회는 1998년까지 10회에 걸쳐 문학부문, 공연전시부문, 언론출판부문 등 3개 부문에 대한 봉생문화상 시상을 하고 있다. 봉생문화상은 현재 부산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상의 하나로, 많은 문화예술인·언론인들이 수상하기를 바라는 상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부산의 유일한 종합교양지인 월간 <현장>을 인수하여 1993년 5월까지 4년여간 한 호의 결간도 없이 발행했는데, 누적된 적자로 통권 58호 발행 이후 휴간 중에 있다. 이밖에도 문화회의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는가 하면 지역작가들의 신간을 대량 구입하여 주위에 배포하고 있다.

봉생문화회는 소년소녀가장, 문화예술인자녀에 대한 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쳤으며,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저명한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여 무료 교양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초청인사로는 소설가 박완서, 이시형 박사, 시인 조병화, 서편제의 주연배우 김명곤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열었다.

비상업적인 예술공연의 주최 및 예술 단체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원율학회>, <하야로비무용단> 등 여기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남도국악 초청공연>, <광주한국춤연구회 초청공연> 등은 영호남화합을 위해 추진한 문화사업으로 일찍부터 민족화합을 위해 구두로가 아닌 실천적인 사업을 벌였던 것이다. IMF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인 1998년에는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나눔음악회>를 열어 실직자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대 경제학교실, 영호남학술대회, 도시발전연구소 등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활발했다.

소화영아재활원 무료시술을 자청하다

1992년 8월이었다. 우연히 이명자 간호부장이 남구 감만동에 있는 소화영아재활원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얘기를 정의화원장에게 꺼내놓았다. 소화영아재활원에는 장애아로 태어나 특별한 육아교육이 필요한 아동들과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 아이들이 설사를 하거나 감기에 걸릴 경우에 우리 병원에서 돌봐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미국을 떠나 귀국하면서부터 재활병원 설립을 꿈꾸고 있었던 터라 이명자간호부장, 이생금 간호과장과 함께 소화영아재활원으로 갔다.

아담한 건물에 실내는 깨끗하고 정원도 꽤 넓었다. 수녀들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분위기 또한 경건하였고 많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선천성 수두증, 선천성 심장질환, 간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리디 여린 아이들.

그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솔직히 뒷머리를 심하게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한 살배기 아이의 몸이 뇌수두증(Hydrocephalus)으로 머리가 큰 고무풍선 모양으로 커져서 뇌의 주름이 보일 정도였다. 뇌수두증은 생후 가급적 빨리 시술하면 치료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다.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무엇인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의화야. 네가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칭하면서 지척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자빠져 있었느냐.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 아이들은 우리 병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는 원장수녀님을 만나 원망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원장 수녀님. 이건 수용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수술

이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기형은 바로 잡기만 하면 정상아가 되는 것입니다. 기형상태는 그대로 두고 감기 치료나 물리치료를 하고 간호나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날 이후 새로 들어오는 영아는 입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봉생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했다. 정의화원장은 영아재활원에서 보내는 아동들의 외래진료, 입원 등 모든 절차는 간호부장이 직접 관장하여 우선 처리토록 하고 원무업무 등 일상적인 절차는 뒤에 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렸다. 수녀들이 아기를 안고 원무과 등에서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였다. ‘봉생이 존재하는 한 영아재활원은 봉생의 분원이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백 명이 넘는 아동들이 무료로 수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1992년 10월 14일 봉생뇌척추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소화영아재활원 아동에 대한 무료시술을 선정하기도 했다.

봉생뇌척추연구소 창립식에서 한 기념사의 한 부분은 이렇게 시작한다.

“고통받고 소외된 아동들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이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이 아동들을 돌보게 될 시점까지는 힘닿는 한 소화영아재활원 아동들에 대한 무료시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1977년 개소한 봉생사회복지회 복지관

봉생사회복지회의 설립

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은 지역민에 대한 무료 진료와 수술도 활발하게 해나갔다.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꿈이었다.

그런 까닭에 지난 15여 년간 소화영아재활원 아동 무료시술,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금 지급, 영세민 무료진료 등의 사업을 꾸준하게 펼쳐왔다.

이런 복지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영속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LA 근교와 Hawaii 등에 있는 재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돌아 본 것은 1983년경이었다. 봉생의 꿈 중에 하나는 복지전달체계의 모델을 제시해 보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정의화원장은 우선 지역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인 봉생사회복지회를 설립키로 했다.

1996년 12월 23일 5억원을 출연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임시모임을 가진데 이어 이듬해 5월 30일 창립 발기, 7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을 허가 받았다.

1997년 10월 1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한 연건평 700여평의 구 청산학원을 복지회 사업장으로 확보하고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펼쳐나갔다.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면면을 보면 크게는 경로의원을 비롯한 무료 의료서비스사업,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봉생실버대학 여성배움터 등 지역사회교육지원사업, 기타 종합상담실 운영 물물교환센터 운영 등 광범위한 범위의 복지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및 가정간호 사업, 매월 정기적인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사업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의화 원장은 1998년 여름에 경기북부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을 때 봉생사회복지회를 중심으로 4천만 원에 달하는 수해물품을 모아 수해지역인 경기도 강화,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지에 전달했다. 물론 언론사나 국회를 통한 수재의연금은 예년과 같이 보냈으나 이 해의 수재는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라 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게다가 수재를 당한 지역이 위나 광범위해서 당장 필요한 물품이 그때 그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기에 직접 가서 수재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복지회와 지구당, 그리고 봉생병원 가족들을 통해 1천여만원 상당의 수재의연 물품을 거두고 차비를 3천여만원을 들여 4천여만원의 물품을 5톤 트럭 4대에 나눠 싣고 직접 수재현장을 갔던 것이다.

IMF 한파가 몰아쳤을 때는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나눔음악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1천5백만원을 실직자 가정 83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감정 해소에 발벗고 나서다

1991년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지역감정이 극도로 표출되던 시기였다. 지역애와는 달리 지역감정은 퇴행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기도 했다. 정치권은 오히려 이러한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런 차에 부산 광주의 뜻 있는 인사들이 민간차원의 단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오갔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부산·광주지역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 영호남 민간인협의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영호남민간인협의회는 당시 극에 달했던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양 지역간 우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창립되었다. 여기에는 부산, 광주의 여론주도층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의화원장은 권철현 동아대교수(현 국회의원), 김성국 부산대교수, 그리고 설광석 동아대교수 등과 함께 주축이 되어 움직였다.

부산에서는 장혁표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최해군 공동체를 위한 모임 회장, 배승원 국제신문 편집부국장, 서세옥 목요학술회 사무국장, 정영자 신라대 국문학과 교수(이상 당시 직책) 등 32명이었고, 광주에서는 오병문 전남대 총장, 노희관 전남대 교수, 문철성

장홍병원장, 김종남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이강재 금호문화재단 부이사장, 순천환 현대기공 부사장 등 32명이었으며, 그 후 전남개발원의 많은 인사들이 동참하였다.

1991년 11월 9일 지리산에서 양측이 모였다. 양 지역의 발전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지리산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영호남민간인협의회는 영호남간 공동의 학술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부산·광주지역 청소년 상호방문 사업, 광주 금호문화재단과 봉생문화회가 후원한 문화단체 교류 등 눈부신 활동을 보였다.

정의화원장은 1993년 회장을 맡아 학술 및 문화, 청소년 교류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쳐 나갔다.

영호남민간인 협의회 활동을 통해 광주 금호문화재단의 이강재 부이사장과 맺게 된 끈끈한 인연은 봉생문화회와 금호문화재단이 정기적으로 영호남 문화교류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포럼 신사고 출범의 뜻을 달다

1994년 부산의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들은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건강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 <포럼 신사고>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부산에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럼의 취지에 동의하며 참여하였다. 회원 개개인이 큰 무게로 느껴지는 인사들이었다.

<포럼 신사고>는 금세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



▲ 1994년 영호남 민간인협의회에서 주최한 청소년 교류 행사

론 단체로 부각되었다.

이 포럼의 창립에 사람을 끌어 모으고 사무실을 내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일들은 당연히 정의화 원장의 몫이었다. 부산대 김성국 교수, 동아대 권철현 교수, 설광석 교수, 박형준 교수, 추리작가 김성종 선생 등과 함께 창립준비 모임에서부터 참여하면서 조직구성, 재정에 있어 포럼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

유난히도 더웠던 그 해 여름. 그는 낮에는 진료와 수술, 밤에는 포럼에 참가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전념했다. 포럼 발기인 100여명 중 직접 만나서 참여를 설득한 사람만도 80명에 달했다.

포럼 창립 이후 그는 운영위원장으로 맡아 출범 이후 부산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단체에 걸맞게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세미나의 개최, 공론 형성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갔다.

1999년에 들어와서 포럼 신사고와 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부산의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부산만들기 창조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는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작업들이 모여 부산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어 갈 것이다.

또한 정의화원장은 1998년 차성수 교수(동아대 사

회학과), 김민수 교수(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승환 교수(동아대 조경학과) 등의 조력으로 봉생사회포럼을 만들어 부산의 구 도심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초아의 봉사상 수상과 정치 입문

1995년 6월 22일 정의화원장은 극동지역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로타리클럽으로부터 <초아(超我)의 봉사상>을 수상한다.

국제로타리안의 최대의 영예로 여겨지는 <초아의 봉사상>은 세계적으로 의료 및 문화를 통한 사회봉사에 상당한 공적이 인정되는 로타리안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그는 전세계에서 7번째 높은 평점을 받았다.

그는 수상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료인이란 연구와 봉사를 통한 건강한 사회, 질병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지요.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을 뿐입니다.’고 밝혔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던 1995년 8월 어느 날.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관용 의원이 동래봉생병원 병원장실로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이 차기 총선 때 지역 사회에서 신망받고 유능한 젊은 세대를 발굴해서 국회의원에 출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문지상에는 연일 정치권의 대폭 물갈이 계획이니, 세대교체니 하는 이야기가 지면을 채우고 있을 때였다.

의사로서 또 경영자로서 이를 만큼 이루었고,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애쓰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로서는 난감한 제의였다. 동서가 분단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낳게 한 지역감정, 구조화된 부정부패로 만신창이가 되어있는 정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정치에 선뜻 발을 디뎌놓기가 그리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박관용의원은 ‘이번에는 과거와 좀 다를 것입니다.



▲ 포럼신사고 '21세기를 향한 한국정치의 진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이력서라도 보내달라'는 뜻을 전했다. 어떻든 그는 박관용의 원의 요청으로 이력서를 청와대 특보실로 보냈다. 10월경 몇 군데에서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 후 공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10, 11월 지역 신문의 정치면이나 방송에 동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예정자로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 는, 복지 중심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 선부르게 참여했다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보는 나날을 보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21세기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민주·복지사회로 가는 준비는 대단히 부족하다. 앞으로 전개될 복지사회 건설에는 그 분야의 역량을 지닌 전문가의 정계 진출이 불가피하다. 또,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개혁의 텃밭을 힘차게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불의와 부정 앞에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짚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려 하겠는가. 그래. 복지전문가로서 흔쾌히 몸을 던지자.'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깊은 고민을 반복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불과 수개월 밖에 남지 않았던 연말쯤의 일이었다.

어떤 일이든 결정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를 하지만 일단 결단을 내리고 나면 무서운 추진력으로 일을 추진해나가는 성미가 아닌가. 그는 결단을 내린 이상 출마는 공천 여부에 관계없이 밀고 나가기로 했다.

출사표를 던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구·동구는 그가 45여 년을 살 아온 고향 같은 곳이다. 진해 웅동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중구·동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자연히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코흘리개 시절부터 부산 중·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를 거쳐 봉생병원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동구의 골목마다에는 그의 추억과 애환이 서려 있었다. 병원장 취임 이후 20여 년간을 지역주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육신의 아픔과 함께 가슴속에 응어리진 걱정과 탄식을 읽어 왔다. 말 그대로 중·동구와 동고동락하며 살아왔지 않았는가.

1995년 12월 19일. 마침내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 이라도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

출마를 결심하고 나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당시 부산고 동창회장이며 모교 10년 선배인 허삼수 전의원과의 관계정립 문제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면서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정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허삼수 전의원의 구속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변수가 많았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잡고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순간에 사사로운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출사표를 던지기로 결심한 날, 그는 아내인 김낸시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간 병원에서 휴가 한 번 없이 일해 왔지



▲ 1995년 초아의 봉사상을 받다

않았소.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낙선하는 것은 뻔 하겠지만,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소. 나를 좀 도와주구려.’

언론에 차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될 때부터 김낸시 여사는 ‘출마하면 이혼할 겁니다’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고 있었다.

‘5천만원만 쓰겠소. 그간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많은 돈이긴 하지만 휴가비라고 생각해주구려. 그리고 내년 선거기간에 한 달간만 쉽시다’

그 동안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김낸시여사가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정원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병원에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상황임을 김낸시여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동의해주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오로지 봉사의 한 길로 달려온 남편이 새로운 정치의 꿈을 한 번 펼쳐 보겠다는 데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1996년 1월이 되어도 중·동구지역 공천은 계속 안개 속에 싸여 있었다. 한이현 전 대통령특보가 공천되었다는 신문보도가 나돌았고, 공천 막바지엔 부산고 10회인 윤동윤 전 체신청장이 공천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그가 공천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간간이 보도되었다.

한편, 당시 여야는 선거구 협상에서 인구동가성 문제를 제기해 놓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7만5천명으로 조정하였다. 그렇게 되자 중구는 인구 하한선에 걸려 독립선거구가 될 수 없었고, 동구와 통합되었다. 부산에서는 중·동구가 단일 선거구가 되고, 해운대·기장, 북구·강서가 2개의 선거구로 분리되게 되었다.

초발심(初發心)이 통했는지 시대가 그를 원했는지 알 수 없었다.

1996년 1월 30일. 봉생병원 원장실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수술실에서 수술에 여념이 없었던 터라 전화를 직접 받지는 못했다. 비서가 대신 그 전화를 받았다. 신한국당에서 온 전화였다. ‘정의화 병원장이 신한국당 중·동구지구 국회의원 후보로 내정

되었으니 공천신청서와 입당원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

2월 3일 신문지상에는 신한국당 공천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2월 7일 서울에서 공천자대회가 열렸다.

며칠 뒤 선거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건 고교 선배인 모 국회의원은 정의화원장이 아직도 수술 중이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와 ‘선거가 도대체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느냐’고 질책하기 까지 했다고 한다.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성의를 다하고 싶지 않아서 가 아니었다. 이미 4월말까지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는 환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어려웠던 것이다. 어쨌든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릴 수 없었으므로 급한 수술은 집도 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 여유가 있는 환자들은 양해를 구하고 7월로 연기했다.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해서는 병원에 묶여 있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타 후보보다 2,3배 이상 뛰어だ였다. 그때 그의 모습을 보고 모두 혀를 내둘렀다.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의화원장이 중·동구에 공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5공의 실세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허삼수 후보와 재선의원이며 화려한 정치경력을 갖고 지명도가 높았던 김정길 전의원, 여기에 맞서는 정치에 갓 입문한 의사출신의 정의화.

아무리 집권당의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판세는 그가 가장 불리했다. 명예회복을 내걸고 옥중 출마한 허삼수 의원의 지역기반은 탄탄했고, 조직력도 과거 민정당 시절 당내에서 조직부문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막강했다. 김정길 전의원은 과거 1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중구 동구 영도구 중선거구에서 박찬종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바 있었고, 중앙정치권에서 야당의 부총재를 할만큼 지명도가 높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였다.

이런 점 등을 들어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공천이 모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이변지역으로 중·동구를 손꼽기도 했다.

공천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로 간 그에게 대통령은 이렇게 격려했다. ‘나는 부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고 있소. 중구·동구는 과거에 부산의 정치 일번지였소. 허나 이젠 달라졌지요. 복지전문가로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해 온 젊고 참신한 정 후보야말로 중구·동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적임자일 것이오.’

마침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학교 반장 선거에도 한 번 나가보지 않은, 그래서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초보였다. 그렇지만 선거 기간동안 일관되게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자 했다. 처음 선거에 임하는 후보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임의단체에서 지원해주면 도와주겠다는 유혹이었다. 재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곳곳에서 손을 벌릴 때는 정말 괴로웠다고 한다. 하지만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금권선거를 한다면 정치입문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었다. ‘돈 있는 사람이 너무 심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유혹들을 이겨냈다.

그래서일까. 선거기간 내내 ‘선거는 개뿔도 모르고 똥고집만 센 사람’으로 불리었다. ‘선거에는 2등은 없다.’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 죽어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들었다.

그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선거가 타락하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 비록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러운 선거를 치루어 당선되는 것보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해 여야 막론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1996년 4월 11일. 날씨는 유난히 맑았다.

중·동구 선거구의 선거운동은 금권, 타락 없이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별다른 잡음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다.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도 되기 전인 밤 9시경 방송에서는 이미 그의 당선 확정을 알리기 시작했다. 개표결과는 득표율 42%, 압도적인 승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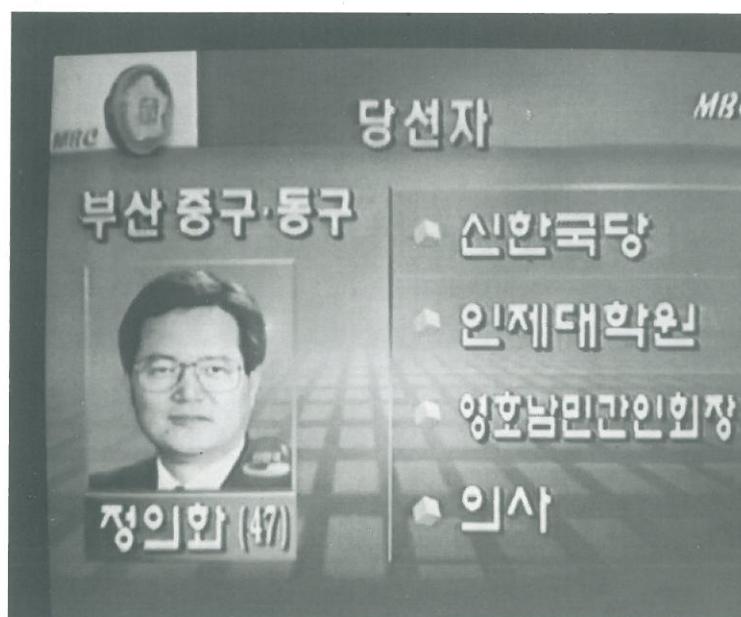
MBC와 즉석 인터뷰에서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 걱정이 앞선다’라는 간단한 인사로 당선 인터뷰를 대신했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가 당장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상대후보 중 한 후보측은 당선 축하연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접전지역으로 후보자간의 당락 경쟁이 치열하리라는 언론의 예상을 뒤엎고, 그가 혓되어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화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입법활동, 국정감사 등에 있어 복지전문가로서 베스트의원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법활동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도시영세민 주거밀집지역의 복지시설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에 치중하였다. 국회의원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반드시 자리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정치에서까지 봉생이념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한 그는 영원한 봉생인일 수밖에 없었다.



▲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화 원장

1999년 개원 50주년을 맞아 정의화원장은 설립자인 김원묵박사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봉생역사관을 건립하고, 고인의 흥상을 제작하여 봉생쌈지공원에 헌정했다. ‘생명을 떠받들어 모신다’는 봉생의 숭고한 뜻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함이리라. 그는 김원묵박사의 유업을 완성하는 시점을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고인이 태어난 평안남도 대동군 대막골에 봉생의 분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어느 누가 이처럼 고인의 뜻과 유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고 김원묵박사 타계 이후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봉생병원을 이어받아 봉생병원을 어느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정의화원장.

1974년 120병상 80여명의 직원을 가진 신경외과 전문병원을 약관 27세의 나이에 물려받아, 1999년 현재 전문의 64명을 포함한 의사 98명 등 모두 800여 직원이 종사하는 모두 700병상의 2개의 종합병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복지, 사회운동의 요람인 봉생문화회, 봉생사회복지회, 봉생사회포럼 등을 설립하여 부산경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병원, 지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봉생의 이미지를 확고히 뿌리내린 정의화원장.

그는 이제 영육이 교차한 봉생 50년 역사를 딛고 새 천년, 봉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 정의화 의료원장 약력

1948.	경남 창원군(현 진해시) 웅동 출생
1967.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2.	미국의사자격획득(ECFMG)
1973.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인턴 수료
1978.	전주예수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1978-79.	미국 샌프란시스코가주대학 신경외과 임상 펠로우쉽
1979-80.	미국 뉴욕대학병원 신경외과 임상 펠로우쉽
1981.	미국 로마란다대학 신경외과 뇌졸중 연구 펠로우쉽
1984.	미국 신경외과학회 정회원(현재)
1989.	월간 <현장>발행인(-94년), 봉생문화회 회장(현재)
1990.	사단법인 도시발전연구소 재정운영위원장 이사(현재)
1992.	봉생뇌척추연구소 초대연구소장(현재)
1993.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이사장
1994.	영호남민간인협의회 회장 포럼신사고 운영위원장 대한노총양학회 감사(현재)
1995.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 병원협회 이사 및 부산병원회 부회장
1996.	제15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 중·동구 지구당)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 국회 운영위원 보이스카웃 부산연맹장
1997.	국회 아동·인구·환경의원 연맹 회원 부산사회복지협의회 회장(현재)
1998.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 명예이사장(현재)

제3부 봉생문화회

설립취지문

날이 갈수록 물질주의와 상업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퇴폐 향락 외설문화가 순수문화처럼 일상화됨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로소득과 부정부패가 보편적 가치로 전도되고 폭력과 강력 파렴치 범죄마저 증가 일로를 치닫게 됨에 따라 전래의 따스한 인정과 정신세계의 가치는 거의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암담한 이 시점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고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망스러움은 누구나 바라고 있지만 선뜻 못 나서는 것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성 회복의 순수한 바람과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절규들이 모여 적으나마 소외 계층을 돋고 문화예술의 창달에 일익을 해 보고자 봉생문화회를 설립합니다.

봉생문화회는 우선적으로 부산경남지방의 문화예술 진흥과 언론 창달을 지원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과 문화사업의 기본적 전제인 사회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생문화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사람다워지는 작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89년 7월

발기인 일동

봉생문화회가 걸어온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봉생'을 삶의 철학으로, '인본주의'를 기본 신념으로 삼고 있는 정의화 원장은 진정한 의술이란 육체적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고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복지환경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되는 것이라 믿었다.

그 신념은 1989년 창립한 '봉생문화회'를 통해 활발한 문화, 복지 활동으로 실현된다.

1989년 7월 문화계 및 언론계 인사 3백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이들의 격려 속에서 봉생문화회는 창립되었다.

그해 12월 제1회 봉생문화상 시상식과 문화예술인 송년의 밤이 개최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10명에게 생활 지원금이 전달되었으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자녀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제1회 봉생문화상은 부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강남주 시인이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일



▲ 1998년 개최한 제10회 봉생문화상

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 및 문화예술인 5백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1990년 제2회 봉생문화상은 1985년에 창립되어 미개척지였던 부산 무용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하야로비 현대무용단'이 수상하였다. 하야로비 현대 무용단은 부산여대(현 신라대) 무용과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꾸준한 창작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육체 언어의 섬세한 예술적 표현을 강렬하게 보여준 예술정신은 다양한 실험의식과 다채로운 소재들을 통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창작과 후배 양성의 최일선에서 부산 현대 무용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하야로비 현대 무용단에 거는 기대와 격려로 제 2회 봉생문화상을 수여한 것이다.

1991년 2월에는 봉생문화회 장학금 전달식이 부산 일보사 옆 진고개 식당에서 조촐하게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하여 10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지원금을, 부산에서 활동하는 각계의 문화예술인 8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각각 30만원씩 지급했다.

그 해 6월 월간 <현장> 창간 3주년 기념 애독자 교양강좌로 신달자 시인의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회' 11월 박완서 소설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 강연이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월간 <현장> 독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문화예술인 초청 시민교양강좌는 부산 문화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온 정의화 원장의 뜻에 따라 봉생문화회가 새롭게 기획한 사업으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91년 제3회 봉생문화상은 부산 경남 지역의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오염 실상과 그 개선 대책을 적나라하게 보도한 '낙동강 살아나는가'를 기획 보도한 부산매일신문사 기획보도팀에게 돌아갔다. 이 시리즈는 부산 경남권 주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낙동강 상수원의 보전과 희생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부산 문화 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도 함께 개최한 제3회 문화상 시상식에서는 축하공연으로 '동래학춤'의 전수자들을 초청, 길이 보전해야 할 우리 부산

의 '동래학춤'을 공연하는 자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12월에는 신진 문화 예술인들을 키워나가기 위해 '발레리노 이원국 후원의 밤'을 개최하여 모금한 1천 8백 6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1992년부터는 봉생문화상을 확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제1회 문학부문, 제2회 공연·전시부문, 제3회 언론·출판부문에 시상해왔던 문화상을 1992년 제4회부터 3개 부문의 동시 시상 및 각 부문 별 600만원의 시상금 수여로 확대하여 권위있는 유수 문화상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제4회 봉생문화상 영예의 수상자는 문학부문에 박태문 시인, 전시부문에 서상환 화백 그리고 언론부문에 MBC 문화방송의 보도 기획 '부산의 고민 3장 3난을 극복한다' 취재팀이 선정됐다.

1993년 제5회 봉생문화상은 문학부문에 김성종 추리문학소설가, 공연부문에 박두루 나토얀 오페라 단장, 그리고 출판부문에는 도서출판 '빛남'에게 돌아갔다.

김성종 추리문학소설가는 '여명의 눈동자' 등의 역작을 집필하고 부산에 추리문학관 건립, 계간 '추리문학' 발행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공연부문의 박두루 단장은 향토 성악가를 기용하고 향토 오페라 발전에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아 봉생문화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 출판부문에서 영예의 수상을 안게 된 도서출판 '빛남'은 대표 이상개씨의 부산



▲ 1991년 11월 월간 <현장> 창간 3주년 기념 작가 박완서 선생 조청강연



▲ 1992년 개최한 브라리노 이원국 후원의 밤

출판문화 발전의지를 높히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그 해 봉생문화회는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와 사업 등을 개최했다.

5월에는 ‘한국남성합창단’을 초청, 부산 음악 애호가들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과 화음의 진수를 불어 넣는 무대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쳤다. 정동주 소설가의 ‘나의 시베리아 소설기행’에 이어 9월에는 영화 서편제의 주연 배우인 김명곤 선생의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11월 제갈삼 부산대 음악과 교수의 ‘명곡의 뒤안길’ 등 저명문화 예술인을 초청해 시민 교양강좌를 개최했다.

부산 문화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온 정의화 원장의 노력은 척박했던 부산 문화를 조금씩 비옥한 토양으로 바꾸어 나갔고, 봉생문화회의 업적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풍성한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 10월에는 영호남 화합을 위한 ‘조삼진, 김명진 피아노 듀오’의 부산·광주 연주회, 광주 금호 재단과 함께 마련한 ‘남도국악’ 부산 초청공연, 11월 ‘광주 한국춤’ 부산 초청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그와 함께 1988년 창간, 통권 53호를 발간한 봉생문화회의 월간 <현장>을 1993년 1월호부터 <현장저널>로 재창간하여 기존 4·6판을 4·6배판으로 판형을 키우고 내용도 시사, 여성면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부산 지역의 명실상부한 월간 종합 잡지로 자리매김하였다.

1993년에 정의화 원장은 영호남 민간인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영호남 민간인 협의회는 1992년

부산, 광주의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부각된 지역 갈등을 해소코자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 정의화 원장의 회장 취임 이후 △영호남 학술 교류대회 △청소년 교환방문 및 역사기행 △문화공연 교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양지역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1994년 제6회 봉생문화상 문학부문에는 중견시인 김석규 시인이 선정됐다. 그는 일관된 자세로 아름다운 시를 써 온 문인으로서의 성실한 자세를 높이 평가받았다. 전시부문에는 38년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면서 일관되게 인간의 회비애락, 특히 서민의 생활을 주제로 생과 사의 인생살이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보기드문 작가로 정평이 나있는 최민식 사진작가가 수상했다. 언론부문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평을 받은 국제신문 푸른 취재팀에게 돌아갔다.

1995년 제7회 봉생문화상 문학부문은 단체와 개인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다. 계간지로 5년간이나 중단 없이 발간하고 ‘국제문예광장’ ‘영광독서토론회’ 등 문화행사를 통해 문학을 대중에게 보급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순수 비평 전문지 ‘오늘의 문예



▲ 1993년 <남도국악> 부산 초청 공연



▲ 1989년 3월부터 1993년 5월까지 발행해온 종합교양지 월간〈현장〉

비평' 동인들과 이미 시인으로서 확고한 자기세계를 구축하고 시 전문지 '열린시'를 발간한 정순영 시인이 영예의 수상을 안게 됐다. 공연부문에서는 부산연극의 위상을 고양하는데 결정적인 업적을 쌓아올린 '가마골 소극장'이 선정됐고 언론부문에서는 '백산의 동지들'을 기획, 취재한 부산일보의 특별취재반이 선정됐다.

1996년 제8회 봉생문화상은 문학부문에 동의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창근 시인이, 전시부문에는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청정 조각가가 수상했다. 또, 언론부문은 PSB부산방송 '물은 생명이다' 보도제작팀이 수상했다.

김창근 시인은 자아 탐색을 통해 인간 존재와 시적 진실의 밑바닥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는 존재론적 시인이라는 평을 받으며, 그의 시세계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전시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청정 조각가는 부산 미술의 제2세대 조각가로서 교편과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에의 정열과 의지를 굴절시키지 않고 순수성을 지켜온 점이 돋보여 수상자로

결정됐다.

부산방송(PSB) 보도제작팀의 <물은 생명입니다>라는 다큐는 낙동강 수계의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소재에 기초해서 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시청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을 과학적, 실증적으로 검증 보도하는 자체가 돋보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7년 제9회 봉생문화상 문학부문에는 다섯권의 시집과 두권의 평론집을 통하여 창작과 이론의 실천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일상적인 개인의 삶을 시로서 형상화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진실성을 부단히 추구하는 시인으로 평가받은 동아대학교 교수 차한수 시인과 부산 지역에서 높은 문학성을 유지하며 꾸준하게 자아탐구를 계속하고 있는 진경옥 시인이 공동수상했다. 부산 교향악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담당함으로서 부산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부산시민에게 문화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공연부문에서, 언론부문은 MBC 문화방송에서 제작한 '부산의 사계' 팀이 받게 되었다. 이 작품은 부산의 자연을 소재로 하여 부산 시민들조차도 간과하고 있는 부산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집약했다는 점에서 그 기획력이나 소재 선택의 뛰어난 감각을 높이 인정받았다.

같은해 5월 봉생문화회는 한국 예총 부산시지회 및 산하 11개 단체에 펜티엄급 업무용 컴퓨터 12대



▲ 1999년 봉생문화회 창립 10주년 기념 강연회

를 기증했다. 이 컴퓨터는 부산경남지방의 문화예술 진흥과 언론창달을 지원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문화 사업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봉생문화회의 설립취지에 따라 부산예총 사무국 등 여러 문화예술 단체에서 사용토록 기증된 것이다.

1998년 제10회 봉생문화상 문학부문에는 부경대학교 교수로,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폐미니즘 문학의 영역을 확대하는 작업에 열중해 온 송명희 문학평론가가 선정됐으며 전시부문에 안창홍 서양화가가 수상했다. 안창홍 화가는 기존의 심미적 기능으로서 미술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비판적인 담론 기능으로서의 미술과 그 가능성은 보여준 작가로 인정받아 선정됐다. 언론부문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을 해학과 기지로 심도있게 표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부산일보사 안기태 시사만화가가 수상했다.

IMF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던 1998년 봉생문화회는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와 공동 주최로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나눔음악회'를 개최, 실직자 가정 자녀 총 83명에게 등록금 1,566만원을 전달했다. 10월 15일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테너 신영조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했는데 근래 보기드문 2천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실직으로 실의에 빠진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특히, 1999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봉생문화회는 지난 5월 21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21세기 문화 시민의 좌표'라는 주제의 시민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는 제1강 '참여민주주의와 선거문화'에서 문화 시민의 기본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문화의 일대 혁신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제2강 '영상도시 부산의 비전과 가능성'에서는 부산 국제영화제 개최 이후 달라지고 있는 영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거대한 시장성을 지닌 영상산업을 부산의 미래산업으로 뿌리내리자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9월에는 봉생문화상 제정 10주년 기념 역대수

봉생문화상 제정 10주년 기념

역대 수상작가 작품전



▲ 1999년 봉생문화상 제정 10주년 기념 역대수상작가 작품전

상작가 작품전을 개최하여 여러 시민들이 시화, 그림, 조각, 사진 등의 수준높은 역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문화예술 창달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온 봉생문화회는 특히, 봉생문화상 제정으로 부산의 문화예술 및 언론분야의 발전에 이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부산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한 문화상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봉생문화회는 지역 문화를 꽂피우고 발전시키는데 작으나마 기름진 텃밭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봉생문화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 아래, 지난 1989년 부산의 중견급 문화인들의 뜻을 모아 창립한 봉생문화회는 지금까지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 발전과 부산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 봉생문화상

부산에 거주하며 자신의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묵묵히 정진해온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문학, 공연·전시, 언론·출판 등 3개 부문에 걸쳐 1989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각 부문 6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 부상이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연도	부문	수상자
제1회	1989	문학	강남주(시인·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2회	1990	공연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제3회	1991	언론	부산매일신문 「낙동강 살아나는가」 기획보도팀
제4회	1992	문학	박태문(시인)
		전시	서상환(서양화가)
		언론	부산문화방송(MBC) 「부산의 고민 3난 3장을 극복한다」 기획보도팀
제5회	1993	문학	김성종(소설가)
		공연	박두루(나토얀 오페라단 단장)
		출판	도서출판 빛남(대표 이상개)
제6회	1994	문학	김석규(시인)
		전시	최민식(사진작가)
		언론	국제신문 푸른 취재팀
제7회	1995	문학	「오늘의 문예비평팀」(대표 남송우), 정순영(시인·부산정보대 학장)- 공동수상
		공연	가마골소극장(대표 안채식, 장호)
		언론	부산일보 「백산의 동지들」 특별취재반

구분	연도	부문	수상자
제8회	1996	문학	김창근(시인·동의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시	김청정(조각가·신라대 미술학과 교수)
		언론	부산방송(PSB) 「물은 생명입니다」 보도제작팀
제9회	1997	문학	차한수(시인·동아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진경옥(시인) - 공동수상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곽승)
		언론	부산문화방송(MBC) 「부산의 사계」(PD 박명종 부장)
제10회	1998	문학	송명희(문학평론가·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시	안창홍(서양화가)
		언론	안기태(시사만화가·부산예술대 전임교수)
제11회	1999	문학	최상윤(문학평론가·동아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김영준(시인) - 공동수상
		공연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수석지휘자 배양현)
			부산새싹발레단(단장 김정순)-공동수상
		언론	KBS부산방송총국 「1999년 낙동강 환경 프로그램」제작팀
		특별상	MBC문화방송 「창사 40주년 기획 - 부산을 위하여」

● 출판

1989년 3월부터 1993년 5월까지 부산지역의 유일한 종합교양지 월간 <현장>을 한 호의 결간없이 발행했다. 특히 1993년 1월부터 제호를 <현장 저널>로 바꾸고 판형 확대 및 체제를 정비하여 전국지 수준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로 인해 1993년 5월(통권 58호) 이후 휴간중에 있다.

그외 <봉생문화회>의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으며 수상작가들의 창작지원도 하고 있다.

● 복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한차례씩 각 구별로 소년소녀가장 10명을 초청하여 생활 지원금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1997년부터 봉생복지재단설립으로 장학금 지급 등 복지사업부문을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에 이관하였다.

소년·소녀 가장 생활 지원금 대상자 명단

구분	연도	지역	대상자
제1차	1989	사하구	• 이주영(옥천국민학교 6년) • 고향숙(승학국민학교 4년) • 정지운(부산상고 2년) • 최재희(삼성여고 2년) • 이은정(경일여상 2년) • 송재석(영남중학교 2년) • 우요한(영남중학교 2년) • 박주균(장평중학교 2학년)

구분	연도	지역	대상자
제2차	1989	북구	• 황국남(경남공고 2년)
			• 황인복(동주여중 3년)
			• 권해영(낙동고 3년)
			• 배혜진(부산진여상 2년)
			• 주인정(선영직물)
			• 주보영(구포여상 1년)
제3차	1992		• 신경란(동래여상 야간 3년)
			• 정성훈(대웅정공)
			• 최정훈(동서화학)
			• 박경희(덕포여중 2년)
			• 박해정(슈퍼)
			• 박현자(현장근로자)
제4차	1993		• 오경환(옥천국민학교 5년)
			• 김선희(감천국민학교 5년)
			• 최준현(초장중학교 3년)
			• 김선(중앙여중 3년)
			• 남상민(대신중 2년)
			• 김동우(대신중 3년)
제5차	1994		• 장재원(기계공고 1년)
			• 오병권(경남상고 2년)
			• 노정미(영도여상 2년)
			• 유기수(한국기술고 1년)
			• 이재성(부산고 2년)
			• 류혜정(대연여상 3년)
			• 진미라(검정고시 준비)
			• 김민우(광성공고 1년)
			• 조재휘(수성국민학교 6년)
			• 노용남(성지공고 3년)
			• 최애리(덕명여상 1년)
			• 김현숙(동여중 1년)
			• 김동혁(부산상고 3년)
			• 박성환(화명중 3년)
			• 이승렬(동래고 2년)
			• 배현숙(계성여상 3년)
			• 김정순(동래여상 1년)
			• 송미경(경남여상 2년)
			• 이지훈(성지공고 3년)
			• 황성률(중학교 2년)
			• 송성미(동명여중 3년)
			• 조수영(대명여고 3년)
			• 신종범(연천중 3년)
			• 안은영(명동국민학교 4년)

예술인 자녀 장학금 지급자 명단

구분	연도	대상자
제1차	1989	• 성순옥(무용협회) 자녀 이태우(거성중1)
		• 조정남(음악협회) 자녀 이지원(동래여중2)
		• 강현호(문인협회) 자녀 강정엽(연산중1)
		• 최성진(음악협회) 자녀 최애리(구서여중1)
		• 이문홍(연예협회) 자녀 이민우(사직중1)
		• 최종섭(문인협회) 자녀 최선경(금정고1)
		• 김인환(연극협회) 자녀 김현진(계성여상1)
		• 유병근(문인협회) 자녀 유종훈(브니엘고3)
		• 양왕용(문인협회) 자녀 양지숙(남산고1)
		• 허복재(미술협회) 자녀 하호정(사직여고 3)
제2차	1991	• 이규홍(연예협회 연극분과) 자녀 이인표(부산진중 1)
		• 박태문(문인협회 시분과) 자녀 박수옥(중앙여고 2)
		• 구윤옥(미술협회 동양화분과) 자녀 구도원(대동고 1)
		• 정정옥(국악협회 기악분과) 자녀 정창수(계성여중 3)

구분	연도	대상자
		• 이금수(연극협회 기획분과) 자녀 이정훈(예술고 2)
		• 전승환(연극협회 연출분과) 자녀 전지영(남성여중 1)
		• 이상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자녀 이명희(망미여중 1)
		• 양경자(무용협회 한국무용분과) 자녀 윤지은(예술고 2)

● 시민교양강좌

부산시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저명한 문화계 인사를 초청하여 무료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왔다. 현재까지 소설가 박완서, 신달자, 정동주 선생,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 시인 조병화 선생, 영화 <서편제> 주연배우 김명곤 선생, 음악가 제갈 삼 선생 등을 연사로 초청하였다. 또한 1999년 봉생문화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21세기 문화시민의 죠표'라는 주제의 기념강연회도 개최했다.

● 학술

지역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풍토를 함양하기 위해 부산대 경제학 교실, 영호남학술대회, 도시발전연구소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 공연

비상업적인 예술공연의 주최 및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회가 제반경비를 부담하여 주최하고 후원한 공연내용과 지원한 예술단체는 다음과 같다.

연도	공연
1989	국악단체 <원율악회> 정기연주회
1991	<한국남성합창단> 부산초청공연
1992	조삼진 김명진 피아노 두오 연주회 부산초청공연
1992	영호남화합을 위한 <남도국악> 부산초청공연
1993	영호남화합을 위한 <광주한국춤연구회> 부산초청공연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춤 모임 <짓>
	극단 <연희단 거리페>
1995	나토얀 오페라단 <춘향전>
1996	나토얀 오페라단 <춘희>
1998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나눔음악회>
1999	봉생문화상 제정 10주년기념 역대수상작가 작품전

제4부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

설립취지문

복지사회란 정신적, 물질적 안정으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개인이 모인 가족과 그러한 가정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복지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물질문명이 전해오면서 우리사회는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물질만능주의의 사고로 사회는 갈수록 황폐화되어 한민족 고유의 가치관과 미풍양속은 존립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도덕과 윤리관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소멸되고 있으며 술한 불행을 숙명처럼 안고 고달프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질병, 역할상실 등으로 자기의 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복지활동의 자주적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자립의지를 돋고자 발기인들은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를 설립키로 뜻을 같이 하고 규합하게 되었다.

또한 더욱 공익성 있고 영구적인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저소득 생계비지원 및 무료진료 등 사업, 아동결연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와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진흥시켜 문화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를 설립코자 한다.

1997년 6월

발기인 일동

■ 봉생사회복지회가 걸어온 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매진



▲ 1997년 봉생사회복지회 설립기념식

봉생사회복지회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양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건강한 사회와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으로 생긴 봉생병원의 수익 중 1/3은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병원 재투자에, 1/3은 병원에 종사하는 봉생가족들에게, 나머지 1/3은 오늘날의 봉생병원을 있게 해 준 지역사회를 위해 바쳐야 한다는 것이 정의화 원장의 기본 철학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초석이 되고자 정의화 원장은 1997년 5월 30일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봉생사회복지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1997년 7월 16일자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봉생사회복지회는 1997년 9월 5일 설

립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전 국무총리 이영덕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의 <시민주체의 복지사회> 기념특강을 시작으로 개최되었으며, 부산 정무부시장 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동구 수정동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지역환경욕구 조사 등의 기초작업을 준비하던 봉생사회복지회는 1998년 3월 3일 동구 초량 3동(구 청산학원)에 복지사업관을 개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펼침과 동시에 부설 경로의원도 같이 개원하여 노인분들을 위한 진료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 봉생사회복지회 부설 무료경로의원



▲ 1998년 독거노인 초청 위안잔치

같은해 정의화 봉생사회복지회 초대 이사장은 명예 이사장으로, 제 2대 이사장으로 박경희 봉생병원 행정원장이 취임하였다.

봉생사회복지회는 지역사회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월 2일 봉생실버대학을 개교하여, 현재 1, 2학년 총 330명의 학생들이 노인장을 과시하며 만학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째즈교실, 지점토 공예, 장고교실, 민요교실 등 각 3개월 과정의 강좌를 개설한 봉생여성배움터는 지금까지 1,500여명의 학생이 수료하였고, 현재 5기 회원 300여명의 수강생들이 실력 배양을 통한 자아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1998년 4월부터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개인 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봉생어린이배움터를 개설,



▲ 봉생복지봉사단의 물리치료 서비스

현재 90여명의 어린이들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5월 18일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기 위한 봉생복지봉사단을 창단하였다. 현재 봉사단에 소속되어 복지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는 총 132명으로 활동분야는 경로당 지원사업, 이·미용서비스, 물리치료서비스, 물물교환센타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방과후 학습지도 등이 있다.

5월 11일에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상담, 혈압측정 등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5월 13일 매주 수, 금요일마다 지역사회 내



▲ 봉생실버대학의 에어로빅 교실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대학 수업과 가정용 물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첫 실시했으며 7월 1일부터는 저소득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격주 1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법인설립 1주년을 맞은 7월 16일에는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300여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풍물패 공연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7월 27일부터는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에 장애가 있는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생병원 파견 물리치료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물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8월 11일에는 전국 최초로 세대간 교류학교를 개교하여 청소년들

이 노인에게 직접 생활예절을 전수받고 세대간의 의식차이를 좁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인들과 학생들간의 일대일 결연 예절교육의 장을 열었다.

1998년 8월, 사상 유래없는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들이 실의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봉생사회복지회는 봉생병원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모아 약 4,000만원 가량의 수재 구호품을 지원하였다. 특히 생필품, 옷가지, 식료품 등을 실은 5톤 차량 4대는 수해의 피해가 특히 많은 곳 의정부, 파주, 동두천,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수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1999년 1월 1일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독거노인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 정서, 대인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소를 개소하여 지역 내 어려운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있다.

4월 23일에는 알뜰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봉생 물물교환센타가 개장되어 지역사회 내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5월 8일에는 세계노인의 해, 가정의 달, 법인설립 2주년 기념으로 ‘젖니에서 틀니까지’ 가족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하여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각종 게임과 장기자랑, 풍물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1969년 법인 설립 2주년 기념 '젖니에서 틀니까지' 가족 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7월 21일에는 봉생여성배움터 수료자들이 복지회 설립 취지에 발 맞추어 자발적으로 봉사단 팀을 결성하고 복지회에 봉사 장소를 요청함으로써 기존의 경로당 지원사업을 확대하게 되었고, 봉사팀과 경로당에 일대일 결연을 맺어주게 되었다.

개별 봉사팀은 매주 결연을 맺은 경로당을 찾아가 직접 준비한 국수 등 먹거리를 대접하고, 여성배움터에서 배운 고전무용, 장고, 노래, 민요 등의 즉석 공연도 하면서 푸근한 정과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봉생사회복지회는 현재 3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봉생사회복지회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1968년 8월 수재지역에 수재의연품 전달

■ 봉생사회복지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생사회복지회는 지역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설 경로의원과 재가 노인 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의료서비스 사업

구분	활동사항
경로의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 대상의 무료진료 실시
물리치료실	노인들에게 저주파 치료, 적외선 치료, 껌질 등의 물리치료 제공
가정간호사업	간호사가 독거노인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상담 및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치아관리서비스	생활보호대상자 중 치아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진료 실시
현물제공서비스	독거노인가정 및 장애인 세대 등에 필요한 생필품 제공
틀니무료제공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봉생병원 치과의 협조아래 무료로 틀니 제작 (생활보호대상자 월 4명, 저소득 노인 월 1명)
백내장 무료시술	생활보호대상자 중 안과질환(백내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성모안과병원의 협조를 받아 무료 수술 제공 (생활보호대상자 월 4명, 저소득 노인 월 1명)

● 저소득층 지원사업

구분	활동사항
무료 이·미용 서비스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파마와 커트 무료 제공
장학사업	배움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비 지원
후원 및 결연 사업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지역민 및 경로당 등과 결연을 맺어줌으로써 매달 정기적인 생활보조비 지원 등 경제적 후원과 생활적, 정신적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랑을 실천
방과 후 아동 학습 지도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자녀나 실직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하여 학습, 정서, 생활 지도 실시

● 지역사회교육 지원사업

구분	활동사항
봉생실버대학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자기 존재의식을 일깨워주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토크레이션과 노래, 체육, 각종 특강 등을 시행
여성배움터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및 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 실시 세대간 교류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학생 간 일대일 결연을 통해 인성, 예술, 효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역사 탐방교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주민 간담회 및 사회조사	지역 사회 내 주요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실생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개특강 개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 및 상식들의 무료 공개 강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기타 복지 사업

종합상담실 운영, 물물교환센타 운영, 주민 편의시설 제공, 자원봉사자 교육,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환경 캠페인, 경로당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구분	활동사항
물물교환센타	지역주민들이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을 기증하고,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해 가는 아나바다 운동 실천의 장이며 자녀들에게 아껴쓰는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견학장 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경로당 지원 사업	각 지역 경로당에 복지회 프로그램인 노인교실, 물리치료사업 자원봉사자 연계사업을 접목시켜,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소외감 해소 및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지원하고 있다.

| 봉생 김원묵 박사 추모 학술회



제1회

1. 일시 : 1984. 11. 12. 오후 6시

2. 장소 : 태양호텔 연회실

3. 연사 및 연제

① 연사 : 정환영 교수(한양의대 신경외과 주임교수)

연제 : 경추 및 요추수핵 탈출증에 대한 수핵내 효소 주입 치료

② 연사 : 임광세 교수(중앙의대 신경외과 주임교수)

연제 : Hypertensive intracranial hematoma 에 대해서

③ 연사 : Dr. Akira Yamaura(일본 Chiba 대학교 신경외과 부교수)

연제 : Treatment of vertebro-basilar aneurysms Analysis of 190 cases.

④ 연사 : Dr. Henry Bartkowiski(미국 UCSF대학교 신경외과 조교수)

연제 : Pre,post-Treatment of acute cerebral infarction with Nimidipine,
a slow calcium Channel Antagonist.

⑤ 연사 : 심재홍 교수(인제의대 신경외과 주임교수)

연제 : Early Surgery of intracranial aneurysms

제2회

1. 일시 : 1985. 11. 2
2. 장소 : 하이얏트호텔
3. 연사
 - ① 연사 : Fukushima 교수(일본 동경대)
 - ② 연사 : Akira Yamaura(일본 동경대)
 - ③ 연사 : 이규창 교수(연세대)

제3회

1. 일시 : 1986. 11. 8
2. 장소 : 국제호텔
3. 연사
 - ① 연사 : Fukushima 교수(일본 동경대)
 - ② 연사 : 이규창 교수
 - ③ 연사 : 심재홍 교수
 - ④ 연사 : 정상섭 교수

제4회

1. 일시 : 1987. 11. 14
2. 장소 : 하이얏트호텔
3. 연사
 - ① 연사 : Kawase(keio대)
 - ② 연사 : Nukui
 - ③ 연사 : Kazuo Wa
 - ④ 연사 : Moriya
 - ⑤ 연사 : Akira Yamaura

※ 1988년, 1989년, 1990년 : 동래봉생병원 개원 준비로 개최하지 못함.

제5회

1. 일시 : 1991. 4. 2
2. 장소 : 국제호텔
3. 연사 및 연제
 - 1) 연사 : Dr. Kenichiro Sugita(Japan. Nagoya. Univ)
연제 : ① How to operate on giant aneurysms
② Problems of AVM surgery
 - 2) 연사 : Dr. Evandro de oliveira(Brazil 상파울로 의대)
연제 : Temporal lobe AVM.(Microsurgical Anatomy and Approaches).
 - 3) 연사 : Dr. 정상섭 교수(연세대학교 신경외과 주임교수)
연제 : Stereotactic Radiosurgery nr Intracranial Lesions Using Linear Accelerator.
 - 4) 연사 : Dr. 심재홍 교수(인제 대학교 신경외과 주임교수)
연제 : Deep Seated AVM
 - 5) 연사 : Akira Yamaura(Chiba 대학 · 일본)

제6회

1. 일시 : 1992. 5. 30. 오후 2시
만찬 및 연회 : 오후 7시
 2. 장소 : 하이얏트호텔 2층 Ball Room
 3. 연사 및 연제
 - 연제 : Microanatomy of Brain
 - 연사 : ① Dr. M. FUKUI(Kyushu Univ. Chairman of N-S dept). . . Guest speaker
 - ② Dr. K. FUJII(Kyushu Univ); Sella Turcica and sphenoid sinuses & ant. Choroidal artery.
 - ③ Dr. T. MATSUSHIMA(Kyushu Univ). 4th ventricle or veins of posterior fossa.
 - ④ Dr. S. NAGATA(Iizuka Hosp); Lateral and 3rd ventricles, or jugular foramen.
 - ⑤ Dr. T. INOUE(Iizuka Hosp) ; Cavernous sinus & ant. communicating artery.
 - ⑥ Dr. S. SAKATA(Kaizuka Hosp) ; Post Cerebral artery.
 - ⑦ Dr. K. OKA (Fukuoka Univ) ; Veins of cerebral convexity.
- (연수교육 평점 4점 부여)

제7회

1. 일시 : 1993. 11. 13. 오후 2시
 2. 장소 : 하이 앳트호텔 2층 Ball Room
 3. 연사 및 연제
- ① 연사 : Dr. Albert Rhotor, Jr.(Florida University U.S.A)
연제 : Micro surgical Anatomy and Syndrome of the posterior Cranial Fossa.
- ② 연사 : Dr. Akira Yamaura (Chiba,University Japan).
연제 : Approaches to vertebro-basilar Aneurysm pre serving per forators.
- ③ 연사 : Dr. Toshio Matsu shiama.(Kyushu university, Japan)
연제 : Micro surgical Anatomy of the C-P Angle.

제8회

1. 일시 : 1994. 11. 5. 오전 10시
 2. 장소 : 하이 앳트호텔 Ball Room
 3. 연사 및 연제
- ① 연사 : Akira Yamaura(Japan)
연제 : Nontraumatic Intracranial Dissecting Aneurysms.
- ② 연사 : Yong Kwang Tu(Taiwan)
연제 : Deep Seated AVM surgery
- ③ 연사 : Madjid Samii(Geramany)
연제 : Skull Base Lesion.
- ④ 연사 : Jack Dunn(U.S.A)
연제 : Modern Neuro Surgical Treatment of Lumbar Spine.
- ⑤ 연사 : Hiroshi Abe(Japan)
연제 : Anterior Decompression and fusion for the Cervical OPLL.

■ 낙도 어린이 초청 수학여행

구 분	년 도	초청학교	학생수	관광 및 견학장소
제1회	1981. 10.22~24	경남 진양군 지수면 용봉리 동지초등학교	17명	부산일보사, KBS방송국 우성식품(코카콜라) 태종대, 박물관, UN묘지 충렬사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등
제2회	1986. 5.29~31	경남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입산초등학교 백산분교	25명	"
제3회	1987. 5.21~23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정태리 청덕초등학교 덕진분교	38명	"
제4회	1988. 5.26~28	경남 통영군 한산면 추봉리 추봉초등학교	39명	"
제5회	1989. 5.23~27	경남 산청군 신등면 묘계리 단계초등학교 율현분교	43명	"
제6회	1990. 5.24~26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북상초등학교 소정분교	42명	"
제7회	1991. 5.23~25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마천초등학교 삼정분교	25명	"
제8회	1992. 5.21~23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상태초등학교	5,6년 39명	"
제9회	1993. 5.20~22	경남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오계 초등학교 천진분교	1~6년 30명	"
제10회	1999. 5.26~29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초등학교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상태초등학교	1~6년 100명	UN묘지, 해운대 코카콜라 공장 테즈락 유람, 해군제3함대 부산일보사 MBC방송국, 부산시청 통도환타지아 등

■ 감사패 수여 현황

성명	년도	종류	품격
고 김원묵 박사	1952	은성화랑 무공훈장	
	1953	금성화랑무공훈장	
	1962	대통령 근무 공로 훈장	
	1971	감사패	대한신경외과학회장
	1971	표창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장
	1973	표창장	부산시 체육회장
	1973	감사패	대한체육회장
	1974	감사장	부산시 경찰국장
	1974	감사패	학교법인 광성학원 이사장
	1974	감사패	성모여고 교장
고 석신덕 여사	1981	감사패	동부경찰서 서장
	1982	감사패	부산지방국세청장
	1982	감사패	동구청장
	1982	감사패	동부경찰서장
	1982	감사패	동아일보사장
	1983	감사패	국민은행 부산진 지점장
	1894	메달	부산 사회체육센터 소장
	1985	공로패	대한민국 팔각회장
	1986	공로패	대한민국 팔각회장
	1986	감사패	부산동구 팔각회장
	1987	공로패	대한민국 팔각회장
	1987	감사패	국민은행장
	1987	감사패	동구청장
	1987	공로패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1988	감사장	좌천1동장
	1988	감사패	동구청장
	1988	감사장	좌천1동 새마을금고 회장
	1988	표창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장
	1988	사회봉사부문 표창장	대한적십자사 부산직할시지사장